



우리가 만든 세계인의
아모디핀® 정
5mg 캄실산아로디핀

우리 손 우리 기술로 만들고
세계인이 함께 쓰는
대한민국 대표 고혈압 치료제-아모디핀® 정

- 1.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 Amlodipine Camlylate 개량신약
- 2. 한국인 대상 최다 임상시험으로 효과와 안전성 입증
- 3. 다양한 수상경력으로 공인된 Super 개량신약
- 4. 국산 고혈압 치료제 중 최다 처방의 No.1 브랜드
- 5. 해외로 수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고혈압 치료제



"과체중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한미약품 살빼기캠페인 salbaekicampaign.com/bimaninfo.co.kr

2008년
32호



경북의사회



우리 홈페이지 이렇게 개편되었습니다

■ 홈페이지 소개

경상북도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회무 및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 공식 홈페이지(www.igbma.or.kr)를 새로 오픈하여 운영

■ 홈페이지 구성

△의사회 소개 △의사회 소식 △회원 마당 △정보 마당 △동호회 △참여 마당으로 구성되어 제작하였으며, △시군별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회원들의 소속감을 부여

△개인별 회비납부 사항과 인적 사항 확인 △향후 페이퍼 형식의 공문을 줄이고 온라인 공문을 확대하여 신속한 정보전달

경북의사회지

2008년 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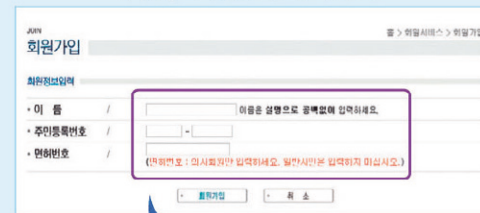


홈페이지 가입안내

1 홈페이지 주소입력 (http://www.igbm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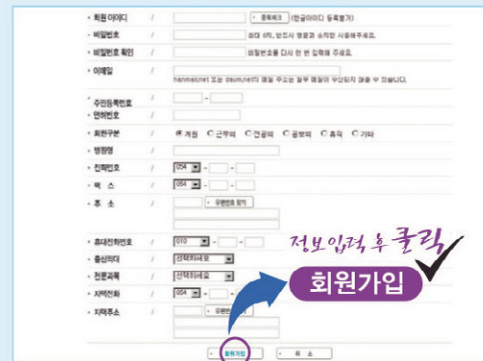


2 회원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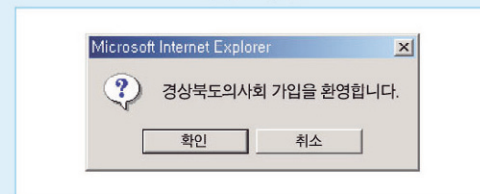
정보입력

3 회원 상세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을 누르면 모든 가입절차가 끝남



정보입력 후 클릭
회원가입

4 경상북도의사회 정회원 승인 후 사용 가능



경상북도의사회

한 장의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 다함께 새 출발을!



이원기
경상북도 의사회 회장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으로 빛을 보게 된 제32호 『경북의사회지』 발간을 이천오백 의사회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별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새 생명을 노래하는 춘삼월이 돌아왔습니다. 겨우내 동토에서 죽은 듯 숨죽이던 식물들이 새순을 밀어올리고,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온갖 동물들이 기지개를 펴는 봄은 진정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계절이요 마음 설레게 하는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지난 10여 년간 의사에게 온갖 굴레와 억압을 강요하던 편향된 정권은, 드디어 여러분의 힘과 온 국민의 힘으로 물러났습니다. 의사들에게 '침대길이에 맞추어 다리를 자르는 짓'이 수없이 자행되던 억울하고 답답한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폐허처럼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 없이 시행된 '의약분업'은 오늘날 의사들만 지키며, 정당하게 판결한 '약제비 환불'도 당국은 아직 되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 시범 실적'이 아주 우수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 회원 여러분!

국가로부터 '의사'라는 면허를 받은 전문인으로서, 먼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계속한 지난 날 우리의 투쟁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눈에 비추어진 잘잘못을 냉철히 반성하여 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은 우리 의사는 앓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로서, 생명의 위기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으며, 가진 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휴머니스트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엘리트로서 거듭나는 마음으로,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지키며 정직하고 모범되게 살아갑시다.

다음으로 우리는, 새로 출발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지구상에서 신기록을 세운 '한국의료보험제도'를 처음부터 짚어봅시다. 8년간 억지로 굴러온 '의약분업' 제도를 학문적으로 평가하여 봅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의사 배출문제', '의료 일원화문제' 등에 대하여 이성을 갖고 기초부터 하나하나 점검하여 봅시다.

지난 날 우리는 정부와의 힘든 투쟁을 통하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의사들은 새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복잡한 난국을 풀어 나갑시다.

끝으로, 자신의 영혼을 다듬어 옥고를 보내주신 여러 선생님과 밤잠 설쳐가며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신 권세홍 부회장님과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먼 훗날 우리가 살았던 역사가 되고, '경북의사회'라는 큰 집을 완성하는데 요긴할 또 한 장의 벽돌이 될 것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열심히 살아 갑시다



이석균

경상북도의회
대의원회 의장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은 가고 다산과 풍요의 쥐띠 해인 무자년이 밝았습니다. 회원님 가정의 화목과 가족의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북의사회지』 제3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권세홍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여러분, 옥고를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와 국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우리 의료계에도 전례에 없던 회장 불신임안 상정이 있었으며, 그 결과 부결은 되었지만,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고, 결국 검찰에 의해 회장직을 사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단체장은 리더십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사고와 변화에 조화있게 대처해야 하며 한편으로 도덕성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외적으로 아프칸 인질 사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 난사 사건 등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으로 사람의 목숨이 귀하게 대접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남북정상회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천 냉동 창고 화재 등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교차하기도 했으며, 특히, 국보 1호 송례문의 어처구니 없는 화재로 인해 국민의 울분과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과 관계기관의 사전 안전 준비 미흡과 사후 대책의 미비로 인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순간에 대형 참사라는 불행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의료계도 장동익 회장의 퇴진과 주수호 회장의 취임, 의료법 개정 반대, 성분명 처방 반대,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반대 등 의사협회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대투쟁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는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의사회원이 하나 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협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경북의사회는 한해 동안 모든 회원님들의 단결과 이원기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전국 집회에 가장 많은 회원이 참가하는 열성을 보여 주었으며, 대과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의사회와 회원들의 사고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회원들은 진취적이고 사회와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빠른 적응을 해야 하고 의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맞게 회원들을 인도해 가는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10년간의 분배주의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국민들도 자본주의의 위기에 걱정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이 탄생되어도 의료환경은 크게 좋아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료정책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편에 맞춰 정책을 수립할 확률이 높습니다.

급격한 의료인의 증가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한 환자 감소, 교통편리로 인해 대도시, 또는 의료 시설이 좋은 곳으로 환자의 이동이 예견됩니다. 보험료는 한정된 상태에서 의료수가를 급격히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되며,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면 정부에서는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료 사회는 고도의 도덕성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요구할 때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받는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전문직을 존중해 주는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펼다는 한 가닥 희망은 있으나, 의료를 통한 수익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으로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 처방 반대, 합리적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국민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이 새로운 정부의 초기에 채택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과 회원들의 단결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무자년 한 해 회원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경북의사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의 창조적인 사고로 모든 회원들이 웃으면서 진료에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회원님! 모두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갑시다.

경상북도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주 수 호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사회지 제32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경상북도의사회는 지금까지 300만 도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강력한 단결력으로 항상 앞장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대한의사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땅에 떨어진 의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위상에 걸맞은 의협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제35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이제 9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의료계는 이 기간 동안 매우 중대한 일들을 겪었으며, 특히 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참히 훼손하는 의료 탄압 정책은 더욱 기승을 부려 의사들을 옥죄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미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제35대 집행부는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일련의 현안들에 맞서 전력을 다해 대응해 왔으며, 협회 회무를 투명화, 선진화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들에 메스를 들이대고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사무처의 직제와 업무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성과중심의 인사·보수 체계를 수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무추진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면밀한 법적검토를 거쳐 100%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미 예년 대비 수억대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들께서 납부하신 피땀어린 회비가 회원의 권익 향상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의료계 전체를 커다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게 했던, 의사들로 하여금 의업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과 관련해서도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부각시키고, 전력을 다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국 국회 통과를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악법 강행 또한 막아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회원 여러분의 의협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단결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35대 집행부는 이러한 노력과 성취들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하나하나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의 대선과 마찬가지로 얼마 남지 않은 4월 총선도 의료계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 역시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료계의 강력한 결집력과 정치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대한의사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의권의 수호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이며 의료계의 수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의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방면의 노력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원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료계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권수호를 위해, 의료계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깊은 애정으로 의협을 지켜봐 주시고 굳게 단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발간사 | 한 장의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 다함께 새 출발을! · 이원기 _ 2
- | 축사 | 모두 힘내시고 열심히 살아 갑시다 · 이석균 _ 4
경상북도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 주수호 _ 6

사진으로 본 2007년 경북의사회 _ 10

- | 시상갤러리 | 무제 · 윤태권 _ 30 대왕암 일출 · 박종각 _ 31

특집 내 인생의 멘토

- 의사의 품위를 가르쳐 주신 참스승 · 신은식 _ 33
- 내 인생의 멘토, 선고(先考) · 이원기 _ 34
- 내 인생을 바꾸어 준 담임선생님 · 이석균 _ 36
- '님' 자 붙여주던 대대장님 · 정만진 _ 38
-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들 · 장기호 _ 40
- 내 삶의 소중한 멘토들 · 권세홍 _ 42
- 나의 첫 슈퍼바이저이신 정신의학의 스승 · 김규태 _ 45
- excuse가 없는 과장님 · 김광만 _ 46
- 땀과 사랑을 가르쳐주신 조부모님 · 서보균 _ 49

원로 초대석

손장락(안동손의원) _ 51
취재 권세홍



포토 에세이

울릉도에서 4년 · 정만진 _ 60

논단 시론

- | 논단 | 의협 정관 "전부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변영우 _ 70
- | 시론 | 정부의 기막힌 약품정책을 고발한다 · 백승인 _ 73

회원 문예작품

- | 회원시 | 탁상의 파란 구슬 · 손장락 _ 81 바람에게 길을 묻다 외 1 · 김의홍 _ 82
신귀거래사 · 최해곤 _ 84 자연 · 안길룡 _ 85
시사 삼행시 입선작 _ 86
- | 수필 | 감자 · 추성수 _ 88 바보꽃 · 박무근 _ 90
두껍아, 어디 가니? · 전경홍 _ 93 권정생 선생을 생각하며 · 최유근 _ 95
의생에게 보내 온 선물 · 이종규 _ 97 어느 가을날 · 김대환 _ 103
시골의사의 학교발전기금 · 백두현 _ 105 경북 · 전북의사회 친선행사에 다녀와서 · 성후식 _ 107
남한산성 그 후 — 김상현 따라가기 · 김종규 _ 110
작은 음악회 · 류성훈 _ 114 오르마의 별밤 · 신명준 _ 116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 사공정규 _ 119
9할 불변의 법칙 · 전우진 _ 122 정상결과와 만남 · 김민섭 _ 124
Carpe diem의 미학 · 정연재 _ 128
- | 여행기 | 밤하늘 별들이 쏟아지는 히말라야! · 안길룡 _ 132
우리도 이제 해외 원정 산행 한번 가자 · 전민 _ 134
희방사와 부석사를 다녀와서 · 김장희 _ 138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 이경수 _ 142
- | 산행기 | 설악산 산행기 · 서보균 _ 147
- | 쉽티 | 미술품 투자는 행복한 마라톤이다 · 손이주 _ 149

회무 소식(2007년도 경북의사회 이모저모)

- 임원 명단 _ 152 대의원회 의장단 _ 153 시군의사회 회장 명단 _ 154 각종 위원회 _ 155
- 회무 소식 _ 158 성명서 _ 186 회원 동정란 _ 188

편집을 마치고 _ 190



사진으로 본 2007년 경북의사회

제56차 정기대의원 총회 · 의료법 개악저지 쟁기대회

3. 31 18:00 제이스호텔



의사윤리 선서를 하고 있는 대의원



정기대의원 총회 광경



1	2	3
4	5	6
7	8	

1. 이석균 본회 의장
2. 이원기 본회 회장
3. 박효길 의협 전 부협회장
4. 김용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5. 최유근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6. 정능수 감사
7. 최종두 고문
8. 한형원 기획이사



1. 본회 집행부
2. 이원기 회장 인사
3. 변영우 전 회장 공로패 전달
4. 의협회장 표창
5. 모범의원 표창
6. 의료법 개악저지 쟁기대회



회원 · 가족 동반대회

5. 20(일) 서대산



등반대회 단체 사진



◀ 가파른 서대산을 오르며

▼ 본회 변영우 고문 부부



1. 전국에서 모인 의료계 인사
3. 이원기 회장 인사 모습
4. 대한의사산악회 총회 모습
5. 본회 회원 기념 촬영



서인영 고문 2009년 경북의사회

제29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 춘계 종합학술대회

5. 26(토)~27(일) 경주 코오롱호텔



내빈 및 초청강사들 ▲

▼ 학술대회 모습



- 1. 2. 학술대회 접수
- 3. 4. 제약회사 부스 관람
- 5. 학술대회장 광경



사건번호 2009년 경북 의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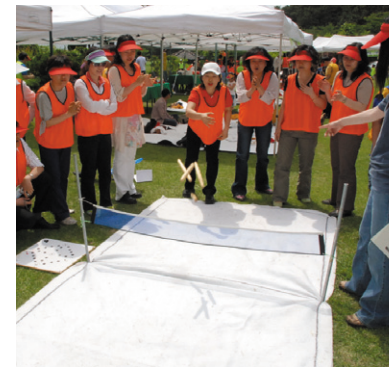
제29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 경북의학제

5. 27(일) 경주 코오롱호텔



1. 이원기 회장의 개회 선언
2. 선수 선서
3. 5. 개회식 광경
4. 비둑대회



사건은 2009년 경북 의사회



▲ 서부지구의 응원 모습



북부지구의 응원 모습 ▶



◀ 동부지구의 응원 모습



북부지구의 응원 모습 ▼

▼ 폐회식 광경



제29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 회원 친선의 밤

5. 26(토) 경주 코오롱호텔



1. 색소폰 연주/신명준 회원(포항)
2. 입승근 회원 자녀(경주)
3. 색소폰 연주/최현욱 회원(안동)
4. 심사위원단(최을임, 김종국, 유동명)



5. 포항시의사회 중창단
6. 양사규 회원(영천)
- 7.8. 박정돈 회원의 가족 연주회



사건으로 2009년 경북 의사회



2007 회원 및 가족 친선의
2007년 5월 26(토) 19:00 경주코오롱호텔

1. 안동시의사회 중창단 찬조 출연
2. 대상을 수상한 포항시의사회 중창단
3. 수상자와 함께 (좌)박정돈 가족, 우/포항시의사회 중창단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10. 14(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테니스장



이원기 회장 개회사 모습

▼ 우승/김선연, 김태진 회원

준우승/김지홍, 이태우 회원 ▼



사건으로 남 2009년 경북의사회

제22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10. 27~28 선운산관광호텔



1. 전북의사회 도병룡 부회장
2. 경북의사회 이원기 회장
3. 경북·전북의사회 친선 행사장 광경
4. 열창하는 본회 신은식 고문의 모습



5. 6.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함께
7. 이원기 회장과 도병룡 부회장 선을 교환 모습
8. 행사 이튿날 고창 장어식당에서
9. 고창 유적지 답사를 하고



사건으로 남 2009년 경북의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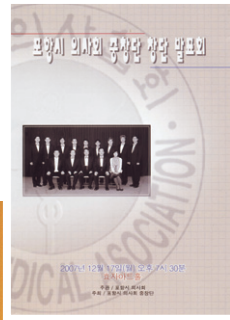
대구·경북의사회와 함께하는 무료개안 수술

11. 11(일) TBC 특집방송 출연



포항시의사회 중창단 창단 발표회

12. 17(월) 오후 7시 30분 효자아트홀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

2008. 1. 10(목) 오후 7시 30분 안동시민회관 대공연장





무제



대왕암 일출



윤대권 (윤소아청소년과의원, 안동)

제목은 따로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의 처지같다고나 할까요. 힘든 우리 의사들의 모습같다고나 할까요. 지난 5월 어느 날 시골길을 달리다 눈에 들어온 광경을 그냥 담아 봤습니다.



박종각 (박종각비뇨기과의원, 경산)

2007년 10월경 감포 문무대왕릉 일출 찍으러 출사갔다. 흔히 보기 힘든 물안개, 갈매기, 파도, 일출 등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진 귀한 찬스를 잡은 행운...

내 인생의 멘토

세상에 사람만큼 영향력이 큰 존재가 또 있을까? 자본도 기술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생텍쥐베리는 인간이란 결국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극받고 도전하여 창조해내는 존재라고 하였다. 하지만 창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배움의 연속에서 맺어지는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멘토가 필요하다. 마른 눈에 물을 대면 새싹이 돋듯, 멘토는 상대의 잠재력을 내다 볼 줄 알며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인생의 멘토는 캄캄한 밤바다의 항로를 가리켜주는 등대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멘토는 거울이다. 멘토는 부모, 스승, 선배, 동료 등 다양하다. 멘토에게 자신을 비춰 보고 배운다. 내 인생의 멘토는 과연 누구일까? 언제 어디서나 대화하고 반성하면서 더 많은 행복을 이뤄나가는 길이 '멘토' 안에 담겨 있다.

— 편집자 주

내 인생의 멘토

신은식 | 신정형외과의원(포항)

학생들에게 장래의사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강조하시면서 항상 몸가짐이 청결하고 단정하며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의사의 품위를 가르쳐 주신 참스승

내가 정창수 교수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1959년 의과대학 본과 2학년 3월초였습니다. 당시 병리학 주임교수이셨던 정교수님은 미국 듀크 의과대학에서 교환교수로 계시다가 전년도에 귀국하셔서 미국식 병리 강의를 도입하면서 개인발표를 기준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도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장래 의사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강조하시면서 항상 몸가짐이 청결하고 단정하며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병리 실습 발표시간이 오면 깨끗한 가운데서 신발과 두발, 깨끗한 와이셔츠에다 넥타이를 맨 정장차림이 아니면 아무리 발표력이 좋더라도 F학점을 주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병리 시간이 되면 신발부터 머리 끝까지 깨끗한 차림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정말 정교수님이 의사의 품위를 올바르게 가르쳐신 참스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진료실에서는 항상 넥타이를 매고 가운데 입을 습관이 되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공식적인 모임에는 정장차림으로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우리 회원들의 옷차림을 보면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나 심지어 의사회 명부 작성에도 자유복이나 등산복 차림의 사진을 제시하는 회원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외적인 행사나 명부 작성에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한점 부끄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의 멘토

이원기 | 이원기외과의원(포항)

젊으신 시절 어쩌다 근무 후 친구들과 어울려 만취를 하신 후 아무리 늦은 시각에 귀가하시더라도 사랑방 댕돌에 꿰어앉아 “아버지, 저 이제 돌아왔습니다.”라고 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자라났다.

내 인생의 멘토, 선고(先考)

옛 大伽倻國에 속한 나의 출생지는, 孤雲 崔선생님과 四溟大師가 사시던 신라의 고찰 海印寺가 있는 가야산의 동남방에 위치한 고려 말 한 충신이 죽음으로 항거한 彌崇山城 아래에 위치한 陝川郡 冶爐面 河濱이라는 첩첩 산골이다.

조선 조 세조의 왕위찬탈에 항거하여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청맹과니’로 충의를 지키신 생육신의 수위 碧珍人 孟亨 專亨가 나의 16대 조이며, 仁洞에서 병자호란과 정유재란을 피해 가야산 기슭으로 가솔을 이끌고 이거하신 煥亨 奎亨가 입향 선조이시다.

만 6세 때 부모님을 따라 도일하신 선고께서는, 일본에서 소학교와 중학교, 경도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신 후 귀국, 경북도청 토목과에 재직하시던 만 18세되시던 해 겨울, 고향에서 약 30리 떨어진 고령읍 묘산골(대가야 고분 아래 동네)의 딸 여덟 중 4번째이신 고령 박씨 규수를 아내로 맞이하신 이후 짧은 신혼살림을 이곳 포항 덕수동에 사셨다.

당시 일본의 제도는 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용의 대상이 되어 2차 대전에 남방으로 끌려가시어 이름 모를 타국에서 백골이 되는 시절인지라, 현풍 대가면 부면장으로 계시던 큰 동서의 ‘징용을 피하자’는 적극적인 권유로 도청에서 사직한 후 대가면 사무소에 채용이 되셨다가 해방이 되자 고향의 면사무소로 옮겼다고 한다.

해방이후 좌,우익의 대혼란 시기에 강원도에 홀로 가서서 토목기사로 근무를 하셨으나 전란으로 겨우 몸만 빼시어 돌아오신 적도 있었으며, 곧 이어 민족상쟁의 6.25전쟁을 겪었다.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그 시대를 사신 분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아서 안정된 삶은 체쳐 두고라도 사람의 목숨 부지가 어려운 극심한 ‘케이오스’의 시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고께서는 평소 저에게 ‘사람의 운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될 수 없음’을 경계하시며 ‘평소 원숙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다.

1950년대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시절, 시골에 태어난 아들에게 『새뱃』이라는 어린이 잡지와 『소공녀』, 『소공자』 등 여러 가지의 책을 사다 주셨는데, 추운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호롱불 밑에서 읽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강소천, 김소월, 방정환 선생님 등 여러 어른들의 주옥같은 글을 통하여 몸의 성장과 함께 정신도 커갈 수 있었다.

들에서 일을 한 후 잠간 쉬는 시간에 논두렁에 드러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읽으신 위인전과 세계명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기억이 난다.

5남매가 자라나자 당신의 전공이신 건축업에 종사하시며 군내 수많은 학교건물을 지으시다가 만 50세 되시던 해 할아버지의 소상을 지내시던 힘든 시절 득병을 하시어 사업을 그만 두고 약 26년을 저와 함께 사셨다.

온후한 성품으로 한번이라도 남과 다투는 일이 없으신 선고께서는, ‘스테파노’라는 세례명을 받아 천주교 신자로 사시다가 당신께서 신혼을 지나시던 포항에서 1997년 12월 31일 밤, 어머니님과 우리 5남매의 臨終經을 들으시며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고교시절 선친과 함께



내 인생의 멘토

이석균 | 청십자의원(경산)

선생님께서도 만남의 기쁨으로 저에게 글을 지어 액자를 주셨으며 학생 및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무실을 배움의 모임터라고 명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준 담임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1959년) 때 담임선생님을 지금도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준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중등학교 임용을 기다리던 중 초등 교사 부족으로 2년간 경산시 압량면의 압량초등학교에 임용되었으며 그 해 저의 담임선생님을 맡았습니다. 제가 4학년이 되던 해 농촌에서 학업을 하는 것이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대구 삼덕초등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선생님택에 기거를 시키면서 학업을 도와 주셨습니다.

제가 계성중학교에 입학하고 선생님께서는 군복무를 마치고 경상중학교로 부임을 한 후 오랫동안 부모님과 교유가 있었으나 저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제가 개업을 하고 철이 들었는지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교육청에 연락을 하니 선생님에 대한 연락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경상중학교에 연락하여 다음 전입학교로 연락(한 학교에 하루 이상 소요), 이렇게 하다 일주일만에 마침 흥해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지금 송도여자중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재직중이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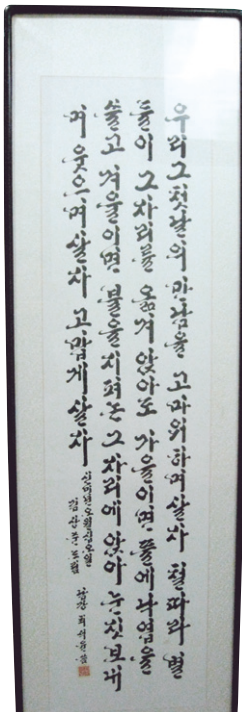
오랜만에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교육청에 전화로 선생님을 찾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건의를 한 결과 다음 해 전국적으로 스승 찾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1998년 선생님께서는 가은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을

하셨습니다. 이후 16년 동안 매년 스승의 날에 찾아 뵙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만남의 기쁨으로 저에게 글을 지어 액자를 주셨으며 학생 및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무실을 '배움의 모임터' 라고 명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만일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만일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고 농촌에서 학업을 하였으면 지금의 위치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부모님과 같은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압량초등학교에서는 최고라 생각했는데 삼덕초등학교로 전학을 하니 중하 밖에 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만남의 기쁨으로 주신 액자



로타리회장 취임시에 참석하신 선생님 내외분

내 인생의 멘토

정만진 | 울릉군보건의료원(울릉)

“그때 내가 자네에게 ‘님’자를 붙이며 분위기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자네는 야생마 같은 수색대 장교들에게 뺨을 맞고 조인트 까졌을 거야, 중위 주체에 건방지다고. 군의관이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네.”라고 하는 것이었다.

‘님’ 자 붙여주던 대대장님

30년 여 년 전 나는 중위 계급장을 달고 최전방 수색대대 군의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육군이 4각 편제로 개편되면서 연대에 하나씩 있던 수색중대를 한데 모아 수색대대를 창설하였고, 내가 사단 수색대대의 초대 군의관으로 차출되었다. 수색대대는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부대로서 ‘민정경찰(MP)’이라는 표식을 달고, 당시에 하루 생명수당 90원을 받았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였다.

수색중대에서 새로 수색대대로 합쳐진 장교들은 용맹하고 거칠었으며, 군의관들과 같은 영내에서 생활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군의관에 대한 습성이나 예우(?)에 대하여 별로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았다. 의무소대장이라는 직책만 생각하고 군의관을 마치 보병 소대장처럼 대하며 언제든지 주먹이 올라올 것 같은 약간은 살벌한 분위기였다. 그들의 눈에는 군의관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오직 중위 계급장만 보였기 때문이었으리라.

창설 초기라서 약간은 어수선하고 와일드한 분위기가 감돌던 시기였다. 대대장이 주체하는 참모회의에는 소령과 대위 계급장을 단 7~8명의 장교들이 참석하고 중위 계급은 나 혼자였다. 그런데 대대장이 “부대대장, 중대장, 인사참모, 작전참모 등”을 부를 때는 ‘님’자를 붙이지 않고 근엄하게 지시를 하다가 내가 보고할 순서가 되면 친근한 목소리로 “군의관님 말씀하세요.”라며 꼭꼭 ‘님’자를 붙이고 존대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교 식당에 가서도 중위인 나를 자기 옆에 앉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였다.

대대장이 군의관을 극진히(?) 대접하니 계급만 보고 나를 대하던 다

른 장교들도 군의관을 대하는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배알이 좀 뒤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대장이 그렇게 나를 대접해 주니 나도 농땡이를 칠 수가 없어 열심히 근무를 하였고, 다른 장교들과도 유대관계가 좋아졌다. 대대장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계급과 직책을 떠나 상당히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대대장과 함께 차를 타고 최전방 GP 순찰을 가면서 대대장에게 “어찌하여 저에게만 ‘님’자를 붙이십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때 내가 자네에게 ‘님’자를 붙이며 분위기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자네는 야생마 같은 수색대 장교들에게 뺨을 맞고 조인트 까졌을 거야, 중위 주체에 건방지다고. 군의관이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지,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여 군의관의 위상을 살려주고, 장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훌륭하게 부대를 지휘하셨던 이○식 대대장, 그는 최전방 야전군의 지휘관이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육사 출신도 아니면서 대령으로 진급하여 대구 2군 사령부에 근무하였는데, 어느 날 개원하고 있던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대대장과 군의관이 아닌 수색대대 전우로서 옛 이야기를 하며 회포를 푼 적이 있다.

내가 근무하는 곳에 80명 가까운 직원이 있다. 그 중에 초임이지만 중요 직책에 있는 직원이 있었는데, 일부 직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님’자 붙여주던 나의 멘토, 그 대대장님의 교훈을 되새기며 그 직원에게 꼭꼭 ‘님’자를 붙여주고 공개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나의 이런 존대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나의 지시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무반응하여 오히려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었다. ‘대접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대접하라.’는 속물 명언이 정당이란 말인가? 아니면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해버린 것인가?

거친 광야에서 ‘님’자 붙여주며 나를 구해주신 대대장님, 그는 오래 기억되는 내 삶의 멘토 중의 한 사람이다.

최전방 GP에서 찍은 사진. 멀리 뒤로 보이는 산은 북한 땅이다. 좌측 두 번째가 필자



내 인생의 멘토

장기호 | 사랑애의원(경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송창화 박사님! 박승국 원장님! 박동술 원장님! 이정범 교수님! 내내 건강하시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들

그 분들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건 그냥 빛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석이 진정으로 아름답다는 건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견디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아내는 헤일 수 없이 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풍겨 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만은 참된 아름다움을 그냥 거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게 합니다. 꽃과 같은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허망한 꿈임을 드러내지만 사람이 아름다운 건 빛나는 보석처럼 명성 보다도 오래 여운이 남습니다. 그 분들은 인고의 세월이 만들어낸 긴 인내의 시간만큼 속으로 성숙된 그윽한 향기를 지닌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과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마음 속에는 특별함이 아닌 자연의 순수함을 닮은 맑은 향기를 지녔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색되지 않는 고유의 빛과 처음과 같은 향기를 잃지 않는 의연함이 있음은 그 분들의 강직함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변화 무쌍한 삶의 한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살아 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흔들림 없는 모습은 마음 속 오랜 여운을 갖게 합니다.

그 분들의 아름다움처럼 투명하고도 우직한 향기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닮고 싶습니다. 신뢰를 쌓는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임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을만한 사람

이 누구인가에 달렸음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뿐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론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아무리 얇게 베어난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자들이 진정한 영웅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정한 우정은 끊임없이 두터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해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이 한가지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앞과 뒤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앞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가슴 속에 넘치게 담고 있으면서도 이를 나타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어느 한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의 만남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송창화 박사님! 박승국 원장님! 박동술 원장님! 이정범 교수님! 내내 건강하시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희 아들(우진), 딸(수진) 결혼 주례를 모두 해주신 박승국원장님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보석처럼 아름다움은 저희 자식들에게도 귀중한 보물로서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축구회 회원들과



내 인생의 멘토

권세홍 | 안동병원(안동)

나를 시의 세계로 인도한 사람은 정작 내가 철이 들고는 대면하지도 못했던, 아버님의 서가에서 시집으로 만난 청마 유치환 선생이다.

내 삶의 소중한 멘토들

● 1

50여 년 내 삶의 근간을 이루어 온 것들을 열거해 보면 신앙, 의업, 문학 등 몇 가지가 될 것이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드러낼 만큼 잘난 것도 없다. 그러나 잘났든 못났든 그것들은 이제 나 자신과 동화된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질료이자 정체성임을 부인할 수 없는 터이니, 그 부분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인물들이 없을 수는 없으리라. 그 분들이야말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멘토라면 멘토일 것이다.

2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직장 때문에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시던 아버님과 떨어져 어릴 땐 주로 고향의 조모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아버님과 아래로 고모님 두 분을 두시고는 조부님은 일찍 세상을 뜨셨다. 조모님은 회재 선생 아랫대로서 양동마을에서 익힌 유교적 교양과 규범에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뜨겁고도 순수한 신앙이 결합된 정신을 소유하셨던 분으로 기억된다. 얼음을 깨 길어올린 찬 우물물로 세안을 하시고는 성경책 위에 두 손을 모으시고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시던 그 어른의 삶의 자세는 어린 가슴 속에 제법 뚜렷한 앞날의 지표로 각인되었던 것 같다. 비록 육신은 내 고향 선산(先山)의 흙으로 돌아가셨으나 나는 기도의 시공(時空)에서 그 분을 뵈는 행복을 자주 누린다.

3

의대로의 진학은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전문과목인 영상의학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선배의 조언과 권유가 있

었다. 그 권유로 나는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으며, 전문의 자격을 따고 국방의 의무를 마치자마자 개원을 하여 짧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그 삶이 무료해져갈 무렵, 또 한번 그로부터 그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이직할 것을 권유받고 과감하게 20년 개원을 접게 되었으니, 그의 멘토링으로 의사로서의 첫 단추를 꿴고, 또 의사로서의 아마도 마지막 삶을 그와 함께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길고도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모교의 교수직을 뒤로 하고 경북 북부지역에 인터벤션 영상의학의 씨를 뿌려 이젠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내 의사 인생의 선배이자 멘토, 그는 다름 아닌 김용주 선생님이다.

4

서재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을 알 수 있다. 오래 전 단독주택에 살 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의 서가 제일 상단에는 누렇게 변색한 법학 잡지인 『고시계』와 법학 관련 서적들이 잔뜩 꽂혀 있었다. 내주장이 강한 어머님조차도 이사할 때마다 불평을 늘어 놓으시면서 그 고서들에 대해서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하셨다. 그 갈피마다 이루지 못한 당신의 꿈이 켜켜로 묻어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아버님의 바람에 가장 근접했던 내 바로 밑의 아우마저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자, 언제부터인가 그 법학 고서들은 하나 둘씩 고물상의 손으로 넘어 가 아버님의 서가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런데 그 서가의 바로 아랫단에는 청마(靑馬)의 시집들과 수필집들이 꽂혀 있었다. 교직생활 중 청마 선생과 맺은 오랜 인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버님은 평소에도 어린 자식들 앞에서 자주 선생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내셨던 기억이 난다.

사춘기에 접어들자 그 책들은 고스란히 나의 책꽂이로 옮겨 꽂히게 되었고, 거기서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나만의 세계를 꿈꾸었던 것 같다. 의과대학에 진학해서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한 채 시우(詩友)들과 어울려 다니던 통에 한 동안 의학 공부와 신앙의 세계와는 불화의 시간을 보냈다. 수련 기간 동안 시를 외면하고 살았으나 조강지처처럼 시를 버리지 못할 깊숙한 나의 내면에 뿌릴 내리고 있었으니, 그 후 고 신동집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시단(詩壇)의 말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이 동네에서 이방인처럼 서성거리고 있다.



▲ 신혼여행시 서귀포 허니문하우스에서(1981)

그리고 보면 나를 시의 세계로 인도한 사람은 정작 내가 철이 들고는 대면하지도 못했던, 아버님의 서가에서 시집으로 만난 청마 유치환 선생이다.

5

대부분의 죄악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어느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성경에는 사악한 생각조차 죄라고 규정해 두었는데,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나? 그러면서도 거리낌이 없이 스스로는 의인인양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면에서 나에게서 지난 25년간 지근에서 피드백(feedback)해주는 멘토가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한다. 그렇다. 아내는 가장 소중한 '내 삶의 멘토'이다. 남편들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큰소리 치고 때로는 남편을 공박하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또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우리 집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내가 아내를 소중한 멘토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다소간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몽상적인데 반해 아내는 천성적으로 자제력과 조심성을 타고 났으며, 게다가 삶의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통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주 삶과 불화하는 나에게 때로는 골프장의 O.B 말뚝과 같이 단호하게, 때로는 즐거운 동반자처럼 오늘도 아내는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 25년 후 다시 그 장소를 찾아서



내 인생의 멘토

김규태 | 김규태신경정신과의원(문경)

자신의 나약함과 허점을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이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쉽게 다가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나의 첫 슈퍼바이저이신 정신의학의 스승

전공의 시절 첫 Supervision을 받던 시간이었다. 조두영 선생님은 잔뜩 긴장해 있는 나에게 대뜸 당신 이야기를 먼저 꺼내 놓으셨다. 젊을 때 애인 이야기며 환자 치료를 하면서 실수하신 것이든지 요즘의 고민까지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한 시간 내내 자연스럽게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당시 정신과에 갓 입문한 햇병아리였던 나에게 선생님은 거의 신이나 신선으로 각인된 존재였다. 그런 선생님이 권위를 버리고 햇병아리 제자에게 이렇게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도 어느새 편안해짐을 느꼈다. 자신의 나약함과 허점을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이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쉽게 다가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고 싶어했던 게 아닐까?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 약간은 계산된 것일 수 있으나 가식은 아니라고 믿는다. 물론 나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모습이라 철석같이 믿으면서…….

20년도 더 지난 지금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 스스로를 내보이는데 인색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아무리 배우고 느껴도 실천은 어렵고, 더구나 완전히 체득하여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곤 한다.

내 인생의 멘토

김광만 | 지곡그린의원(포항)

누구보다도 지금의 나의 생활과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과장님, 강진무 전 동산의료원 소아과장님과의 만남이었다.

excuse가 없는 과장님

● 1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700으로 군에 입대하여 그 유명한 영천의 OO바람과 맞싸우며 무사히 군사훈련을 마치고 바로 공중보건의로 배치되어 경북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울릉도 다음의 오지인 의성군 신평면에서 3년 즐겁게 보내고(이 3년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웠던 순간 중의 하나다)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를 선택할 때가 되었다(헉, 헉, 숨차다). 처음엔 산부인과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인턴을 돌 동안 너무 고생했고 소위 일턴보다도 더 고생하는 레지던트선생님들을 보면서 서서히 그 꿈을 접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내 손가락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다(장갑 사이즈가 22이다). 레지던트 선생님께 산모의 cervix가 얼마나 열렸는지 보고해야 하는데 도저히 손가락 끝이 cervix에 닿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산모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세상에 태어난 아가들이 점점 귀여워지기 시작할 무렵, 의과대학 다닐 때 같이 총대단(대표)을 하던 동기가 김즈 플랜으로 소아과 3년차였는데 연락이 온 것이다. 소아과 할 생각이 없느냐고. 여기서 내 삶의 또 한번의 전환점이 되는 분을 만나게 되게 되었다.

2

나는 대학에 진학할 때 처음에는 공대에 가서 지질학이나 천문학을 전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때 우리 집 사정으로는 나를 도저히 서울에 유학 보낼 여유가 없었다. 그 당시 우리 집안에선 사촌형님이 산부인과로 개원해 있었고, 이모부도 정신과의를 하고 계셨는데 그 분들께

서 그럼 의과대학에 가라고 하셨다. 요즘은 제일 성적 좋은 학생들이 무조건 의·치·한에 진학하지만(문제가 참 많다) 그 때만 해도 이과에서는 공대와 의대로 적성에 따라 뚜렷이 달라졌다. 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대에서 의대쪽으로 진로를 바꿈에 따라 내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의과대학에 들어와서도 처음엔 잘 적응이 안 되었다. 나는 뭔가 추리하고 파고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의과대학 공부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문과 공부였다. 무조건 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적성이 잘 안 맞던 나는 대학에 다니면서 다른 여러 가지에도 몰두해보았다. 클럽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들과 밤새워 잔을 기울이며 열띤 토론도 해봤고, 본래 가톨릭 집안이었는데 본과 때 없는 시간 쪼개어 교리반에 다니면서 영세를 받고 종교에도 잠시 심취하기도 했다. 또 어릴적 친구들과 시간날 때마다 어울리면서 다른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지금의 나의 생활과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과장님, 강진무 전 동산의료원 소아과장님과의 만남이었다.

3

과장님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은 소아과 레지던트하겠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본과 때 소아과 감염 파트 강의 오셨을 때 그 악명(?) 높으신 분을 처음 뵈었다. 하지만 그때는 강의실에서였고 개인적으로 찾아뵈는 것은 소아과 학점을 받으러 갔을 때였다. 총대를 맡고 있던 나는 시험을 치고 나면 점수를 받으러 다녀야 했다. 그 당시만 해도 총대가 어떻게 학점 구걸(?)을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진급에서 탈락하는 동기의 수가 몇 명은 줄어들 때였다. 재시를 달라고 농성도 벌여야 했고, 베이스도 총대 활약에 따라 몇 점씩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업무상(?) 일로 몇 번 찾아뵈다가 몇 년 후 소아과의 길로 들어서면서 영원한 스승님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자란 작자가 대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는 포항에 산다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최근에 못 찾아 뵈 지가 몇 해는 되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이번엔 꼭 찾아 뵈야지 하다가도 아버님과 형님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명절에는 우리 가족이 역귀성해서 연휴 마지막 즈음 대구에 거의 밤늦게 도착하여 처가에 들렀다가 바로 포항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찾아뵈 틈을 잘 낼 수가 없었다. 다음에는 꼭 찾아 뵈야지 또다시 다짐만 하다 몇 년이 흘렀다.

과장님은 excuse가 절대로 없으셨다. 잘못을 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셨다. 핑계란 있을 수가 없었다. 우리 연차는 5명 들어왔다가 1명이 입국식도 하기 전에 도망가서(그 친구 지금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소아과 안 한 것은 선견지명이 있었나보다) 4명이 하루는 ER call, 하루 off, 다음날 ward call, 그 다음날 off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번씩 당직을 쫘다. 그 때만 하더라도 병실 입원환자가 백이삼십 명, 거기에다가 신생아실 call까지 받고. 응급실 당직 때는 숫제 응급실에 상주해야 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일, 즉 주치의로서 내 환자 돌보고 차트 정리하는 것 등은 당직 때는 도저히 할 시간이 안 났다. call 때 밀린 일을 off 때 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1년차 일년은 거의 집에 못 갔다. 아니 안 갔다. 왜냐면 당직 때 사건들이 많아 내 일을 못한 것도 과장님께서는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관학교에서도 현재는 없어진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구호가 그 당시에 우리 소아과에는 있었다. 불가능한 일은 없었다. 한번은 병실 당직 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아

중 3명이 안타깝게도 잇달아 하늘나라로 갔다. 한 bed에서 CPR하고 있는데 옆 bed에서 또 cardiac arrest가 오고. 이렇게 3명을 당직의로서 expire 선언하고 차트 정리 다하고 나니까 창이 환하게 밝아왔다. 물론 다른 일은 손도 못 댔다. 아침 회진 때 사망 보고 때문에 깨지고, 다른 일 못해 깨지고, 진짜로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듯 레지던트 3년간 매일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래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몇 번이나 다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도 닳아간다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나오니 어느 듯 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해진 나를 발견

할 수가 있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excuse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살다보니 군기가 다 빠졌다. 보드 따고 나올 때만 해도 세찬 바람이 불어도 이파리만 흔들리는 대나무 같았지만 지금은 산들바람에도 온 몸으로 같이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된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문득문득 싫지만 않았던 그 때가 그리워지고 과장님도 보고 싶다.



레지던트 2년차 때 춘계학술대회가 무주티롤호텔에서 열렸는데 과장님과 다른 교수님들을 모시고 다녀왔다. 그 당시 내가 처프레지던트였는데 처프는 거의 하루 종일 과장님 곁에서 과장님 오더를 들어야 했다. 이 사진도 아마 하루일과를 마치고 산책길에 과장님을 수행하는 사진인 것 같다. 과장님 좌측에는 동산의료원 기획정보처장을 역임하신 권태찬 교수님이시다.



할아버지 몰래 놀러갔다가 혼이 난 기억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일을 한다고 해서 힘들게 한 것은 아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큰 도움이 되었을까? 하지만 당신이 의도하셨든지 또는 아니하셨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로인하여 자연적으로 맘의 가치를 알게 된 것 같다.

맘과 사랑을 가르쳐주신 조부모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개중에는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준 것도 있을 것이다. 주위 환경이 인간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맹모가 좀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3번 이사를 하였듯이 요즘 부모들도 좀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강남이다, 수성구다 하여 말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성적만 따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 같다.

멘토라는 주제로 글을 제출하라는 연락에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굴까' 라고 수일간을 생각을 하였다.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키워 주신 부모님의 영향도 컸겠지만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분이 조부모님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내는 자기가 멘토라고 우기지만 다 만들어진 떡에 고물 조금 묻힌 것 가지고 멘토가 될 수 있을까?

해맞이공원과 상생의 손이 있는 호미꽃이 내 고향이다. 초등학교 5학년 7월 여름 밤 바닷가에서 과자와 음료수 사놓고 조출한 파티를 한 후 친구들과 작별을 고하고 대구로 나홀로 전학을 하였다. 아직도 그날의 푸르디 푸른 밤하늘과 은하수가 눈에 선한 것 같다. 이모님댁에서 1년 정도 하숙을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자취를 하였다. 스스로 밥과 빨래를 해결하면서 살았으나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없다. 시험기간 때 빨래가 밀려 시험이 끝나면 남들은 영화 보러 갈 때 집에서 하루 종일 빨래하던 기억, 밥할 시간이 없어 라면으로 며칠 때우던 기억, 연탄불 꺼지면 숯으로 어렵게 불을 피웠던 기억, 중3 때 0교시 수업 및 야간 자습으로 6시경에 일어나 도시락 2개 싸서 학교 가

▼ 생전의 조부모님 모습



고 10시경에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공부 좀 하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하지만 도시락 반찬은 무엇으로 했는지 밥은 어떻게 했는지 등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후 고등학교부터 대학 마칠 때까지는 동생들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였다.

나름대로 힘들었던 생활이었지만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이 아닐까 싶다. 우리 고향은 어촌이다 보니 대부분의 가정이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였다. 우리 집도 예외일 수는 없었고 전답이 많다 보니 집에 일하는 사람까지 따로 두면서 농사도 짓고 고기잡이도 하셨다. 손자들의 일손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농사철이 되면 손자들도 불러서 일을 거들게 하셨다. 친구들이 공을 차며 놀거나 고기잡이를 하며 노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본 기억이 난다. 가끔씩 할아버지 몰래 놀러갔다가 혼이 난 기억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일을 한다고 해서 힘들게 한 것은 아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큰 도움이 되었을까? 하지만 당신이 의도하셨는지 또는 아니하셨는지 간에 우리들은 그로인하여 자연스럽게 땀의 가치를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무엇 하나 쉽게 버리지 않으시고 늘 아끼고 절약하십시오 근검절약이 몸에 배이게 하셨다. 전학을 간 후로는 방학 마치고 대구로 올라 올 때마다 따로 불러서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시며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따로 용돈까지 챙겨주시던 훈육과 사랑이 무엇보다도 큰 교육이었던 것 같다. 두 분 다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만 당신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가다듬게 된다.

이렇게 나는 멘토를 가졌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내가 자식들에게 멘토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힘들 때 자기를 돌봐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아 나가는데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른 누군가의 멘토가 되도록 노력한다면 이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다. 아마 멘토가 가장 필요한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원로 초대석]

손장락(안동 손의원)

취재_원세홍·원진휘

만 80세 현역의사.

1966년 개원 이래 42년째 안동시 동문동 446-5번지 인술의 터전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의사면허번호 3077호 손장락 선생님.

이 짧은 기술 속에 선생의 이력과 성품이 어지간히 드러나는 듯도 하다.

그러나 이 대선배를 찾아뵙는다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평소 후배들에게 베풀어주신 자애로운 사랑과 넉넉한 마음 씀씀이 때문이리라.



선생님 고향이 어디시지요?

경주 안강이 고향입니다. 양동마을 아시지요? 조상님들은 원래 양동마을에 사셨는데 고조부 때 경주로 나오셨다고 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른들께서 양동마을에 시제를 지내러 가시곤 했는데 제가 게을러 제 대에 와서는 시제에 한 번밖에 가지 못했네요.

그림 그리고등학교도 경주에서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경주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대구에 있는 경북중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아버님은 일본에 계셨고 경주에서 어머님과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어머님과 대구의 백부님댁에서 살았지요. 당시 경북중학교는 5년제였는데 제가 졸업할 때에는 4년제로 졸업했어요. 당시 경북중학교는 물론 교장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머리 좋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이나 부모 직업이 좀 떨어지는 집 아이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입학 시 집안 사정을 본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닐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당시 서예시간이 있었는데 외래 강사로 죽농 서동균 선생님께 배웠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 개업초기 안동에서 몇 차례 뵈기도 했어요. 하루는 그 분이 안동에 체류 중이라 해서 찾아 뵈고 매화 그림을 한 장 그려 달라하니 대나무를 쳐 주겠다고 하셨지요. 저는 대나무보다 고운 매화가 더 좋다고 해서 매화 그림을 받았는데 8폭 크기의 연폭으로 된 매화 그림이에요. 이런 연폭으로 된 죽농의 매화그림은 안동에서는 나와 권영렬 선생(안동의 서양화가) 정도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계기로 의사가 될 생각을 하셨는지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니고 대구의학전문학교란 이름으로 독립된 학교로 있던 시절입니다. 4년제였지요. 그때도 의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다고 알려져 있던 때라 의학전문학교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려웠어요. 전국에 의전이 몇 되지도 않았어요. 서울의 경의전, 세브란스의전, 대구의전, 광주 의전, 평양의전 정도였지요. 전 처음엔 대구사범

대학에 들어갔어요. 당시 사범대학은 정식 대학으로 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 4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과 2년 동안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놀았는데 백부님께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더러 의전(대구의학전문학교)에 시험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지요. 당시에 의전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제 생각에 사범고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한 chapter가 끝나면 시험을 봤으니까요. 두 번 낙제하면 퇴학되던 시절이라 재시, 삼시를 치르게 해서 70명 입학생을 거의 다 졸업을 시킨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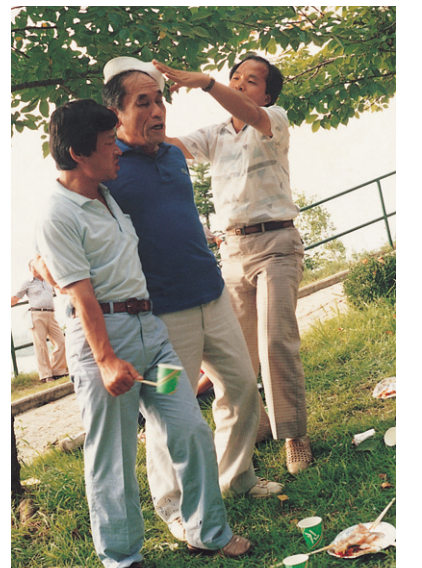
의사 생활 초창기는 어떠셨습니까?

6.25가 터지면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한 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지요. 국군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다들 그렇게 옮겨 다녔어요. 전쟁이 끝나고는 연천에서 근무했습니다(당시에는 복무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군생활을 7년했어요. 제대하고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려고 생각했지요. 친구가 근무하던 부산의 한독병원으로 갈까 생각하고 대구역에 갔는데 부산행 기차가 5분 전에 출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 기차는 언제 있느냐고 물으니 곧 서울행 기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 서울행 기차를 탔지요. 살다보면 사람살이가 운에 의해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5분 차이로 제 행선지가 부산에서 서울로 바뀌었거든요.

서울에서 수도의과대학병원 외과에서 일했어요. 수도의과대학은 후에 우석여자의과대학으로 되었다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됩니다. 우석이란 이름은 수도의과대학 설립자의 아들이 재단이사장

이 되면서 설립자인 부친의 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지요. 수도의과대학은 처음에는 여자의과대학이었지만 6.25 때는 남녀가 반반인 남녀공학이었어요. 남학생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조수로 일하던 사람들인데 검정고시로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의사가 된 사람들도 학위 때문에 다니고 있었지요.

당시 우리나라 외과 수준은 꽤 높았어요. 전쟁으로 인해 미군 병원에 파견된 의사들이 있었는데 상당 수준의 외과 기술을 습득한 상태였어요. 당시에는 외과가 지금처럼 정형외과, 성형외과로 구분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외과에서 뼈 수술을 하기도 했지요. 제가 있을 때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를 배워 오신 분들이 들어오셨지요. 4년 동안 일했는데 밥만 먹여주고 월급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4년 정도 일했는데 전임강사가 되려고 해도 순서가 너무 밀려 있었어요. 전임강사라도 되어야 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던 차에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 안동테니스협회 시절

▶ 새마을 교육 중 입소자들과



에서 외과 의사를 구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월급이 얼마나고 물으니 소장 바로 다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곳이 광산이군요

상동광업소에는 나 말고도 내과 의사와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과 의사는 다섯 시간 이상은 현장을 비울 수가 없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낙반 사고가 생겨요. 낙반 사고가 생기면 가벼운 찰과상에서 중상까지 다양한 외상을 입게 되니까 외과 의사인 내가 갱내로 들어가야 했어요. 이런 일뿐 아니라 직원 가족들 진료까지 해야 했는데 한번은 어린 아이에게 화상 사고가 났다고 해서 구급차를 타고 달려갔는데 뜨거운 그릇에 손가락을 데인 환자였어요. 애기 엄마는 옆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군요. 그 광업소에서 1961년에서 1966년까지 5년 일했지요.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결혼은 좀 늦게 했습니다. 대구 윤영길 선생님 모친의 중매로 만났어요. 윤영길 선생님과 집사람은 할아버지가 형제(6촌)인 관계였어요. 집사람은 당시 안동여고(가정과)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 후에 안동교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안동교대가 안동대학으로 바뀌면서 안동대학에서 가르쳤지요.

사모님께서는 경북 북부의 음식문화의 원류지이신 절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사람이 『수운잡방』이라는 광산 김씨 가문의 요리책을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 계기가 재미있어요. 제게 골동품을 팔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수운잡방』이라는 책을 구했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안동대학교 모 교수에게 보였는데 이 분이 이 책 연대가 맞지 않다고 했나 봐요. 그래 이 사람이 이 책을 제게 들고 왔어요. 집사람이 봤을 때 요리 방법이나 재료로 봤을 때 그 연대가 맞다고 판단해서 제가 그 책을 샀어요. 그리고 그 책을 번역해서 출간하고 집사람이 그 요리를 재현하기도 했지요. 집사람이 음식 전공이라고 제가 집에서 좋은 요리를 잘 얻어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대장장이 집에 부엌칼이 없다.’란 말 아시죠? 그래도 전 미식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식가는 다양한 요리를 맛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잘 가던 집은 있어요. 안동 구시장 어느 곰탕집이 맛있어서 소머리 곰탕은 그 집에서만 먹었어요. 구시장 입구의 어느 횡집도 맛있었어요. 군보건소 맞은 편의 어묵집도 자주 다녔지요. 박무철 선생, 고 권오현 선생, 배성호 선생과 자주 다녔지요. 요즘 어묵은 그 집 맛이 나지 않아요. 그 집이 서울로 이사 갔는데 관악구 서울대학 근처로 옮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번은 서울대학 근처 갈일이 생겨 그 집이 있나 돌아보기도 했는데 서울에서 검서방 찾지요.

병원 건물이 참 아름다운데 언제 지은 것이지요?

이 건물터는 원래 조흥은행 관사 건물이었는데 저희가 불하를 받았어요. 일본식 건물이었지요. 결혼 직후 저는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에 근무하고 있었고 안동여고 교사로 있던 집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1966년 제가 안동으로 오면서 이 집터에서 개원했지요. 이 집이 터가 상당히 좋아요. 처음 세를 들었던 초등학교 교사 부부가 득남을 했고 그 다음에 세를 든 분도 이 집에 와서 득남을 했어요. 저희 부부도 이 집에서 아들을 얻었구요. 이 집에

서 태어난 아들이 넷인데 당시에는 아들 낳는 집이 터가 좋은 집이라고들 했지요. 1988년에 허물고 경북대 교수인 어느 건축가가 설계해서 현재의 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개원 초창기에는 외과를 많이 봤는데 나이가 먹고 나서는 피부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개원 초창기에는 lipoma 수술이나 cyst 수술이 많았어요. 큰 수술은 아무래도 성소병원이나 도립병원 같은 기준에 자리잡은 병원에서 많이 했지요. 현재 보고 있는 피부과와의 인연은 수도의과대학병원 시절부터지요. 제가 수도의과대학병원에 있을 때 가끔 비뇨기과 수술을 지원 나갔어요. 당시에는 피부비뇨기과라 해서 같이 봤거든요. 피부과 선생님 중에 김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이 일본어로 된 책 번역을 부탁해서 해주기도 했어요.

최근 시집을 내셨는데, 글쓰기는 언제부터?

중학교 다닐 때 하이쿠(일본 정형시)를 잘 지은 편이었어요. 당시 국어 선생님께서 시를 잘 짓는다고 칭찬도 받곤 했지요. 사실 그 후로 시를 쓰지는 않았습니니다. 몇 년 전 경북의사회보에 시를 쓴 것이 제 처녀작이지요. 그 시를 계기로 시집을 내게 되었어요. 시집은 200부를 인쇄했는데 지금은 많이 남지 않았어요. 2007년에 『한맥』이란 시 동인지에 시 5편을 내고 한맥 동인지의 추천을 받아 등단까지 하게 되었지요.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는지요?

2남1녀인데 의사는 없습니다. 큰며느리가 의사 이기는 합니다(현재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부원장). 저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공부는 서울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서울로 보냈습니다. 어찌 면 제가 기러기 아빠의 원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유교적 신분 의식 때문에 의사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차라리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괜찮은 편이지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일이 많지요. 당시 생각으로는 밥 먹고 살고 자식들 공부시키면 됐지 그리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직업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동기분들은?

경북대 총장을 했던 김익동 선생이 제 동기입니다. 화가로 활동하는 최지환 선생, 외과를 하는 서희수 선생, 권오영 경북의원이 동기입니다.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의사들 상호간 교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면단위에 개원한 회원까지도 1년에 몇 차례는 찾아가고, 그 회원도 시내 나오면 꼭 저희 집에 들러서 놀다가곤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후배들이 개원을 하면서도 인근 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 과도 교분을 나누면서 발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꼭 권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취미를 가져라. 둘째, 노후의 소일거리를 만들어라. 셋째, 가벼운 운동이라도 운동을 해라. 취미로는 수집을 권하고 싶어요. 수집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쓰게 되지요. 수집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좋아요. 모르는 분야의 수집은 쓸데없이 큰 돈을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

경우는 처음에 난초를 수집하다가, 편지 수집, 우표 수집을 거쳐 지금은 돌을 수집하고 있어요. 수집 분야도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다시 80년의 삶이 주어된다면?

앞으로 8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강가에서 낚시 배 운전이나 하며 살고 싶습니다. 물론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서 말이지요. 너무 바빠 산 것 같아요. 외국 여행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먼 곳은 힘들겠지요. 60 조금 넘어서부터 외국에 자주 나가곤 했는데 외국 여행은 오지 여행이 역시 제 맞입니다. 다행히 집사람이 비교문화학회 회원이어서 같이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모임에 따라 나가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회원들이 학회모임을 하는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런 모임에서는 오지 위주로 여행을 하니깐 좋아요. 사하라나 고비 같은 사막에도 가고 싶구요. 누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없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1. 안동시의사회 आयु회에서 한 곡조
2. 경북의학회 참가 후 경주 어느 주점에서(왼쪽부터 오상염, 최유근 회원)
3. 의약 분업 반대 궐기대회 후 버스에서 한 곡조

팔순잔치 후 가족들과(2007년) ▶



◀ 팔순 잔치(2007년)



경북의학제에서 안동시의사회 회원들과 ▶

원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

70세가 넘어가면서 몸에 고장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먼저 전립선비대증이 오더니 이어서 퇴행성 척추염으로 고생을 좀 했어요. 조금 걸을 만하니 이번엔 무릎 점액낭이 파열되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200미터 정도는 걸을 수 있는데 300미터 정도로 무리를 하면 다리에 쥐가 나고 알이 배겨요.

지금 80이 넘어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경북에서 두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계기가 생긴다면 일을 그만둘 생각입니다.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자식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별 도리 없겠지요. 지금 사는 집(대지 110평, 진료 및 주거공간 2층, 도합 100평)도 내어놓았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친우들과의 즐거운 한 때

집 정원에서



의사회와 관련된 활동은 1981년 안동시 의사회 회장을 맡으셨을 때 회칙을 제정하셨고, 대구·경북의사회 분리 당시 경북도의사회 부회장을 3연임 하셨습니다.

울릉도에서 4년

정만진 | 울릉군보건의료원

성인봉 정상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나리분지 일원 전망



Photo Essay를 시작하며

2004년 5월, 내 인생 행로에 갑자기 울릉도가 나타났다. 15년 전 2박3일 관광으로 한번 밖에 가 본적이 없는 울릉도가 나에게 유혹의 손짓을 하였다, 네가 꿈꾸던 2막의 무대가 준비 되었노라고.

물귀신의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평화롭고 온화한 천사의 부름 같기도 한 외침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하며 우유부단하던 험릿처럼 갈등하기 시작하였다. NATO(no action, think only)의 속성이 강한 의사로서 불확실한 미래, 갑작스런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으나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변화의 길을 택하였다. 설사 울릉도에서의 나의 2막이 불품없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변해보자고.

그리하여 2004년 6월 1일 나는 울릉도인(島人)이 되었다. 고향 산천 가족, 친지 다 버리고 울릉도에 들어온지 4년, 그 동안 나의 2막에는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변화들이 펼쳐졌다. 때로는 보람과 기쁨에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당장 사표를 쓰고 섬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불성설로 지울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노와 참담함 때문에 잠을 설쳤다. 비록 도인생활 4년에 불과하지만 본토에서의 56년 세월보다 더 많은 파노라마가 연출되었다. 참을 '인(忍)' 자 3개를 가슴에 품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어언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이제 6월 30일이면 60세 정년퇴임으로 공무원 생활도, 도인의 생활도 모두 정리하고 훌기분한 마음으로 본토의 가족 곁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울릉도의 여러 기관단체장으로 울릉도에 들어와서 1년 정도 살다가 나간 사람들을 본토에서 다시 만나면 울릉도의 생활이 마치 꿈을 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지난 4년을 돌아보는 나의 심정도 마찬가지이다. 울릉도에서 4년,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울릉도에서의 그 다사다난했던 이야기의 일부를 사진과 더불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2막의 시작

아내와 함께 2,394톤의 쾌속선 sunflower호를 타고 울릉도로 들어 오던 날은 파도도 거의 없는 너무나 화창한 날씨였다. 맑고 푸른 동해바다 신록이 무르익는 평화로운 울릉도, 거기에 태풍이 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4년을 살아보니 신비의 섬 울릉도 섬살이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 강풍으로 격량이 있는 날 배를 타고 들어오면 창자가 뒤틀리고 위산까지 다 토해내는 멀미를 해야 했고, 외국과 다름없는 울릉도의 날씨처럼 우산국 사람들의 사고도 본토와 다른 점이 없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유분방한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 초보 공무원으로 적응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울릉도의 유일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울릉군의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본원에 10개의 진료과와 2개의 보건지소, 그리고 3개의 보건진료소를 가지고 있고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8년이나 걸린 주민 숙원 사업의 하나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04년 11월에 완공 이전하였다. 필자가 이곳에 온 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500여 명의 주민들과 내빈이 참석하여 거창한 이전개원식을 가졌다. 필자는 온 좋게도 2,000여 개의 바위로 축대를 쌓고 앞뒤에 두 개의 인공폭포와 비단잉어가 헤엄치는 연못까지 만들어 멋을 낸 새 건물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 ① 포항 울릉간 정기 여객선 sunflower호
- ② 2004년 6월 1일 원장 취임식
- ③ 2004년 8월 경북의사회원들의 신축중인 의료원 방문
- ④ 울릉군 보건의료원



앞치마가 어울리는 남자

갑자기 울릉도로 들어오게 되니 초보 공무원이자 초보 도인으로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초보 주부가 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비록 아내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와서 반찬이며 세탁물을 정리해 주고 가지만, 아내가 해 주는 밥을 먹고, 아내가 주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편안히 살다가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하니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낮이나 저녁에는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 밥도 해야 하고 세탁기도 돌려야 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하고, 5일에 한번쯤은 집안 청소도 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살아도 하루에 1~2시간은 가사일을 해야 했다. 주부의 역할이 이렇게 어려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숙달이 되어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남자 주부가 다 되었다.

성인봉 정상 등산 23회, 걸어서 섬 일주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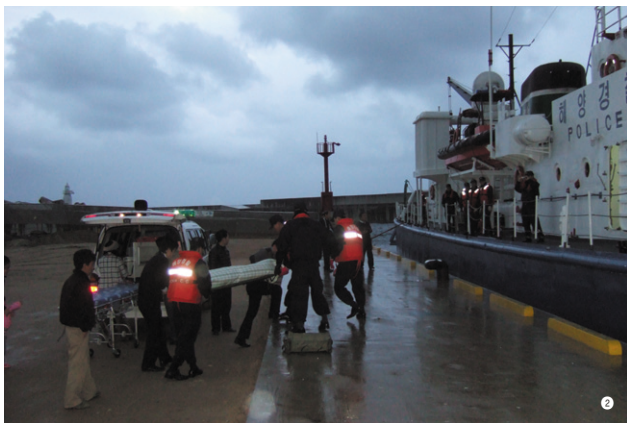
울릉도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울릉도가 한 눈에 들어오는 조그만 섬으로 휴대폰도 터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울릉도는 넓이가 72km²(약 2,200만평)나 되며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로 큰 섬이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지자체지만 1만 명의 주민이 살고 차가 3,500대나 되며 휴대폰도 잘 터지고 인터넷도 본토와 똑 같이 잘 된다. 울릉도의 산들은 성인봉을 중심으로 흘러내리는데, 900m가 넘는 봉우리가 다섯 개나 되며 화산섬이라 경사가 급하다. 성인봉(984m), 말잔등(968m), 미륵산(901m), 형제봉, 송곳봉,

- ① 눈 덮인 성인봉 정상
- ② 유두봉에서 내려다 본 나리분지
- ③ 걸어서 섬 일주(북면 천부해안)

유두봉, 알봉 등 빼어난 모습의 봉우리들이 나리분지를 감싸며 도열하고 있다. 나는 울릉도의 이름 있는 봉우리들은 모두 섭렵하였고, 성인봉 정상만 23번을 올랐다.

매년 6월에 울릉산악회에서 걷어서 섬 일주 행사를 한다. 나는 2004년과 2006년 두 번을 참석하여 40여km를 11시간에 걸었다. 참석자 중에서 필자가 가장 연령이 많았으나, 평소 걷기를 연마한 덕분에 물집 하나 생기지 않고 주파하여 울릉 산악회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차를 타면 쉽게 오르는 4km의 고갯길이 어찌 그리 멀고도 힘 드는지 걸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인명재(人命在) 헬기

울릉도에서는 인명재천(人命在天)이 아니고 인명재(人命在) 헬기이다. 우리 의료원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안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한방과 등 10개의 진료과를 운영하며 어느 정도의 환자는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양경찰과 해군의 헬기를 이용하여 본토로 후송을 한다. 연간 25회 정도 헬기 후송을 하고 있으며, 헬기가 뜰 수 없는 악천후일 경우에는 동해를 지키는 해양경찰의 경비정을 이용하기도 한다. 본토에 있으면 수술을 하여 살 수 있는 환자가 울릉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도 있다. 기상이 나빠서 헬기도 경비정도 뜰 수 없으면 환자는 물론 의료원의 진료진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KBS라디오 건강방송 3년



울릉도에서는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울릉도에 들어온 후로 많은 건강강의를 하였다. KBS 울릉중계소 라디오 방송, 노인대학, 학교, 군부대, 교회 등에서 "활동하며 100세까지"라는 장수 강의는 물론 금연, 청소년 성교육, 절주, 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건강강의를 연간 80여 회 정도 하고 있다. 특히 KBS라디오 건강 방송은 매주 월요일 15분~20분 정도를 하는데, 거의 3년 동안이나 했다. 강의 자료 준비를 하려면 5시간 정도 걸린다. 강의 준비와 방송출연이 힘들기는 하였지만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방송 마이크 앞에 앉아도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



- ① KBS라디오 건강 방송
- ② 주민들을 위한 건강 강의
- ③ 산나물 축제에서 더덕을 캐고
- ④ 눈꽃 축제에서 설상 골프

얇은뱅이 걷게하기

2005년 12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가천의대 길병원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수술을 해 주려고 하니 울릉도의 적당한 환자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다. 군청의 사회복지사 등과 협의하였으나 적당한 후보자가 없었다.

그러던 중 40대 후반의 혼자 사는 남자가 3년 이상 얇은뱅이로 살고 있는데, 인공고관절 치환 수술만 하면 걸을 수 있겠다는 환자가 나타났다. 우선 우리 의료원 정형외과에 데리고 와서 가능성부터 타진한 결과 수술만 하면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료보호 환자로서 빈곤한 생활은 후보자로 충분하였지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가 문제였다. 그래서 가천의대의 담당자를 설득하고 무료승선을



- ① 헬기 후송
- ② 함정으로 후송
- ③ 업어서 승선하였으나
- ④ 길병원 수술한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



추선하고 포항에서 하룻밤 유하게 하는 어려움 끝에 천만 원이 넘게 드는 수술을 무료로 받아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 얇은뱅이 3년에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란!



울릉도는 축제 중

울릉도는 지금 "이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지향하고 갖가지 행사를 열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의료원은 건강부스를 차려 당뇨와 혈압 측정도 해주고 응급환자 발생도 대비한다. 필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축제를 즐기는 편이다.

나리꽃이 만발하는 5월이 오면 긴 나무통에 부지깥이, 삼나물, 미역취와 고추장을 비벼서 100명도 넘게 먹는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오징어가 물려오는 9월이 되면 저동 어판장에서 오징어 축제가 열린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울릉도의 겨울, 1월이 오면 나리분지에서 눈꽃 축제가 열린다.



독도는 우리 땅

“누가 뭐라 해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2006년 8월 26일 영호남의 60여 명 의사들이 독도를 찾아 갔다. 대낮의 강도처럼 우리 땅 독도를 훑쳐가려는 일본에 대해 호통을 쳤다. 전라북도 의사회 회원들은 본토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 그리고 바다 건너 국토의 동쪽 끝, 독도까지 와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다. 독도에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적은 없었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사결기대회 장면은 KBS TV를 통하여 방송까지 타게 되었다.

독도에는 탕건봉, 삼형제 굴바위, 촛대바위, 가제바위, 독립문바위, 한국지도바위 등등 23 개의 특이한 형상의 바위들이 있어 운치를 더하고 있다. 독도에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독도를 지키는 경찰과 등대를 지키는 사람들은 동도의 꼭대기에서 생활하고 있고, 서도에는 유일한 독도 주민 김성도씨 부부만 살고 있다.

독도 주민 김성도씨, 우리나라의 명사다. 그래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단상에 올라가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그는 자기 부부 밖에 살지 않지만 어엿한 울릉도 독도리의 이장이다. 3.1절이나 8.15등에는 그를 인터뷰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시시한 신문이나 방송의 기자들은 가까이 가기 어렵다. 그래도 그 분이 울릉도 유일의 의료기관 책임자인 나를 보면 반가워하며 한 마디한다. “원장님, 독도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이소.”라고. 이 말은 특별한 예우다. 독도에 서는 아무나 잘 수 없으니까.



오늘도 나는 바다가 보이는 내 방의 창문에 기대어 속삭인다.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그리고 마음 속으로 크게 한번 외친다.

“독도는 우리 땅”

- ① 독도 주민 김성도씨와 함께
- ② 독도 동도 정상에서 무료진료 후 공보의 선생들과 함께. 독도 명물 삼살개도 포즈
- ③ 영호남의 의사들이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고 있다.



나의 3막은?

이제 2008년 6월 30일이면 60세 정년으로 퇴임을 하고 울릉도를 떠나게 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울릉도에서 4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였다.

울릉도에서의 나의 2막은 이색적인 경험의 특별한 기간이었다. 각 가지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유익한 건강강의를 위하여 밤새워 power point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도 크나큰 보람이었다. 지면 관개상 여기서 4년의 희비쌍곡선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울릉도 4년의 잊을 수 없는 체험들을 이야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막”의 저자 스테판 엠 폴란(Stephan M. Pollan)은 “나이가 많은 경력이 적든, 우리에게겐 현재의 삶을 접고 2막을 시작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제 “2막”을 지나 “3막”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도 시속 7.5km의 속도로 걸을 수 있고, 수직에 가까운 울릉도의 산을 오를 수 있지만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자리를 잘 잡아준 것만 해도 행운이요 복이다.

과연 울릉도를 떠난 후의 나의 3막은?

오징어 축제에서 울릉도 떼배를 젓고 있다. ▼



나의 3막은 어디로?

의사윤리강령

제 정 1997. 4. 12
전문개정 2006. 4. 22

1.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걱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헌신한다.
2. 의사는 학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상호간에 우애, 존경, 신의로써 대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3. 의사는 최신 전문적 의학지식의 습득에 노력하고, 공중보건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4. 의사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 환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5. 의사는 진단과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과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6. 의사는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건강한 진료문화의 발달에 기여한다.
7.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8. 의사는 인체 및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하여 피험자의 생명, 건강과 인격을 존중하고, 윤리적,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의술 향상 및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대한 의사 협회



변영우
백승인

의협 정관 '전부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금년 4월 제60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정관개정위원들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필자도 지난해 정관개정 소위원회(2007년 1월)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것이 인연이 되어 올해 다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경북의사회장, 의협부회장과 중앙대의원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운영에 관여한 10여 년 동안 정관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다.

지난해 제59차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 그 대안으로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큰 틀에서 정관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의협이 대한민국 의사들의 중앙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모든 회원들이 화합 단결할 수 있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현재의 정관은 61년 전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26회의 개정(1회의 전문개정과 25회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그때 그때 의료계 사정을 맞춰 왔었다. 정관 제정 당시에는 의사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이 대단히 높았다. 그래서 의협은 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단체로서의 체감적 느낌보다 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친목단체(?) 수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의협은 10만의 회원을 거느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직종 중앙회로 성장하였으며, 의사들의 진료환경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맞는 정관개정이 꼭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

정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 대대수가 공감하고 있다. 2000년 의권투쟁 이후 지난해까지 수많은 임시총회(2007년도에는 3회)와 정기총회에서 회장 직선제를 비롯한 상근상임이사의 확대,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등 중요 내용을 포함한 정관개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의협의 변화와 개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정관은

많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의 중첩, 조문 상호간의 상충,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이 생겨났다. 누더기(?)가 다 되어버린 정관을 어찌 의협의 헌법과 같은 정관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협회장 불신임을 비롯하여 협회장과 임원 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관의 미비로 인한 해석을 놓고 회원들간의 열띤 논쟁이 불기도 하였다.

의협은 사단법인으로서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들의 중앙회이다. 그러나 최근 의협은 중앙회로서의 위상이나 역할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고, 의협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정서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 의협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몇 년 전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 인가될 당시, 국회 보건복지부와 상임위원장에서 병협 회장단들이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의협 산하에서 의협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겠다고 의협회장에게 굳게 약속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때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 의결사항인 개약의료법 반대에 대하여 병협 회장은 의협대의원 총회의 결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병협은 자체 상임이사회에서 개정될 의료법이 병원경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찬성을 했고, 또한 통과를 위해 국회 로비활동을 했다. 병협은 의협의 결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당시 협회장의 국회 불법로비사건으로 의사들의 입지가 극히 어려운 시기에 병협 임원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의협의 반대편에 섰다. 병협이 의협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을 공공연히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못하였다. 이제 병협은 스스로 의협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사단법인 단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중앙회로서의 의협이 병협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때이다.

작년에 공단과의 건강보험 수가 계약방식이 전과는 다르게 바뀌었다. 직능별, 종별 형태를 혼합한 '유형별 계약(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방식으로 수가 계약을 하였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도 불만이고 불공정한 계약 구조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의협이 모든 의사들을 대변해서 수가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병협이 병원수가를, 의협은 의원에 대한 것만 하게 된 것이다. 의협과 병협을 갈라놓아 수가계약은 물론 의사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잔꾀에 넘어간 것이다. 의과를 하나로 분류해서 의협이 전체를 대표해서 단일 계약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의협은 빠지고 병협과 함께 개원의협의회를 협상 당사자로 보냈어야 했

변영우

선린의원(경주)
의협대의원회 부의장



다. 이런 상황이 고착된다면 의협은 중양회로서 정체성과 위상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개원의협의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의협의 중요 구성원인 의학회도 병협처럼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 의학회 자체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협과의 관계에도 걱정스러운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큰 광역시도의사회에서도 자체 법인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인은 독자적인 정관에 따라 인사와 재정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사단법인 의협은 의사 자연인으로 구성된 중양회이다. 사단법이하에 다른 사단법인을 두는 것은 민법상에도 맞지 않다.

지난 해 10월 6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00년 역사의 의협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범법행위가 일어나 많은 회원들의 분노를 샀다. 어떤 의도를 가진 무자격 대의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임원 선출 등 중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총회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필자도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대의원자격 검정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행위 또한 정관상의 미비로 인하여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예견되는 일이었다. 대의원회와 대의원을 개혁하지 않고는 의협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회원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을 직접 선출하고 대의원들의 권리, 의무, 징계를 정관에 명시하는 근본적인 대의원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관개정을 큰 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의협이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고 중양회로서의 위상을 다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정관의 '부분개정' 으로는 어렵다. 정관의 구성원을 제외한 편제와 협회의 구성과 조직 등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전부개정' 을 해야 한다. '전부개정' 을 하지 않고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의협의 백년대계를 담을 수도 없다.

사명감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관개정위원님들이 전력투구하며 개정작업을 하고 있지만, 4월 정기 총회에 맞추어 "정관 전부개정안" 을 부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정관 전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도 여러 번 수렴해야하고, 법정관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관련 대의원들의 뜻도 모아야 한다. 또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한데 모여 심도 있는 논의도 해야 한다. 또 다시 줄속으로 부실한 부분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정관개정은 연례행사가 될 것이고, 의협의 개혁과 위상의 재정립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정관의 전부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만 의사의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의 기막힌 약품정책을 고발한다

의약분업 실시 후 약제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무슨 대책이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의약분업 이후에 건강보험 약제비(약품비+조제료)가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2006년에는 8조4,041억원으로 5년 사이 무려 101%가 증가하였고,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6년 29.4%로 증가하였다.

표 1 2001~2006 연간 약제비 현황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약제비(억원)	41,804	48,014	55,831	63,535	72,289	84,041
약제비 비중(%)	23.5	25.2	27.2	28.4	29.2	29.4

(2007년 7월 23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표 2에서 약품비를 보면 2002년 3조3335억원에서 2005년에는 5조803억원, 2006년 상반기에는 2조8737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건강보험 연도별 요양급여비용현황(2002~2006, 상)

(심평원 자료)

요양기관 종 별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	
의료기관	진찰료	5,339,626	5,016,195	5,402,366	5,886,521	3,240,395	
	약품비	3,333,356	3,749,274	4,359,304	5,080,308	2,873,789	
약 국	소계	1,722,944	1,686,092	1,808,359	1,953,023	1,101,666	
	조제료등 행위료	약물관리료	311,276	240,318	247,147	259,332	145,255
		기본조제기술료	166,490	80,846	73,714	75,720	43,179
		복약지도료	108,982	189,948	212,550	224,064	127,095
		조제료	946,957	878,791	939,252	1,022,988	578,851
의약품관리료	189,238	296,188	335,695	370,920	207,286		

(단위:백만원)

백승인

백승인소아청소년과
의원(경주)



약제비가 늘어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국민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서 제약회사와 약사들의 배를 불려줘야 하며, 의료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의사들에게는 무리한 삭감 등 진료권을 제한하게 된다.

의약분업 실시 후 정부는 합법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을 권장하면서 약값을 터무니없이 올려주는 우를 범하였다.

생동성시험을 해서 약효가 대조약의 80%~125%에 해당하면 생동성시험에 합격시켜주고, 약값도 대조약가의 80%까지 인상시켜주니 제약회사는 생동성 검사비 5000만원만 들이면 황금알을 낳는 수지맞는 장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약값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저가약을 고가약으로 둔갑시켜 의료보험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은 두말할 것 없이 정부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사가 오리지날 위주로 고가약을 많이 처방하여 약품비 지출이 많다고 호도하고 있고 그래서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

약제비 지출이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자 정부는 2006년 7월 20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적정화방안의 신규제도를 대조해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2006. 7. 20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에서).

이 비교표를 보면 생동성 시험을 하면 복사약값을 대조약의 80%로 인상해준다가 약품비 지출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다시 68%로 낮추게 되는데 이는 대조약값의 80% 인정이 무리한 정책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복제약 가격	· 최초부터 5번째 복제약까지는 신약의 80% · 6번째 이후 복제약은 최저 복제약가격의 90%로 체감	· 최초부터 5번째 복제약까지는 최초 신약의 68%(특히 만료 신약의 85%) · 6번째 이후 복제약은 최저 복제약 가격의 90%로 체감
-----------	--	---

본인은 국립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품목 중에서 생동성시험 후 실제로 약값을 얼마나 올려주었는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약값이 적게는 2배, 많게는 9배까지 인상한 것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하게 되었다.

famotidine 20mg이 약효나 성분은 똑 같을진데 생동후 가격이 30원에서 무려 9배 인상되어 273원으로 된 것을 보라!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표 참조)

ranitidine 150mg 생동성 품목 연차별 가격 추이

약품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잔탁	506	506	506	506	505	504	대조약
제이딘			430	430	430	422	
한림염산라니티딘				404	404	404	
큐딘				404	404	404	
지아이지	143	143	143	404	404	404	
잔시큐				404	404	404	
라니티젠				404	404	404	
라니티드				404	404	404	
라니빅				404	404	404	
네오티딘				404	404	404	
비씨염산라니티딘						401	
란틴	127	127	127	126	400	400	
유한염산라니티딘	142	142	401	399	399	397	
유란탁	142	138	389	389	388	385	
수도라니티딘	133	133	133	375	375	374	
가딘	143	143	389	389	374	374	
삼천당라니티딘	133	133	372	372	368	368	
라닉스	131	131	342	342	342	340	
큐란	312	312	309	309	308	307	생동성 안함
경보라니티딘				404	282	282	
라딘	142	126	126	327	214	214	
수성염산라니티딘				38	38		
란터딘					30		생동성 조작, 퇴출(06.7.7)
엔티딘					27		생동성 조작, 퇴출(06.7.7)
극동염산라니티딘	128	128	404	404			
인바이오넷염산라니티딘				404	404		생동성 조작, 퇴출(06.7.7)
한울염산라니티딘				404	404		생동성 조작, 퇴출(06.7.7)
라닐	142	142	142	142	401		생동성 조작, 퇴출(06.7.7)
트리틴	106	101	101	384	384		생동성 조작, 퇴출(06.7.7)
영풍염산라니티딘	91	91	87	87	245		생동성 조작, 퇴출(06.7.7)
알리코염산라니티딘	70	62	62	175	175		생동성 조작, 퇴출(06.7.7)
닥텔	127	127	127	358			생동성 조작, 퇴출(06.7.7)
라네이드			330	330			취하
라니티스				34			
란니탄				34			취하

(생동성시험을 인정받으면서 가격이 수배씩 올라간 것을 나타낸 것)

famotidine 20mg 생동성 품목 연차별 가격 추이

약품명	제약회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동아가스터	동아제약	358	358	354	354	354	353	대조약
근화파모티딘	근화제약			283	283	283		
파문딘	삼삼팜, 에스앤피제약				283	283	283	
파모터	한국콜마				283	283	283	

famotidine 20mg 생동성 품목 연차별 가격 추이

약품명	제약회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파모젠	제이알피				283	283	283	
파모디틴	인바이오넷		34	283	283	283	283	
위더스파티딘	위더스메디팜		57	57	283	283	283	
한미파모티딘	한미약품	30	30	273	273	272	272	
동구파모티딘	동구제약	66	66		261	261	261	
페로틴	코오롱제약	53	53	53	258	258	255	
파마켄	일화	59	59	59	59	252	252	
서울파모티딘	서울제약	59	59	252	252	258	252	
아모틴	한국웨일즈제약				244	244	244	
한울파모티딘	한울제약	33	32		32	215	199	
베스티딘	중외제약	200	200	200	200	199	199	
삼익파모티딘	삼익제약				283	175	175	
파모시드	뉴젠팜	52	30		163	163	163	
신일파모티딘	신일제약	30	30		128	128		생동성 조작, 퇴출(06.7.7)

cimetidine 400mg 생동성실험 인정품목 연도별 가격 추이

약품명	제약회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타가메트	유한메디카	124	124	124	124	123	123	대조약
한국콜마시메티딘	한국콜마				99	99	99	
안국시메티딘	안국약품			99	99	99	99	
신일시메티딘	신일제약	45	45	99	99	99	99	
드림파마시메티딘	드림파마				99	99	99	
하이메틴	일동제약	42	42	88	88	87	87	
에이치팜시메티딘	에이치팜			99				

cimetidine 200mg 생동성실험 인정품목 연도별 가격 추이

약품명	제약회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타가메트	유한메디카	70	70	69	69	69	69	대조약
시그나틴	동화	30	30	56	56	56	56	
휴온스시메티딘	휴온스				55	55	55	
청계시메티딘	청계				55	55	55	
이텍스시메티딘	한국이텍스				55	55	55	
우리시메티딘	우리팜					55	55	
영풍시메티딘	영풍	30	30		55	55	55	
씨메틴	삼팜, 에스앤피				55	55	55	
씨이메트	부광	30	30	55	55	55	55	
시틴	삼익				55	55	55	
슈넬시메티딘	한국슈넬				55	55	55	
수루메틴	바이넥스	30	30		55	55	55	
메티딘	한국프라임				55	55	55	

cimetidine 200mg 생동성실험 인정품목 연도별 가격 추이

약품명	제약회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듀얼메트	티디에스팜				55	55	55	대조약
뉴씨메	방신약, 한국약품				55	55	55	
국제시메티딘	국제약품	30		30	55	55	55	
타가틴	위더스메디팜		30		55	55	54	
알리코시메티딘	한국알리코팜	30	30		55	54	54	
메티곤	아주약품	30	30	55	55	55	54	
시메티딘	영일제약	30	30	30	53	53	53	
하이메틴	일동	30	30	30	30	30	30	
안국시메티딘	안국	30	30	30	30	30	30	
신일시메티딘	신일	30	30	30	30	30	30	
넥스팜시메티딘	넥스팜코리아	18	18			18	18	
한국콜마시메티딘	한국콜마				16	16	16	
다-메틴	일심제약					10	10	
마가시딘	뉴젠팜	30	30		55	55		
씨메틴	메디카코리아				55	55		
트리메틴	한국휴텍스					55		생동성 조작, 퇴출(06.7.7)
한울시메티딘	한울				55	55		
시메론	한국파비스					12		
심테딘	원광					10		
기화시메티딘	기화제약				55			

이쯤에서 생동성 조작사건의 전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식약청은 2006년 3차에 걸쳐 생동성 조작사건을 발표하였다. 식약청은 2006년 3월 모 약대 연구원의 결정적 제보로 대대적 검수에 돌입하여 생동성시험 기관들이 시험내용을 조작해 총 284품목(자료 불일치 115+위탁제조 169)에 대하여 허위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203개 품목의 허가취소, 75개 품목의 생동인정공고 삭 제명령 등 조치를 취한바 있다.

2006년 3월 조작파문이 불거진 이후 6개월만인 9월 28일 식약청의 최종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2006년 7월 27일 의협이 생동성 재검증 사업에 착수하였고, 2007년 의협이 식약청에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 품목(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2007년 3월 16일 식약청이 공개를 거부하여 2007년 4월 18일 의협이 '생동성시험 조작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고, 2007년 10월 5일 의협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2007년 11월 5일 의협은 식약청으로부터 576품목을 확보하게 되었다.

의협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감사원이 식약청에 대한 수사 의뢰를 명령하고 의약품본부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검찰수사도 진행 중이다.

2007년 11월 28일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2년여 동안 53개 복제약 검사 결과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박종세(64) 초대 식약청장을 구속하였고, 2008년 2월에는 성균관대 지모 교수를 구속하고 국립대 약대 J교수를 불구속하였다.

의협이 확보한 576품목(104개 성분, 91개 제약사 포함)에 대한 보도를 보면

- ◆글리메피리드가 36개 품목
- ◆심바스타틴(고지혈증) 27품목
- ◆레보설피리드(소화제) 25품목
- ◆멜록시캄(소염진통제) 22품목
- ◆에르도스테인(거담용해제) 20품목
- ◆세파클러(항생제) 20품목
- ◆펠로디핀(혈압) 19품목
- ◆카르베딜롤(혈압) 14품목
- ◆플루코나졸(항균제) 14품목
- ◆클래리스로마이신(항생제) 13품목
- ◆말레인산에날라프릴(ACE억제제) 12품목
- ◆가바펜틴(간질치료제) 12품목
- ◆레바마피드(위궤양치료제) 12품목
- ◆염산티로프라미드(진경제) 11품목
- ◆치옥트산(다발성신경증완화제) 10품목
- ◇세픽심 9품목(항생제)
- ◇아테놀올 9품목(혈압약)
- ◇염산라니티딘 9품목(위궤양 치료제)
- ◇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 9품목(뇌기능 개선제)
- ◇이트라코나졸 8품목(진균제)
- ◇염산탐스로신 8품목(전립선 비대증)
- ◇염산테르비나핀 8품목(항진균제)
- ◇시메티딘 7품목(항생제)
- ◇염산메트포르민 7품목(당뇨병)

- ◇염산플루옥세틴 7품목(항우울제)
- ◇오플록사신 7품목(항생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576개의 의약품 리스트를 스스로 공개하고 허가취소 해서 국민들을 영터리 의약품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생동성시험에 의한 대체조제가 영터리인 것이 밝혀진 지금, 무차별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성분명 처방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며 무모한 정책인지를 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생동성시험 후 엄청나게 올려준 약값을 원상 복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약품비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



회원
손장락

시 · 수필 · 여행기 · 산행기

| 회원시 |

탁상의 파란 구슬

손장락 | 손의원(안동)



탁상의 구슬에는
은하수 가로지르고
못별 반짝이는
군청색 하늘이 거기에 있다.

사랑하며 도우며
정답게 살아가는
그런 별이 저기에는 없을까,
저 많은 별들 속에.

흐린 하늘에는
별도 은하수도 보이지 않더라.
깊은 암흑의 구렁텅이가
모두 삼켜 버렸나 보다.

마음이 울적하면
무엇인가를 찾아
파란 구슬 저편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바람에게 길을 묻다 외 1

김의홍 | 김의홍산부인과의원(구미)

시작은 시작이 아니고
지나간 끝은 끝이 아니다

다가설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무의미한 세상의 거리에
누구나 홀로 서 있다

놓아버린 꿈들이
저기 저렇게 아프게
아프게 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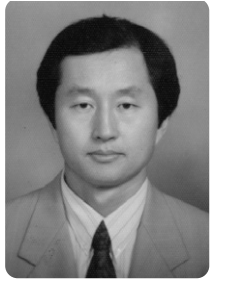
진정 보이는 것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듯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일부가 되고 전체가 되지

너와 나 인연의 실타래는
서로 눈부시게 엉키고

놓쳐버린 시간들이
놓아버린 이름들이
저기 저렇게 둥둥
무심하게 떠 있다



결국 그 자리에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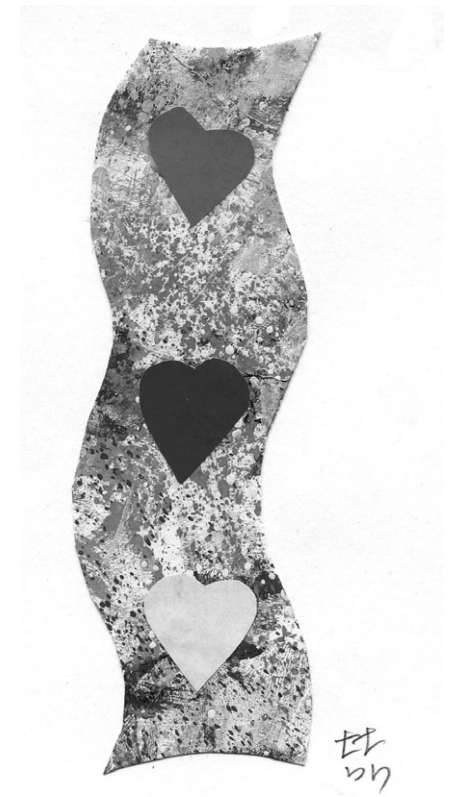
구부러진 기억들을
힘겹게 펴보면
살뜰한 무엇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꿈 속이었던가
똑같이 생긴
지상의 만물들이
무표정하게 나타났다
힘없이 사라졌다

질긴 삶의 맛은
정처없이 어디로 가고
대답없는 기억만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우리 추억의 공유는
언제 어디서부터
냉정하게 서로 지워졌을까

눈 먼 빛의 공간
외로운 메아리조차 없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슬프게 지워진 모든 것들이



신귀거래사

최해근 | 최해근성형외과의원(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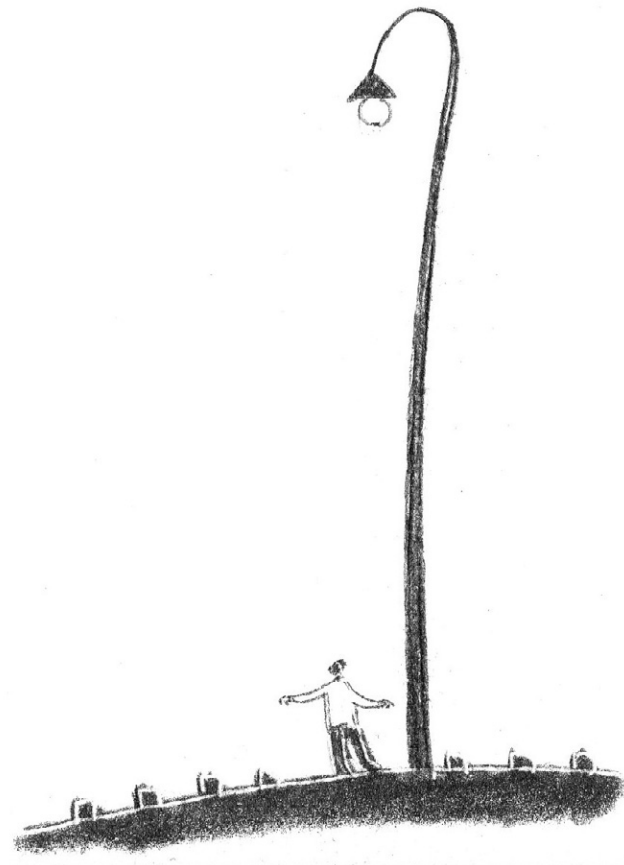


어렵사리 마련한 용장골 텃밭은 오래 묵어
몇 그루 심어본 과수는 게으르고
몇 고랑 채소도 더더
걸핏하면 계곡에 발이나 담그고 추억을 흥얼거린다.

내 꿈은 바람되어
오랜 너의 잠을 깨우는 것
내 꿈은 물 되어
오랜 너의 갈증을 적시는 것

무단히 마음 넉넉하여 산그늘 거닐다
같이 늙는 마누라 마주하고
고기 몇 점 구워 소주 한 잔하면
세상이 부추겨온 온갖 욕망과 망상들은 과연 무

산이 부르면 산 따라 가고
물이 부르면 물 따라 가고
잠시 왔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 뿐
숲속에 혼자 늙는 그윽한 고목이고 싶다.



자연

안길룡 | 안외과의원(김천)



가을이면 분명 낙엽으로 떨어지는것을
무성하게 있을 피우는 반복의 계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이 잠겨도
규칙만큼 폭우는 쏟아지고
태어난지 사흘된 핏덩이도 물어버리고 마는
규칙만큼 폭설이 내리는 계절은
무정한 계절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반복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지만 세상을 살다가
누에먹은 빵잎처럼
씹힌 가슴이 저리고 또 아플 때
무정한 계절도
먼 하늘에 노을을 피빛으로 풀어놓고
한두 번쯤 밤하늘에
별들을 총총히 뿌려 놓더이다.



2007년 5월 27일(일)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29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시사 삼행 시 「의료법, 만파식적」의 시제에 6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을 싣는다.

— 편집자 주

< 장 원 >

■ 김태숙 · 최인환결핵내과의원 가족(김천)

만인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고
파리하게 야윈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식구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적절하게 몸과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당신은 진정한
히포크라테스의 후예 경상북도의사회

< 차 상 >

■ 성연문 · 김천의료원(김천)

만가지 근심걱정 바람에 날리우고
파릇한 잔디 위에
식구들 모여 앉아
적당히 먹고 마시니 사는 재미 샘솟네

■ 마도훈 · 경주이비인후과의원(경주)

만사 제쳐두고 함께 모인 의사가족
파란 잔디 위에 웃고 뛰놀며
식구처럼 둘러앉아 먹고 마시니
적막한 현실 달래는 만파식적 소리 들려오네

< 차 하 >

■ 이석균 · 청십자의원(경산)

만물이 생동하는 토함산 자락 아래
파란 하늘, 푸른 잔디, 술술 부는 바람
식구들과 회원, 보고싶은 얼굴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하루를 즐겨보세

■ 이경수 · 이경수내과의원(구미)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의 여왕 5월에
파란 하늘 초록 정원 경북의사의 날 맞이하여
식어가는 우리 모두의 희망에 불 밝히며
적절한 화합으로 밝은 미래를 기대하자

■ 김선우 · 경북이비인후과의원(김천)

만일에 내가 날아가는 새가 된다면
파아란 하늘을 훨훨 날아서
식상하고 지친 일상을 떠나
적도 끝 그곳에서 나의 꿈을 이루리

< 참 방 >

■ 김태우 · 리즈여성병원(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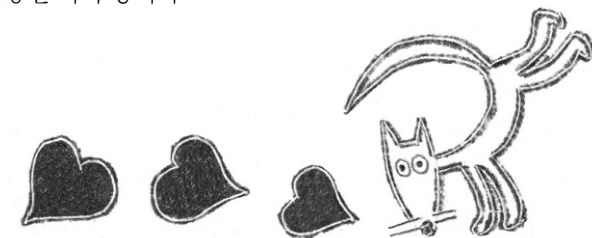
만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파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식지않는 정열과 애정을 가지고
적정 진료에 매진하는 우리 의사들

■ 서영진 · 항구외과의원(포항)

의사들은 오간데 없는
료(요)놈의 요상한 세상에
법만 남아있네, 의료악법

■ 이경섭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주)

만인의 존경을 받는 경북의사회원들은
파아란 하늘같은 넓은 마음과
식지 않은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훌륭한 나의 동지다



감자

추성수 | 추이비인후과의원(포항)



어느 날 아침 식사 중 아내가 들려준 감자를 먹다 목에 걸려서 사망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문득 감자에 얽힌 사연이 있는 왕진이 생각났다.

1955년 해군 군의관 시절 쥐꼬리 만한 봉급으로 많은 식구들의 생계와 중학생인 동생 학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살림을 하던 중 아내의 제안으로 진해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 K2 비행장 시골 마을에서 야간개업을 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결정으로 준비된 돈도 없어서 길가에 있는 점포 하나를 빌려 개업을 시작했다. 환자는 거의 없었고 간혹 야간에 왕진을 부탁하는 환자가 있어서 가족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 수십분씩 걸어야 도착하는 시골집이었다.

치료가 끝나고 나면 나 자신도 개업이 처음인지라 치료비가 얼마인 지도 잘 몰라 대충 이야기하면 대부분 외상을 했다.

어느 날 진해 해군 병원에서 퇴근해서 집에 도착을 하니 보호자 한 명이 급하게 뛰어 들어와서 할아버님이 감자를 먹다 감자가 목에 걸려 위독하시니 왕진을 청한다 하여 옷도 벗지 못하고 부랴부랴 떠났다.

집의 위치를 물으니 해발 약 300m의 산중턱이란다. 그 곳까지라면 도착하는데 수십 분이 소요되

는데 위급한 환자가 그 때까지 살아있을 지가 염려되었다. 내가 도착할 즈음이면 환자는 이미 사망했거나 아니면 저절로 나왔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헉헉대며 산을 오르는데 멀리서 집 한 채가 보였다.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 한 분이 마루에 턱 걸터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닌가! 직감적으로 '위급상황에서 벗어 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부를 물으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서 왕진료를 물어보셨다.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망설이다가 그냥 무료라고 답하고는 하산을 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 때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개업 의사는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몸으로 기술로 봉사하는 직업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도 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외상환자가 많았었다. 하루는 옛날 외상장부를 들여다 보면서 웃음 지은 일도 있었다. 몇 백원, 몇 십원……

올해로 개업한 지 52년이 된다.

간혹 이제는 쉬실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진료실에서 50여년 간의 임상경험과 지식을 다바쳐 환자에게

“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 한 분이 마루에 턱 걸터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닌가! 직감적으로 '위급상황에서 벗어 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부를 물으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서 왕진료를 물어보셨다.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망설이다가 그냥 무료라고 답하고는 하산을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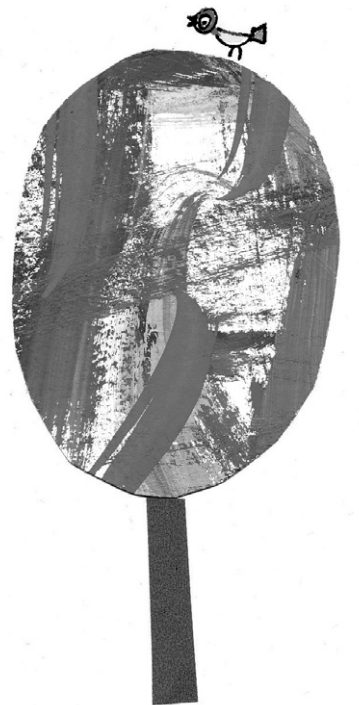
베풀고 또한 환자에게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끝을 맺고자 한다.

우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해방직 후 과도정부 시절이었는데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모두가 부족하고 가난한 시절이었다. 도시 농촌할 것 없이 학비가 모자라면 휴학을 하고 또 학비가 마련되면 다시 복학을 하며 겨우 졸업을 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 시절 통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대학을 다녔는데 지금 그 때가 더욱 그리워지고 애착이 가며 간혹 그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 때도 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여 남자들은 서독 광부로 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면서까지 악착같이 일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 어렵던 시절 몸과 마음이 닳도록 고생하시며 나를 길러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명복을 드린다.



바보꽃

박무근 | 박비뇨기과의원(포항)



I
 바보야, 이 바보야
 허공 속으로 사라져
 세상 아무데도 없는 빛살들을 찾아 나섰는가
 캄캄한 대지 한 자락 잡고
 촛불 같은 삶
 어깨 들썩이며 얼마나 울고
 바보야
 모질게 볼 때리며 맴도는 바람에
 맨살이 훑기도 하겠지
 기억없이 홀로 서서 기다리자니 떨리는 다리
 외롭기도 하겠지
 명치 짓누르는 서러운 응어리
 다독일 손 하나 가까이 없으니
 회한도 그리움도 사무치겠지
 바보야, 그래
 어찌자고 그 좋던 시절 마다하고
 이 삭막한 풍경 앞에서
 춤추듯 온몸 비틀어
 가슴 깊은 곳 애타는 빈자리 만들어 두고
 무슨 찬란한 꿈 다시 담으려 하나
 저문 하늘 넘어
 깨금발 한껏 세우고서

밝디 밝은 새 세상 엿보려 함인가
 하얀 손 높이 들어
 아득히 먼 별들과 내통이라도 하렘인가
 바보야, 이 바보야
 저만치서 설한풍은 갈기 세워 오는데

II
 바보꽃이란 제 철이 아닌 다른 계절에 피어나는
 야생꽃들을 이르는 말이다.
 식물들은 저마다의 '생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



“ 제철이 아닌 때에 예쁜 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참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고,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기분이 좋아져서 꼭 무엇이 잘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모난 돌이 정 맞듯이 튀는 것에는 역풍을 맞기 일쑤라, 얼마간 따듯하다고 해서 재빠르게 손을 내밀고 꽃을 피웠다간 몰아치는 북풍한설에 여지없이 시들어버리는 신세로 될 수 있다. ”

고 한다. 그 시계에 맞춰 움을 띄우고 잎사귀를 열고 줄기를 세우며 꽃을 피워 열매를 다는 과정을 순조롭게 이어간다. 그러나 간혹 어떤 요인으로 그 시계가 오작동을 함으로써 식물들이 때를 잊고 멍청하게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람들이 바보짓에 빗대어 제 고유의 이름 말고 다르게 붙인 별칭이다. 참으로 소박하고 익살스러운 표현 아닌가.

흔한 예로는 개나리, 진달래, 죽단화, 벚꽃, 사과꽃, 배꽃, 민들레, 뿌리뱅이, 나비나물, 광대나물, 명자꽃, 차나무, 으아리 등으로 대개는 봄꽃이 가을이나 겨울철에 핀 것이라 하겠다(코스모스같이 가을꽃이 초여름에 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동백, 벌꽃, 버록나물, 복수초, 설중매, 바람꽃, 개구리발톱꽃, 수선화, 팔손이나무 같은 꽃들은 겨울을 걸쳐서 봄에까지 피기 때문에 이들이 한겨울에 피어난다고 해도 바보꽃의 범주에는 넣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과 제주도 지방에서 많이 관찰되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드물어지는데 이는 기온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최근에는 따듯한(?) 겨울 덕택과 다양한 환경변화로 바보꽃의 개체수와 종류가 늘어나고 분포지

역도 크게 확장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내륙지방의 양지 바른 곳에서도 심심찮게 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진은 대표적 이른 봄꽃인 개나리로서 9월 중순에 핀 가을개나리와 12월의 겨울개나리다(포항 모갈산 산책로에서).

제철이 아닌 때에 예쁜 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참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고,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기분이 좋아져서 꼭 무엇이 잘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모난 돌이 정 맞듯이 튀는 것에는 역풍을 맞기 일쑤라, 얼마간 따듯하다고 해서 재빠르게 손을 내밀고 꽃을 피웠다간 몰아치는 북풍한설에 여지없이 시들어버리는 신세로 될 수 있다. 차마 보기에 안타깝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무엇이 그리 바빠 서둘러서 화를 자초할꼬.

식물이 사람보다 DNA수가 많아서 변신을 더 잘한다고 하던가, 햇살이나 훈풍을 감지하는 감각 놀랄만한 능력을 소유하여 항상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식물도 사람처럼 실수, 건망증, 또는 사고의 맹점에 걸려 꽃 피울 때를 깜박 잊고 있다가 어느 때 허둥지둥 피어보는 경우는 없었을까? 헌데 모를 일이다.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더 크게 걱정한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조만간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식물상도 그 기후에 맞춰 아열대수림으로 대체되리라고 한다. 21세기 화석산업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 사실을 참작해 보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협의체(IPCC) 제4차 평가보고서(2007. 2. 2)를 받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참석한 총회(2007. 11. 17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승인 채택」한 내용으로 지구온난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고 대부분은 인간의 책임이다. 지구온도가 1.5~2.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 생물종 20~30%의 멸종 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늦어도 2020년까지는 온실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떨어뜨리기 시작해서 2050년에는 2000년의 50~60%로 낮춰야 한다.

화석연료 의존이 지금의 추세로 계속될 때는 2100년경 지구온도는 최고 6.4도, 해수면은 59cm 상승(1993년 이후 매년 3.1mm씩 상승하고 있음)하고 양극지 빙하의 완전해빙,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위력이 증대하는 등

기후의 광란으로 비극적인 지구재앙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와 인천의 2006~2007년 겨울 평균 기온이 3.5 및 1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니 얼지 않는 겨울이 곧 다가올 것도 같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은 세계 9위이고 2013년부터는 감축의무대상국에 포함되리라 하니(2007.12.15. 발리 로드맵) 준비를 서둘러야 할 일이다.

두껍아, 어디 가니?

전경홍 | 동산가정의학과의원(문경)
2003년 한국문인 등단. 한국문인 회원, 경희문학 회원,
한국장로문학 회원, 문예비전운영위원



텔레비전을 켜자 2006년도 토리노 동계 올림픽 선수단을 환송하는 중계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만면에 미소를 짓고 대형 태극기를 휘두르는 단장인 친구 변탁이가 눈에 띄어 매우 반가웠다. '저 친구는 중학교 동기야! 라고 아내에게 자랑했다. 그리고 쇼트랙 중계시간에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화면에 시선을 집중하였다. 마치 현장 응원석에 한자리를 차지한 듯 열성적으로 응원전에 합류했다.

우리 선수들이 앞선 타국 선수들을 앞지를 때는 나도 모르게 왼발을 짝 뺀고 오른발은 힘을 주어 박차를 가하고 전신을 앞으로 쏟았다.

안현수 선수가 끝인 하는 순간 금메달! 금메달! 하며 온 집이 떠날듯이 소리를 질렀다.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경기장을 누빌 때는 나도 만세! 만세! 외쳤다.

대한민국 남녀 선수들이 금·은·동메달을 휩쓸었을 때 기뻐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선수들, 코치, 감독들이 모두 훌륭하지만 나는 친구 변탁이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연상하였다. 금의환향하면 온 나라가 환영을 하겠지만 나는 나름대로 동기들을 모아 잔치라도 열어야 되었다고 생각 중이었는데 아내가 등을 치며 “응원은 신나게 잘하는데 동

작은 두꺼비처럼 느리네요? 하고 깔깔 웃는다. 순간적으로 놀라면서 두껍이는 어릴 때 나의 별명인데 아내가 알 리가 없는데... 그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사실 나는 가을 운동회 때마다 참가 상을 받았던 기억밖에 없다.

매년 운동회 때 달리기는 8명중 항상 8등이었다. 언젠가 앞서 가던 아이들이 주르르 넘어지면서 4등한 것이 최고의 성적이었다. 아쉬운 것은 그때 내가 순발력이 있었다면 3등의 영광을 차지하여 상을 받았을 터인데 아쉬웠다.

그날도 운동장에 모인 많은 관중들 앞에서 꼴지라 부끄러웠다. 나를 자책하고 갈등과 열등감으로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오는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서 “두껍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느림보야 빨리 가라”를 반복하며 놀렸다. 내가 항거하니 신이 나는 듯 더욱 심하게 놀려 나는 분을 참지 못하여 울음을 터트렸고 그들은 계속 두껍아 어디 가니? 느림보 빨리 가라면서 공원 쪽으로 몰려갔다.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

눈물이 범벅이 된 나는 맑은 물이 흐르는 우리들의 수영장인 냇가로 가서 얼굴을 씻고 발을 담그고 몸을 들여다보니 물고기들이 노는 것이 재미

권정생 선생을 생각하며

최유근 | 최유근안과의원(안동)



2007년 5월 17일, 권정생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매일신문 기사로 알았으니 그 동안 좀 소원하게 지낸 셈이었다.

남안동 인터체인지를 지날 때마다 내려다보이는 조탑동 마을 뒤편 조그맣게 보이는 빨간 지붕의 오두막집을 보면서 권정생 선생님을 연상하였다. 안동문협 회원 시절 가끔 월례회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안동에 오실 때는 시내 버스로 오지만 돌아가실 때는 누군가가 태워 드려야 했었다. 말쑥이 없으셨고 친근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몽실언니(1984)」가 발표되고 학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자 우리 온 가족이 권선생님이 사시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강아지똥」, 「몽실언니」 책을 사인해 아이들에게 주었다. 네 사람이 앉기에 도 방이 좁아서 마누라는 방문 앞에 앉았다. 놀랍게도 석유 호롱불을 켜고 있었다. 석유 한 되를 사면 사기 호롱불은 3개월, 호야불은 15일 사용하는데 개조된 유리 호롱불은 1개월 정도 사용한단다. 그때 당시는 안동시, 군이 통합되기 전이라 마침 당시 안동군수이던 김호동 군수님이 안과진료를 받고 계셔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택에 전기가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선처를 하겠다고 했다. 오지에도 전기를 공급한다는 한전의 정책 배

려도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군수님한테서 전기가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작 당사자한테서는 소식이 없어서 궁금했다. 며칠이 지나자 편지가 왔다.

선생님.

진것쫄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진것쫄이 들어와서 다행이라면서, 그래, 돈이 얼마 들었느냐? 누구 댁으로 넘게 댔느냐고 물어대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대답해 주면서 왠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임습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가난해져야 하겠다는 의지가 되살아 납니다.

절코 과학 문명은 인간에게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물론 가난했던 것도 있었지만 문명에 대한 수용 능력이 제겐 부족했었습니다. 아직도 고무신과 호롱불이 생리적으로 제겐 어울린다는 진부한 생각을 합니다. 진것쫄빛 아래에서 과연 동화가 쪼어질 수 있을지 무거운 측계가 되었습니다.

과학 문명은 편리를 가져다주기 전에 인간의 내태성을 부추길 뿐입니다. 호롱불빛은 그래도 달을 쳐다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지만 진것쫄은 달빛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소픽새와 부엉이 울음도 자꾸 퇴색해져 가겠지요. 인간들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

있었다. 어느 사이에 나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얼마나 빠르지 잡을 수가 없었다. 돌 사이에 가재 한마리가 기어 나왔다. 순간 나는 가재를 잡기 시작했다. 5마리를 잡아서 강아지풀에 끼어두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데 쇠파리 떼가 우글거리고 날아들어 자세히 보니 왕두꺼비가 공격 자세로 앉아 혀를 날름거리며 파리사냥에 바빠 보였다. 피부가 황록색이고 등에는 크고 작은 검은 점이 산재하여 징그럽게 보였고 섬뜩하여 순간적으로 놀랐다.

또 개구쟁이들이 나와 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워서 발로 엉덩이를 건드렸다. 즐거운 식사 중에 불청객이 주는 충격에 놀란 듯 두꺼비는 몸을 추스르고 돌출된 눈알이 번득이며 영금영금 늠름하게 숲속으로 기어갔다. 미련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먹이 사냥에는 탁월함을 보였다. “느림보는 느림보구나” 나와 같이... 그러나 나는 파리를 짹째 사냥하는 것은 천부적인 능력이다. 개구쟁이들이 나를 미련하게 보지만 그것은 내가 운동 신경이 둔하고 순발력이 부족한 것 외에 저들 보다 못한 것이 무어냐 나도 재능을 발휘하여 너희들을 앞지를 날이 올 것이다.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마다 “경홍아! 두껍아 어디 가니?” 하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세월이 지나 열등감에서 해방되어 나의 작은 꿈이 이루어져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자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쾌유를 기원한다.

“두껍아 어디 가니 느림보야 빨리 가라?”는 나에게 좋은 채찍이었고 더욱 전진하기 위한 박차를 가하게 했다. 빙상경기 500m, 1000m, 3000m 결승전에서 실격을 당하는 자, 넘어진 자 또 추격을 당

하는 자, 가장 우승자로 유력한 선수가 약간의 실수로 예선에 탈락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가 다크호스로 나타나 결승에서 승리하여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서 절대적인 강자가 없으며 영원한 승리자가 없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경기가 중반전에 이르면서 희비의 쌍곡선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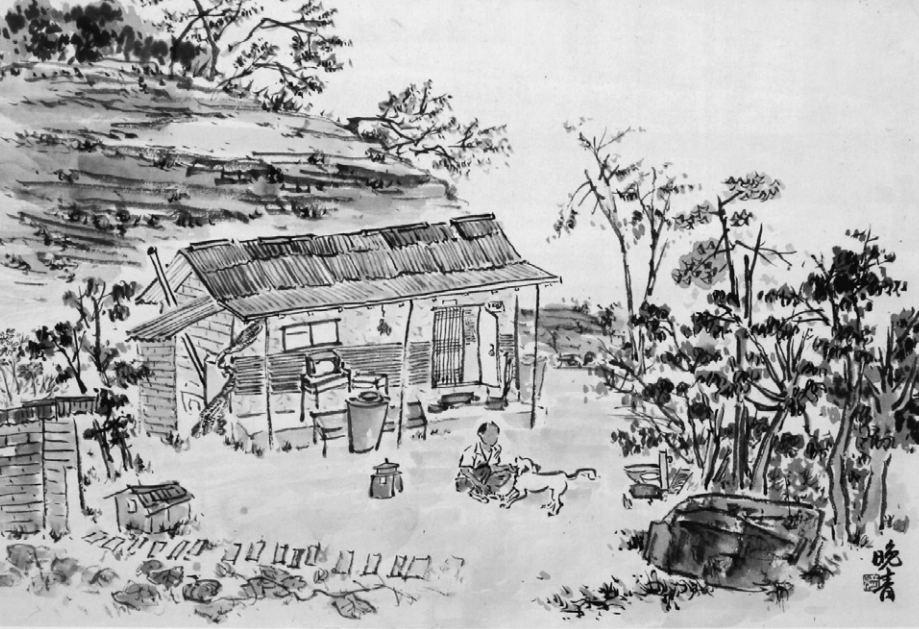
2관왕, 3관왕 영광의 주인공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찬사를 보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굴에 아름다운 분장과 형형색색의 유니폼과 각국 국기를 휘두르며 펼치는 응원전은 축제의 한마당이고 정말 영광의 도가니였다. 경기현장을 중계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성실함과 열정에 감사했다. 경기장은 토리노를 넘어 세계의 축제장임을 확인케 했다. 화면에 각국 메달수가 순위가 일목요연하게 비추어질 때 나는 기뻐서 격려의 박수를 함성과 함께 보내고 내가 승리한 듯 푸근한 마음에 나는 허물을 서슴지 않고 나는 인생 동반자요 항상 나의 자존심을 세워 아내에게 털어 놓고야 말았다.

내가 승리 한 듯 기분이 좋아 소년시절에 개구쟁이들만 알고 있는 나의 애칭이었던 느림보 두꺼비의 비밀을 서슴지 않고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이며 가장 가까운 친구 아내에게 다 털어 놓았다.

그 후로는 “두꺼비”가 아내가 부르는 애칭이 되었다.

내가 느릿느릿하여 행할 때는 특히 식탁을 준비해놓고 “여보! 여보! 식사하세요?” 할 때 곧 가지 않고 머뭇거리면 “여보! 여보! 두껍이 어디 가니?”를 반복하면 나는 즐거이 받아 “느림보 빨리 간다. 화답하지만 알맷던 옛 개구쟁이들의 모습이 뇌리에 스쳐지나간다. 언제 한번 만나서 옛이야기 하면서 웃고 싶다.



「밭쟁이 언덕」
그림/권기운 화백(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나 버리고만 있지, 갖고 보호할 줄은 모르니 이젠 예술도, 문학도, 노래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가계 되면 한번 찾아 볼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이 안되는 인간은 살아가지가 그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죽어 천국에 가면 한번 크게 웃으며 두 다리 뺏고 누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86년 3월 29일
권경생 올림

전기가 들어왔으니 이번에는 냉장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니 냉장고를 사 가지고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5층짜리 전등을 켜고 계셨다. 한달 전기 요금이 고작 1,500원이란다. 전봇대 두 개 세우고 150m 이상의 전선이 소요된 공사였는데 사용량은 예상치를 못 미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냉장고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했다. 일직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매월 지급해 주는 보조금도 반납해 버리고 '나는 괜찮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했다. 남을 배려하는 심성은 자연이 약한 자, 못 배운 자,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으리라. 이것이 선생님이 지향하는 문학세계였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체질적으로 권력자, 부자, 지식인을 멀리하게 되었고, 이것은 타인에게는 비사교적이

고, 비타협적인 성격으로 비취지게 하였다. 그럴수록 그의 문학은 우리들에게 자각심과 연민의 정을 깨우치게 하였다. 몇 년 전, 안동예술제에 출품한 「소·5」라는 시화 작품을 전시가 끝나고 선생님은 나에게 주었다.

주인집 아가씨
혼수감을 실은
구루마를 끌던 날

느티나무 언덕에서
엄마소는 넷째 생각을 했다.

두 달 전 장날
나부라진 귀를 쫓그렸다가
끌려 내려가던 암송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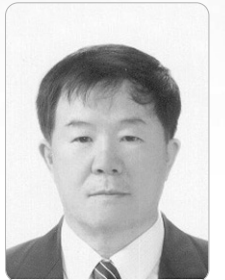
넷째는 청산고개에서
음매에
음매에
울었지.

선생님의 작품을 대할 때마다 선생의 생전의 모습이 가슴에 맺혀든다.

수필

의생에게 보내 온 선물

이종규 | 연세가정의학과의원(울진)



1

한때는 이곳의 풍치에 매료되어 낚시를 즐기곤 했다. 전문 낚시꾼이 아니니 그냥 어설피게 실장의 도움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낙이려니 하기도 했다. 가끔 송어가 걸리면 낚시대가 커다랗게 휘어지면서 짜릿한 손맛이 그윽하기도 했다. 황어나 붕어가 주종을 이루기도해서 심심치 않게 퇴근 후의 시간이 즐겁기도 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실장은 눈치를 살피면서 잉어 낚시를 가자며 저녁을 거르던 때도 있었다. 평퍼짐하고 널찍한 들판

이 하도 비옥해서 공업단지나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었다고 했다. 그 탓에 그럴듯한 기업체나 공단이 없으니 경제 사정이 좋을 턱이 없다. 다만 순박하고 소박한 인정이 사는 맛을 돋우게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영해면은 영덕군의 북부 지방의 중심이다. 한때는 마을이 제법 번거롭고 시장에는 물량도 많아서 장날이면 취객들의 회롱이 심심치 않게 미간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근래 계모임이 깨지고 부도가 나고 도망가고 중앙의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많은 상처를 뒤집어 쓴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재래식 시장을 되살리는 개보수 작업으로 장바닥은 온통 파헤쳐져서 길거리는 도무지 꼴이 아니다. 해가 지면 일찌감치 인적이 줄어들어 적적해지곤 한다. 로타리 한가운데 3.1탑은 명맥만을 유지하는 중심지일 뿐이다. 영해는 그런 곳이다.

아침햇살이 비치면 잔잔하게 일어나는 물결에 반사되는 모습이 한결 예쁘다. 오히려 찬란한 모습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멀치잡이배가 이른 아침부터 연기를 뿜어올린다. 바람 없는 허공으로 수직 상승하는 거무튀튀한 연기가 풍요롭게 느껴진다. 배 고물어랑 갑판에서 꼬물거리리는 모습이 몹시도 정겹다. 검문소를 지나면 구부정한 아스팔트길이 서너 구비로 이어진다. 해안선을 감돌면서 수평선과 육지가 맞닿는 곳에 하얗게 등대가 가물거린다.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지는 동네, 수평선 위로 아침햇살에 금빛 구름으로 화사한 동네, 후포가 또 이런 동네다.

오십천을 가로질러 다리를 건너면 작은 마을이

나타난다. 제법 너른 들판이 산자락까지 펼쳐진 곳에 가을건이가 한창이다. 새로 확장되는 7번 국도가 가지런하던 평해 들녘을 일그러뜨리고 불품없는 모양새로 만들었다. 그나마 작업 차량들의 운행이 많아지는걸 보니 또 선거철이 되었는데 보다. 이미 십 수 년에 걸쳐서 이런 이벤트성 선심행사에 이끌이 난 동네 노인들의 푸념이 이어지곤 한다. 장거리의 모습은 자꾸만 움츠러들고 초라해지기만 한다. 시골장터에서는 빠질 수 없는 싸구려 테이프 장수의 뽕짝소리가 멎은 지도 이미 두 어 해가 지났다. 평해는 이미 지난날의 중심지가 더 이상 되지 못했다. 읍내의 행사나 중심은 이미 후포가 거점이 되어버렸다.

평해에서 승용차로 5분 정도 가면 바로 바닷가로 이어진다. 비교적 양호한 도로가 바닷가까지 이어져있다. 지난 정부에서 도로 확충은 그래도 업적으로 꼽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점심식사 후에 나타나는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쇠신하기에는 제법 좋은 일이라서 나는 자주 드라이브를 가곤 한다. 야트막한 고개를 넘으면 바로



눈앞에 파란 바다가 하얀 거품을 뿜어내는 해안선이 눈앞에 펼쳐진다. 돌연 가슴이 후련해지고 심호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긴다. 동해바다는 이렇듯 후련하고 시원한 모습으로 자주 유혹하곤 했다. 의료계의 답답하고 응어리진 마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청정해역의 맑은 물과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멎든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기능과 아울러 다양한 대사과정을 수행하는 우리 몸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성인의 경우 보통 1.8㎡ 정도가 된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땀을 만들어 수분대사에 관여하고 온도를 조절한다. 체내의 지저분한 대사 산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에도 한 몫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도 한다.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피지선을 만들어 피부를 윤기 있고 윤택하게 만들기도 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절하기도 한다. 또한 재생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신축성 또한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다. 이런 피부 중에서 등판은 한눈에 전모를 다 알아 볼 수가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등판에 종기가 생기기도하고 할켜진 자국이 발갱게 발적이 가지지 않아서 쓰라리게 느껴지기도 한다. 간혹 척추 수술을 한 자국이 보이면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보기도 하면서 병원생활에 이끌이 났었겠다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한다. 때로는 거대한 용의 문신을 보면 소스라치기도 하고 섬찟한 생각에 짐짓 자세를 고추세워 조심스러워 지기도 한다. 어떤 때는 시뻘건 불을 내뿜는 용의

▼ 평해 향교



▼ 평해 7번 국도변



2

등판지도를 그려보니 흥미 있는 일이 많기도 했다. 등판도 사람에 따라서 면적의 차이가 많다. 슴털이 뽕뽕송송하고 뽕뽕하게 깔려있는 아이들의 등판은 가죽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포동포동한 아이들의 등판은 촉감도 좋고 매끄럽고 윤기가 돌아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요렇게 통통하고 매끄럽던 등판이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온갖 풍상의 낙서장이 되기도 한다. 갖은 인생의 삶의 이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피부는 체온조절의 기능은 물론이며 보호막의

문신도 있다. 근래 문신도 다양한 색상이 등장한다. 아주 초기에는 그저 먹물이나 감청색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젊은 나이의 묘령의 아가씨들은 복부에 작은 장미꽃 문신을 새긴 경우를 보기도 했다. 그런 경우는 애교로 보기에다 썩 괜찮았다.

군 복무시절에 방위병 신검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그 때에도 등판은 중요한 관찰 부위가 되었다. 때로 군대 생활의 곤혹스러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앓을까 해서 문신이나 흉측한 칼자국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분류를 하곤 했다. 당시에는 주로 자신의 좌우명이 될 만한 글자를 새겨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문신도 대범해지는 것 같다.

등판에 탄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수술의 흔적이 남기도 하면서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도 겪게 된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나이가 되면 또 간지러워지기도 한다. 그럴 때면 고개를 왼쪽 앞으로 숙이고 오른손을 어깨 너머로 휘 들어올려 등을 긁으면 그 시원한 맛은 한여름의 사이다 한 잔 맛에 비교할 수가 없다. 손톱을 깎고 나서 약간 자란 상태에 긁는 게 진짜 제 맛이다. 손톱이 너무 길면 할퀴 자욱이 남는다. 그런 경우는 손톱으로 가려운 부위를 긁기보다는 꼭꼭 눌러서 차라리 아프게 함으로서 가려움증을 잊으려고 한다. 모름지기 남자들은 그래도 여자들에 비해 가려운 걸 더 잘 참는 것 같다.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아픈 것 보다는 가려운 걸 더 참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자들은 간질러주면 빨리 반응하고 남자들은 아프게 하면 더 빨리 반응하는 것 같다. 오른손으로 왼쪽 등판의 윗부분을 긁을 수 있듯이 왼손으로는 오른쪽 등판을 긁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을 사용하면 등판의 대부분을 다 손가락 끝으로 긁을 수가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깨관절에 통증이

오기도하고 우연치 않게 관절통이나 사고 등으로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 자연히 등판에도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이가 60을 전후해서 등판이 자극을 받는 부위도 다르게 된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생기도 한다. 대개 7,8,9번의 흉추부위를 중심으로 긴 타원형의 부위가 손가락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그려지게 된다. 물론 개인차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또는 체형 등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그런 부위는 할 수없이 다른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의존해야 한다.

평해에는 유독 홀로 사는 할아버지들이 많다.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많은 할아버지들이 계단을 원망하면서도 진료실 문을 열고 찾아온다. 청진기를 대면서 등판을 응시하면 영낙없이 효자손으로 뽕뽕 긁어서 흠집이 생기거나 긁힌 흔적이 유별나게 많다. 가려울 때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면 아무 것으로나 긁어대는 바람에 때로는 피하 출혈이나 반흔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나 손이 안 닿는 곳이 더 많이 가려워지는 법이다. 참으로 고약한 일이다. 등판을 한반도에 비유하니 기막힌 사연이 생긴다.

모양으로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장 개발이 안 되는 지역.
오른손도 안 닿고 왼손도 닿지 않는 곳.
가려울 땐 미치도록 안타까워서 안절부절하는 곳.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
태백간두에서 의연하게 무게 중심 역할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울진이고 평해란 말인가.



▲ 크리스마스 때 영해보육원에서

3

지금은 까맣게 잊어 버렸지만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각박하고 구차한 눈 앞의 일들에만 집중하다보니 뒤돌아볼 여유를 찾지 못했거나, 너무도 많은 정보의 물결의 흐름에 떠밀려 가다보니 오히려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게 자연스런 일로 치부되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했기로서니 아직은 우리의 정서나 감정을 기억 속에서 찾아 주지는 못한다. 정말로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고마움을 느끼는데 너무 인색해 지는 현실이 두렵기도 하다.

새로운 만남을 즐기거나 엮어가는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기존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아탑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사람들과 연관이 되고 그런 연줄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우리사회에서의 이해관계에도 그런 연관성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 나름대로의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보통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경우

가 매우 드물다.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다면 한번쯤은 뒤 돌아보는 자세가 정말로 아쉬운 시점이다. 우리에게 이 만큼의 풍요를 가져다준 많은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

만주의 여름은 찌는 듯 덥고 겨울엔 살을 에는 추운 곳이다. 731부대로도 유명한 하얼빈의 흑룡강변은 생각보다는 낭만적인 곳이 많기도 했다. 강을 가로지르는 곤돌라 관광은 꽤 인상적이다. 하얼빈탑에서 한 바퀴 둘러보는 시내 야경은 대륙의 한복판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 흑룡강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애환이 있는 곳이다. 마치 두만강의 서러움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국지사들의 피의 결정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피아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백병전을 치르기도 하면서 기아와 추위는 물론이거니와 말 못할 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과 그 분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 그 분들의 후예는 드넓은 만주 벌판 여기

▼ 김좌진 장군 흉상



어느 가을날

김대환 | 베드로내과의원(영천)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시월말의 어느 오후, 대구박물관 로비에는 벽안의 젊은 부부 두 쌍이 한 아이를 손에 잡고 또 한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통역과 함께 들어 왔다.

이들은 조금 전 “혜림원”이라는 곳에서 채 백 일도 되지 않은 아이들을 입양하여 고국인 스웨덴으로 돌아가기 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박물관을 찾았던 것이다. 이들은 수년 전 각각 남아와 여아를 입양하여 키우던 중 다시 동생들을 입양하기 위하여 대구를 들렀다고 한다.

고고실, 미술실, 민속실을 약 40분에 걸쳐 관람하면서 도슨트의 설명을 통역을 통해 열심히 듣고 또 진지하게 질문하곤 했었다. 관람을 마치고 일층 로비 한 켠에 있는 선물 코너에 들러 이것저것 살펴보고, 특히 십이지신상 팔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아기가 돼지띠라는 것도 알게 되고 동양의 풍속에 대해 신기해하곤 했다. 팔찌를 아이의 팔목에 끼워주고 또 작은 민속 인형이랑 몇 가지를 챙겨서 가방에 넣었다. 왜 이런 것들을 챙겨 가느냐는 질문에 “이 아이들이 크면 조국의 풍속과 풍물들을 이야기 해 주고 보여주고 싶어서”라는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게 되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역시 입양문화는 서양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역시 입양은 사랑의 최고 정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자식사랑이 지극한 민족도 아마 드물 것이다. 자식을 위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대신 주고자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가? 오죽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나라의 부모는 모두 가시고기라 했겠는가? 그러나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에게 내 자식과 같은 사랑을 나눠주기에는 너무나 인색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요사이는 조금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양한 가정에서 아이에게 비밀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위사람들을 의식하여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여 정착해 사는 경우도 있었다.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가 없어 보호단체에 맡겨져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맡아 키워주어야 할 터인데 정말 온전한 사랑이 없이는 힘들 것이다.

오늘 이 벽안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희미하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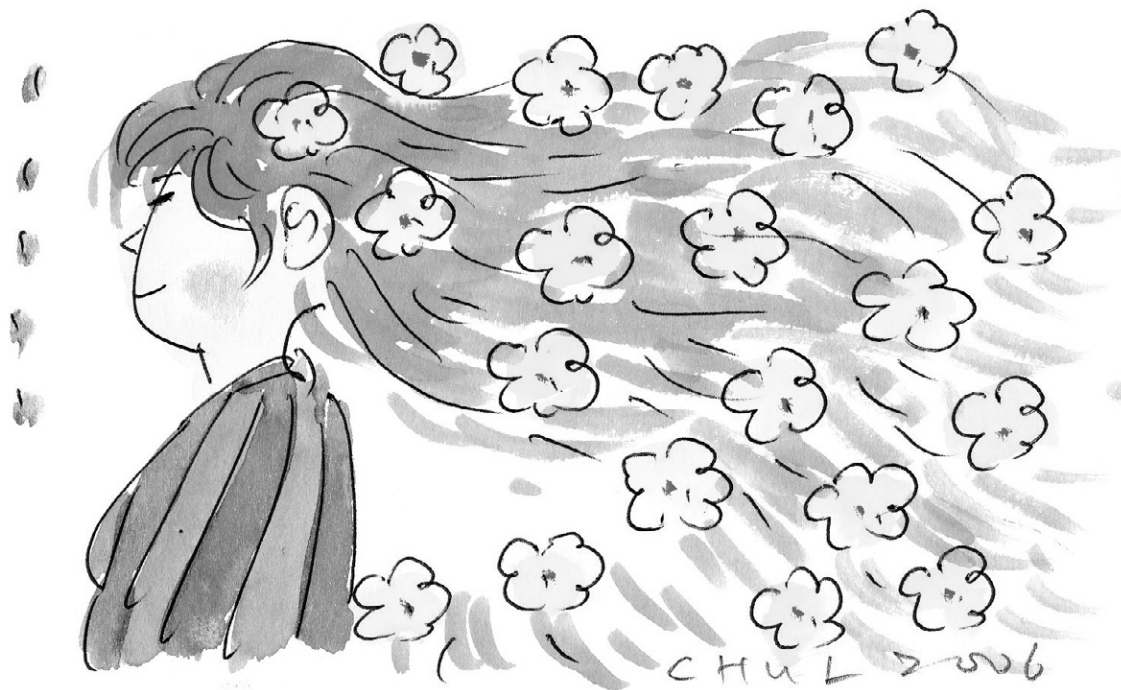
한·중 우의 공원 내 역사관 자료실 개원 예정 건물

저기에 산재하며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는 넉넉하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 보다는 우리의 풍요를 바라보며 또 다른 서러움을 느껴야만 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실이 되었다. 기실 풍요롭다는 생각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땅에서 흔한 비목조차도 찾을 수 없는 분들과 그 분들의 후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어야겠다.

흑룡강성 목단강시는 제법 큰 대 도시이다. 도심 인구가 200만을 넘는 메트로폴리탄으로서 가히 남부 흑룡강성의 중심지이다. 일제는 흑룡강 주변의 자원을 수탈하고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기 위해 목단강시를 개발하였다. 이런 와중에 무수한 우리 민족은 강제로 끌려와 노역과 부역으로 한이 맺힌 곳이기도 하다. 개중에는 독립운동의 후예들이 많기도 했다. 지금은 그 분들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거주하며 한인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목단강시에

서 승용차로 약 30분정도의 거리에 해림시가 있다. 한·중 우의 공원은 이곳의 조선족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다. 이제 막 2개동의 건물이 완성되어 개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곳에 아주 작은 규모지만 그 분들의 후손들과 모든 희로애락애오욕의 오욕칠정을 공감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간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은 인근의 선생님들께서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이 지면을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나아가 여름 휴가 삼아 목단강시의 우리 조선족에게도 진료를 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께 항상 문을 열어 놓으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울진군의사회나 경상북도의사회 또는 전체 의사협회 회원들에게까지 발전시켜 보고 싶다.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었는지 과거에는 미처 느껴 보지를 못했다.



마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느껴본다. 어제 신문에 연예인 가족 차인표, 신애라 부부에 대한 기사가 났었다. 입양한 아이를 위하여 다시 동생을 입양하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편견이 생길까봐 친자식들을 낳지 않았다는 눈물겨운 사연이다.

정말 내 만족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동생을 만들어주고, 또 성장했을 때 자란 환경과는 다르지만 고국의 문화도 알려주고 가르쳐

주고, 진정 한 사람의 완성을 위해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으로 입양한 아이들이 자라서 뿌리를 찾고자 부모의 나라를 찾아오는 뉴스를 접할 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늦가을의 따사한 햇볕을 등으로 받으며 정문 계단을 내려가는 벽안의 청년들의 뒷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골의사의 학교발전기금

백두현 | 고령백의원(고령)



늦깎이 군의관 시절, 비오는 초가을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20여 년 동안 나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날 제대 말년 차인 나는 오랜만에 일곱 살 된 딸 유진과 다섯 살배기 아들 승홍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대구백화점에 쇼핑길을 나섰다. 나 또한 대부분의 군의관들처럼 박봉으로만 생활해야만 하는 전업주부의 남편이었다. 그래서 쇼핑을 나갔지만 대부분을 아이쇼핑으로 보낸 후 몇 가지 생필품을 사고나니 기운도 없고 다리도 아팠다.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유진이는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옆에서 승홍이가 양념갈비를 먹고 싶다고 한다. 큰일이다 싶어 지갑을 열어보니 만원짜리 몇 장이 눈에 들어왔다. 빠르게 머릿속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갈비 3인분과 공기밥 4인분은 될 것 같다(참고로 우리아들은 5살이지만 공기밥 1인분은 꼭꼭 먹는다). 그래서 자신 있게 아이들을 데리고 대구백화점 옆에 있는 원산면옥에 방을 하나 차지하고, 양념갈비 3인분을 시켜서 나는 열심히 구워 딸에게 집어주고, 아내는 아들에게 부지런히 먹였다. 나는 갈비를 구우면서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 고기 딱 두 점만 먹었고, 아내는 배가 부르다고 한 점도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먹였다. 이제 된장

찌개와 공기밥 4인분을 시켜 마무리할 일만 남았는데, 우리 딸 유진이가 양념갈비를 좀 더 시켜 달란다.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돈이 부족한데 큰일이다 싶어 얼굴이 벌겋게 돌아올랐다. 전에는 3인분으로 나와 아내까지도 어느 정도 배를 채웠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니, 내가 전업주부 남편의 군의관이라 외식을 한지가 오래 돼서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걸 계산에 넣지 못했구나 하는 무심함과 돈이 모자라 낭패리는 당혹감이 합쳐져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아이들을 향한 아내의 구원의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공기밥 먹으면 되지 고기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 이제 그만 먹자.”

그 순간 아내가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분명 내가 돈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한 소리였다. 역시 와이프는 최고였다. 그런 천사 같은 아내의 모습에 감탄하며 나는 예전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 행동의 공금증을 풀 수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양복점에서 근무하셨다. 한 달에 1일과 15일 두 번만 쉬었는데 그 고단하고 바쁜 삶 가운데 1일과 15일중 일요일이 겹치는 날에는 동춘유원지로 가족들을 데리고 소

풍을 갔다. 그때 동촌유원지에는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도 있었고, 유람선이나 보트를 타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게 그보다 신나는 일은 동촌장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통닭찜을 먹는 것이었다. 찜닭 한 마리를 통째로 주문하여 나와 동생은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부모님은 그런 우리를 흐뭇하게 지켜보기만 하셨다.

“엄마아빠는 왜 안 드세요?”

동생이 그 모습이 이상했던지 질문을 했다.

“닭다리네 뼈속이 더 맛있단다.” 하시면서 아버지는 닭다리뼈를 깨물어 쪽쪽 소리를 내면서 뼈속을 빨아 드셨다. 어린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난 닭고기는 비려서 잘 못 먹겠더라.”

생선보다 닭고기가 더 비리다는 어머니의 말씀도 선뜻 공감을 할 수 없었지만, 개의치 않고 먹기에만 열중했던 기억이 난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자주 닭고기를 드셨는데, 아버지께서 닭다리뼈를 쪽쪽 빨아서 드시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본적도 없고, 알려고도 한 적이 없었으며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양념갈비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그때 내 지갑에 돈이 두둑이 있었다면 전혀 모르고 넘어갈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네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뒤늦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나도 부모

가 되어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나 보다.

한없이 큰 사랑.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다. 그 20여 년 동안 깨닫지 못한 사랑에 나는 부모님께 내가 있으므로 행복하고, 나로 인해 자랑스러운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어머니의 일류병을 고쳐드리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다.

어머니는 내가 명문대학에 진학하길 원하셨다. 전공을 불문하고 일류명문대학에 진학하길 원하시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한 나의 도전과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하고 나는 지방의 신생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시골에서 개원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마음의 병을 고쳐드리기 위해 나는 모교에 발전기금을 내기로 했다. 지방에 있는 신생의대가 나의 발전기금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일류명문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발전기금으로 인하여 일류명문대학보다 훨씬 나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된다. 그것이 책상 하나, 의자 하나라도 괜찮다. 그 하나가 보여서 둘이 되고, 둘이 모여 셋이 되어 모든 것이 일류명문대학보다 월등해진다면 나의 모교도 일류명문대학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모교를 위한다면 그때가 비록 백년 뒤가 될지언정 나의 모교는 일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리라고 믿는다. 아니 반드시 일류명문대학이 되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라도……

— 어머니의 일류병을 치료중인 시골 의사가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에 다녀와서

성후식 | 한동대선린병원(포항)



행사 전 날, 집에서 12년 6개월 같은 식구로 지냈던 ‘나비(애완견)’가 세상을 떠난 슬픔이 있었지만 이 모임 처음 참석하던 10월 27일은 가을나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멋진 날이었다.

포항 출발지 호돌이탑 앞은 경북과학축제와 나들이객, 그리고 청솔밭식당 피로연 하객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라 길 건너편 주유소 앞에서 다음에 기름 많이 팔아 주기로 하고 관광버스를 잠시 주차하여 회원들을 기다렸다.

선후배님들은 바뀐 집결지로 차질없이 속속 도착하는데, 본회 서영진 재무이사는 3무 인생(no credit card, no cellular phone, not driving a car)이라 연락을 취할 수 없었으나 본인의 탁월한 동물적 감각으로 찾아오에 따라 버스는 정시에 출발할 수 있었다.

경주 법원 앞에서 김장희 경주회장님을 비롯한 경주시의사회 임원님들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올라 가면서 동대구IC, 구미IC, 그리고 김천 IC 에서 그 지역 임원 및 선배님들이 탑승하셨다. 그 중 지난 해 전북의사회 초청 독도 방문시 큰 힘이 되어주신 울릉도 보사부장관(?)이신 정만진 선배님과 전북대 출신으로 김천에서 20년 넘게 개원 중이신 황염 회원의 탑승이 돋보였다.

버스 이동중 김광만 기획이사의 사회로 선배님들의 인사와 소감을 가벼운 음료와 같이 나누었는데, 이 모임을 전국 최초 동서 지역의사회간 친목대회로 발기하시고, 22회 모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신다는 신은식 고문님의 회고를 들으며 (다들 큰 박수) 호남고속도로를 넘어섰다.

전북은 무주스키장을 제외하곤 생애 처음이라 창밖을 유심히 보았는데, 한국의 늦가을 풍경은 그대로 아름다웠다. 이제 해는 지고 어두워져 어느듯 고창군 선운사 자락에 도착하니 풍천장어식당 간판들이 서로 ‘원조’라 주장하며 길 양옆에 도열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일행이 북한 방문 때 이런 환영을 받았으리라. 버스에서 내리는 우리 일행을 전북의사회 회원들이 일렬로 서서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우리를 환대해 주는데,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이는 비굴함(?)을 보였다.

선운사 관광호텔 2층 연회장 테이블에 전북과 경북 회원 반 반씩 미리 배치된 좌석에 앉아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공식행사가 시작되었다. 각 도 의사회 회장 인사 시간에 지금 백혈병 투병 중이신 전북의사회장님 인사를 도병룡 부회장이 대신하여 안타까웠으며 나중 회장님의 완쾌를 위한 건배 제

의가 수 차례 있었다. 내빈으로는 고창군수 이강수님의 축사가 있었는데 국내 유일무이한 의사 출신 지방 자치단체장이라 다들 반기었고(내과의사로 의약분업 투쟁시 열성적이었다 함), 군수님의 부탁처럼 앞으로 의사회 권익을 위해서는 의사 정치가 배출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책임을 서로 통감하였다. 전국에서 많은 의사 출신 정치가가 많이 배출되길 소망한다(그래야 장시간 버스타고 상경하거나 병원 문 닫는 일 없어진다).

이곳 전북 고창은 녹두장군 전봉준, 인촌 김성수, 미당 서정주 등 많은 인재가 배출된 고장이며, 고인돌과 판소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진상품이었다던 풍천장어와 복분자주로 2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혼율이 바로 이 두 식품 덕택이라며 테이블마다 전북 회원들의 권주가 많았다. 이때 조

심해야 하는데... 한두 번 이들을 마음껏 즐긴다 하여 마누라 밥상이 달라지지 않음을 모르는 이 한심한 친구 같으니, 주는 대로 받아 먹었으니... 으이구 으이구...

전북의사회 김병주 명예회장의 건배 제의를 필두로 이원기 경북회장님 및 양 의사회의 쟁쟁한 선배님들의 다양한 건배 제의로 소위 원샷을 마구 날리기 시작했다.

양측 의사회 젊은(?) 임원들의 흥돋우기 서곡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한형원 기획이사는 학창시절 노래로 아마 의대 졸업이 순탄치 않았으리라 생각되었다.

테너 배효근 선배님의 「산들 바람이...」 서양노래에 천희두 전북 명예회장이 「농부가」 한국 전통창으로 화답할 때 우리 모두는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한 장면을 느꼈다.



정만진 선배님은 「독도 아리랑」으로 끝없는 독도사랑을 보여주시고, 원로님들의 흘러간 옛노래가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호프인 신명준 이사의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가 이어지자 선운사 송악홀은 하나의 완전한 동서화합의 장으로 그렇게 깊어만 갔다.

이때 포마드를 듬뿍 발라 짝 넘긴 머리로 나타난 주수호 전국회회장의 입장과 인사말, 그리고 건배 제의. 그야말로 전국에 소문난 경북·전북 친선의 행사임을 알리는 밤이었다.

일단 공식 만찬행사를 파하고, 잠을 청하거나 2차 노래방, 또는 주막으로 삼삼오오 헤어지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유일하게 안면 있는 전라도 친구가 있었는데, 88년 영천 3사 군의 18기 동기이며, 같은 중대장 후보생이었던 여영대 전주시의사회장을 만나 그의 인도하에 맥주와 동동주를 마시고 헤매다 숙소로 들어갔다(이곳 친구들 대화 중 듣는 사투리는 영화 “기문의 영광” 수준이다: ex) ~거시기~).

다음날 아침 관광조와 골프조 두 개조로 나뉘어 행사가 이어졌는데, 나는 골프조로 바다 염전을 막아 조성한 완전한 평지 골프장인 고창CC에 도착했다. 전날 골프 같은 조라 인사하자며 마구 술 권하던 조용원 전북 부의장은 다른 골프장으로 갔다오느라 늦어 전북 이성규 회원과 방인석 부의장, 그리고 황명주 선배님과 한 조가 되어 즐거운 라운딩을 하였다. 남자 캐디가 많다는 것, 그늘 집에서 복분자 마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윙 폼 사진 촬영하여 기념판 판매하는 것들은 경북에서 잘 경험하지 못한 것이리라(관광조도 설명을 아주 잘해준 여자 안내원 덕분에 즐감 하였다 들음).

선운사 부근 풍천장어(tip: 풍천장어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서식하는 장어) 모 식당으로 다시 다들 모여 점심식사와 행사 시상이 있었는데, 룸메이트인 황병욱 경주 부회장과 본인이 메달리스트로, 최호섭 선배님이 등반대회(?) 1등으로 소형 장구를 선물 받았다. 전북 회원들은 시상 대상이 아니었다.

내년에 경북에서 제23회 친선행사를 약속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1박2일의 짧은 행사가 끝날쯤 우리 버스로 각종 전북의사회 정성이 실리는데, 나중 집에서 확인해 보니 고구마, 호박과 오이짬지(?), 복분자, 참기름과 들기름 등으로 정말 향토색이 물씬 나는 농산물이라 감격하였다.

지금도 그들의 음성과 얼굴이 생생하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환대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 친선행사가 어느 선배님 말씀처럼 100회까지는 지속되길 기원하고 내년에 경북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길 기다려본다.

“음 ~ 거시기, 겁나게 잘 놀다 와버렸다아~”

남한산성 그 후 — 김상헌 따라가기

김종규 | 안동병원(안동)



지난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소설은 아무래도 김훈의 『남한산성』이 아닐까 싶다. 소설 속에서도 말들이 많더니만 소설 밖에서도 이 소설을 두고 읽은 이들의 많은 말들이 오갔다. 연말의 각종 문학지에 이 소설에 대한 평론들이 여러 편 실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일반 독자들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에게도 주목을 받은 소설인 모양이다.

작가가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설로 인해 역사 인물 한 사람의 복권이 이루어졌다. 병자호란 당시의 주화파 최명길이다. 최명길은 나약한 지식인,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비겁한 벼슬아치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가, 이 소설을 통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책임감 있는 선비로 다시 태어났다. 독자들은 소설 속의 최명길을 통해 자신의 소시민적 행동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줄인 것도, 자식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도, 가족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은 아닐지. 그래서 이 책을 두고 말들이 많았던 것은 아닐지.

반면 이 소설을 통해 가장 손해를 본 역사 인물은 아무래도 주전파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다. 이 소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개의 화신으로 평가받던 김상헌은 이 소설을 통해 대안부재의 원칙주의자로 평가 절하된 감이 있다. 작가 김훈도 김상헌의 진정성은 인정한 것 같지만 절개를 지킨 강직한 선비로서의 모습은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모두가 죽기로 싸우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임금을 포함해서)은 죽겠지만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 이 나라는 유지될 것이라는 김상헌의 주장을 읽으면서 그의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다른 이들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강직한 역사 인물 한 사람을 잃게 된 안동 촌놈은 서운한 마음이 앞선다. 더군다나 그 인물이 안동 출신임에랴. 그리하여 안동 촌놈은 김상헌의 뒤를 따라 그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면서 조금의 위안을 삼고자 한다.

김상헌의 고향 마을은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素山里) 하회마을에서 멀지 않다. 하회마을 가는 길에 2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면 최소한 김상헌의 시비 앞에서 사진 한 장은 찍을 수 있다. 풍산읍 삼거리에서 하회마을 방향으로 가다보면 처음 나타나는 마

음이 풍산 한지 공장이 있는 마을이고 바로 그 다음 마을이 김상헌의 고향마을인 소산리다. 도로에서 마을로 우회전을 하면 바로 소공원(素山公園)이 나온다.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오른쪽을 보면 10미터 정도 거리에 김상헌의 시비가 있다. 이 시비를 보면 누구나 '아, 이 시조!' 하게 된다. 그리고 소설을 읽는 동안에 이 시조를 떠올리지 못한 자신의 두뇌 활동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울동말동하야라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는가? '울동말동하야라'라고 비장한 시조를 읊고 청나라로 끌려갔지만 김상헌은 3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돌아와서도 김상헌은 꼬장꼬장한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1643년(인조 21년) 김상헌은 고향 마을에 있던 누각을 중건하는데 그 누각 이름을 '청원루(淸遠樓)'라고 지었다. 청나라를 멀리한다는 뜻이란다. 이



소식을 청나라 황제가 들었다면 김상헌을 돌려보낸 일을 후회하며 이를 갈았을 것이다. 청원루는 원래 김상헌의 증조부인 안동 김씨 장동과 파조 김번(1479~1544)이 지은 살림집이었는데 김상헌이 누각식으로 중건하였다. 이곳에서 김상헌은 그의 손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손자들이 중앙 정계에서 출세를 해 후일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뿌리가 된다. 우국충정의 열매가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역설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김상헌의 꼬장꼬장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산(素山)리의 옛 지명은 금산촌(金山村)으로 우리말로로는 쇠미마로 불렀는데 쇠붙이인 '쇠'와 산이란 의미의 '미=피', 그리고 마을이란 의미의 '마'가 합쳐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헌은 김씨의 집성촌인 이 마을의 이름을 금산촌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검소하고 소박한 이름인 소산(素山)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좌우지간 안동 선비의 대표라 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김상헌이지만 김상헌을 기리는 서원을 세우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웬만한 사람은 다 서원에서 모셔지는 분위기였지만 김상헌은 이야기가 좀 달랐다. 그가 서인-노론이 내세우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안동의 유림들은 대부분 남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안동 인근의 모든 선비가 남인 계열은 아니었다. 영조 14년에 안동의 일부 노론계 인물, 문중들을 주축으로 김상헌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였는데 안동의 유림들이 이 건물을 무너뜨렸다. 안동의 유림들은 이 지역에서 노론의 세를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파악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중앙 정가(政家)까지

◀ 김상헌의 시비 (시비 뒷쪽은 하회마을 가는 도로)



청원루, 마당에도 김상헌의 시비가 있다.

확대되었는데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는 서인 계열이었지만 안동의 유림을 대접해줘서 별은 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모양이다. 영조는 서원을 짓지 못하게 했는데도 강행한 관리들을 문책하고 서원을 무너뜨린 안동의 선비들을 귀양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 결국 김상헌의 서원은 세워지지 못했다.

이 마을 인물 중 유명한 사람이 또 있다. 조선시대 청백리의 표상이라고 알려진 보백당 김계행이 이 마을 출신이다. 안동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좋아하는 정자 중의 한 곳이 길안면에 있는 만휴당인데 이 만휴당을 지은 사람이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이다. 그는 연산군 치하가 되자 벼슬을 버리고 길안면 목계리에 은둔했다고 한다. 만휴당에 보면 이런 현판이 있다. 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우리집에는 보물이 없다. 보물은 오직 청백 뿐이다.) 청백리가 어떻게 정자를 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뇌물을 받거나 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그 후손들은 가까운 문중인 안동 김씨 장동파가 조선말 세도정치로 득세를 할 때도 그 세도에 빌붙지 않고 벽촌에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한다.

소산리 마을 앞 언덕에 보면 삼구정(三龜亭)이

란 정자가 있는데 정자 내에 거북이의 모양을 한 커다란 돌이 세 개가 있어 삼구(三龜)라 했다고 한다. 1495년 김영수가 영천군수를 마치고 소산에 머무를 때 그의 형인 김영전, 김영추와 더불어 87세의 노모를 위하여 세웠던 정자로 자기의 어머니는 거북처럼 장수하고 건강은 돌처럼 단단해지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효행도 어지간한 마을이다.

이 마을의 또 다른 특징 중 한 가지는 분명 안동 김씨 집성촌인데 서로 다른 뿌리의 두 안동 김씨 문중이 있는 동네라는 것이다. 안동 김씨는 같은 본을 쓰면서도 뿌리가 다른 두 개의 유력한 갈래가 있다. 한 갈래는 경주 김씨 계열의 안동 김씨로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은열의 둘째 아들 숙승을 시조로 하는 김씨로 '신김' 혹은 '구김'으로 부른다. 다른 한 갈래는 '후김' 또는 '신김'으로 불리는데 고려 개국 공신 대광대사 김선평을 시조로 한다. '신김=구김'의 중시조는 고려 원종 때의 시종이자 상락군에 봉해진 충렬공 김방경인데 '신김=구김'은 이 상락군을 파조로 하는 충렬공파가 가장 번성하였으며 그 후손 중 일부가 소산 마을에 세거하고 있다.

'후김=신김'의 정착 과정은 시조 김선평의 9세 손 되는 김삼근이 비안 현감에서 물러난 뒤 이곳 소

마을에 있는 또다른 시비. 시비의 주인공 김영은, 김상헌의 종증조부이다.



위/ '신김=구김'의 종택 삼소재
중간/ 신김=후김의 종택 양소당
아래/ 삼구정 뜰에 있는 거북 세 마리

산에 정착해 그 후손을 비안공파라 부른다.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은 김삼근의 둘째 아들이다. 김삼근의 큰 아들 계권(係權)의 막내인 영수(永銖)의 첫째인 영(瑛)의 후손이 소산파, 둘째 번의 후손이 장동파(壯洞跛)로 분류된다. 장동파는 김상헌대에 명문으로 떠올라 조선 후기 세도정치의 주인공으로 군림했다.

이 마을의 삼소재(三素齋)는 '신김=구김'인 김용추(金用秋)가 처가 진성 이씨의 재력으로 1674년경에 건축하였다 전하는 집이다. 삼소재란 이름은 김용추의 5대 손인 김종락의 아호이다. 삼소라는 뜻은 '소리(素履)를 행하고(行素履), 소찬(素餐)을 먹고(食素餐), 소산(素山)에 산다(居素山)'는 것이다. 양소당은 '신김=후김' 김씨의 종택이다.

청에 대항해 끝까지 싸우자던 김상헌 이후 안동 김씨 장동파는 명문이 되고 이는 세도정치로 이어져 조선 말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세력이 되어버렸다. 우국지사라 따라간 여정의 끝자락이 그리 개운하지만은 않다. 그래도 김상헌의 시비에서 우국충정을 느끼고, 삼소재에서 소박한 선비의 멋을 보고, 삼구정에서 효를 배울 수 있는 소산리는 한번 짚은 들러볼만한 마을이다.

작은 음악회

류성훈 | 류외과의원(구미)



‘작은 음악회’란 이름으로 가족 음악회를 시작한 지 벌써 4회 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은 그냥 한번 해보자였었는데, 한 회 한 회를 하면서 남는 아쉬움과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욕심으로 어느덧 4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음악회’란 말 그대로 작은 음악회입니다. 무대도 작고 객석도 작습니다. violin이 껑깡이처럼 느껴질 만큼의 초보 violinist로부터 그런대로 악기의 소리를 내는 준 프로급의 연주자까지 연주자의 수준도 다양합니다.

아마추어의 어설픈 연주를 끝까지 참아내야 하는 객석의 인내심에 대한 배려(?)로 초대되어지는 몇몇 프로 연주자를 제외하면 백 프로 아마추어들입니다. 6살 꼬맹이부터 저 같은 마흔 중반의 다양한 연령대와 클래식에서 뽕짝까지의 무제한적인 장르의 연주곡목들, 관, 현, piano, vocal 등 모든 형태의 연주가 무대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의 변화를 주고자 나름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오카리나와 첼로의 듀엣, 첼로 4대의 합주, 2대의 바이올린 같은 것들입니다.

연주회의 내용을 글로 쓰다 보니 산만하기 이룰데 없지만 그래도 연주자들이 가진 분명한 공통점

은 있습니다. 연주자 모두가 저희 가족의 다정한 이웃들이라는 점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5년 전 음악회를 구상할 때도 문화공간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소도시에서 이런 가족단위의 음악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건 아닌가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바이올린을 하는 저의 막내 딸, 피아노와 첼로를 하는 집사람, 그 당시 클라리넷을 배운지 막 1년이 된 제가 겁 없는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말과는 또 다른, 음악을 통한 가족과의 교감, 준비과정에서부터 음악회 후에 가지는 리셉션까지 한 주제를 가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가슴 뭉클함도 음악회를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정에 반해 어려움도 조금 있습니다. 이 곳 구미에는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소규모의 전문 연주홀이 없고 일반 공간에서 연주를 하다 보니 늘 소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따로 빌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가족 일원의 연주는 그 가족 모두에게 최고의 연주입니다.

해마다 연주회는 아마추어와 프로를 포함한 모든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서 하는 합주로 마무리됩니다. 그 합주는 저희 가족에게도 한 해의 행복한 마무리를 의미하고, 내년의 태양을 함께 맞이하는 희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올 12월이 되면 음악회 준비로 저희 가족은 다시 바쁜 행복을 느낄 것이고 연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그 행복을 나누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오르마의 별밤

신명준 | 신명준외과의원(포항)



이 글은 보령의사 수필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을 다시 실습니다.

— 편집자 주

학창 시절부터 지녀왔던 소망 하나가 이루어졌다. 지난 봄, 동료의사 한 분이 아프리카 케냐로 가는 봉사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권유해 왔다. 전공으로 외과를 택한 것도, 사진에 대한 애착도 지구 저편에 자리잡은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과 거기에서 의료 활동을 펼쳐보고 싶었던 꿈과 무관하지 않다.

개원한 지도 어언 십 수 년, '아프리카'는 해마다 화두로 따라 다니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밀려 청년기의 꿈은 아스라이 먼 곳에 접어두고 산다. 지구 저편에 있는 거리만큼이나 가뭏없는 일이다. 서

재 책상 위에 아프리카 사진을 놓고 바라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는 내 마음을 읽었는지 이번에는 아내도 더 이상 말리지 않는다.

여름 방학 기간이라 중국으로 유학 간 만이와 동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승낙을 했다. 팔월 초로 출국 날도 정해졌다. 그런데 아프카니스탄으로 떠난 샘물교회 봉사팀



이 현지에서 납치되어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케냐의 오르마 지역은 이슬람권이라 말리는 사람이 더 많다.

더위와 질병이 기다리는 천애(天涯)의 땅, 물이 없어 일주일동안 세수는 물론 양치도 못한다는 곳, 우리가 먹는 예방약 라리암으로는 듣지 않는 악성 말라리아가 기다리는 곳이다. 종교적 갈등으로 신변의 위협마저 배제할 수 없는 곳으로 아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갈등 속에 운명의 날은 다가왔다. 긴장감과 설렘을 안은 여정은 예상보다 멀고 험하다. 하루 반 동안 탄 비행기 멀미가 채 가실 새도 없이 비포장길을 버스로 몇 시간이나 달린 다음 악어떼 득실대는 황토빛 강물 따라 한 시간을 걸어 목적지인 몸바사 마을에 도착했다.

듣던 대로 물이 귀한 곳이다. 여인들이 머리에 큰 물독을 이고 한 시간을 걸어가서 길어온 물은 누렁고 뿌



영다. 이 물로 생활수는 물론 음료수까지 감당해야 했다. 사람은 참 모진 동물이다. 궁하면 통한다는 옛 말이 명언이다. 그 물에 적응하기까지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가 가져 간 물은 하루 만에 동이 나버리고 말았으니까.

말로만 듣던 열대지방 모기의 극성은 대단하다. 열나고 의심스러운 이들을 PB smear해보면 반 이상이 말라리아 양성 반응을 보인다. 학교 교실을 숙소 삼아 큰 모기장을 치고 자던 일행은 이 소식을 접하자 침낭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썼다. 설핏 잠이 들었다가도 아들이 행여 모기장을 걷어 찰까 봐 몇 번씩 일어나 모기장 끝을 여미곤 했다.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낯선 이국땅 찬 바닥에 몸을 누이고 있어도, 몸은 친근만근 피곤했지만 정신은 초롱초롱하다. 오래도록 바라던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에 나도 모르는 새에 손에는 힘이 들어가고 가슴은 더운 피로 뛰었다.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도 다음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우리 손길을 기다리는 현지인들을 웃음으로 맞았다.

우리의 만남은 의사와 환자로서의 상면을 초월한다. 문명인과 비문명인의 상봉이라고 할까. 타임머신을 타고 만난 현대인과 고대인의 만남이라고

할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 온 그들에게 나의 존재는 어떤 것일까. 티끌만한 경계나 선입견 없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눈망울—지금껏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것은 현지인의 눈빛만이 아니다. 밤이면 별들이 무릎 위로 좌르르 쏟아질 듯하다. 카메라에 담긴 별들은 맑은 구슬을 커다란 바구니에 담아 놓은 듯 영롱하다. 노출 시간을 늘리자 은하수까지 현상되어 또렷하다. 지구상 어디에서 이런 신비를 맞볼 수 있을까? 내가 사진작가라는 사실이 새삼스레 행복하고 창조주의 신비에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싶어진다.

고국에서는 한창 잠에 취해 있을 새벽 세시, 지평선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또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순한 눈빛들은 아침햇살보다 더 해맑기만 하다. 의사는커녕 의술이라고는 처음 대해보는 그들은 구세주를 만난 듯 우리의 손끝에 마냥 천부의 신체를 맡겨놓는다. 그들의 상처를 만지다보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새삼 생각하게 하는 숭엄함이 있다. 요즈음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의사의 진료행위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자괴

감이 들곤 했는데, 의술은 인술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치료했다. 한 주일 동안 돌본 환자의 수가 천 명에 이르렀으니 그 지역 인구의 사분의 일에 해당된다고 한다.

마취제며 주사기 등 외과 진료용품을 다 소비하고 현지 병원에 의뢰하여 가져 온 것조차 동이 나 버려 내과 진료를 하게 되었다. 준비해 간 발전기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 초음파 검사도 하고 밤이면 주민들에게 영화 상영도 했다.

힘들어도 아들과 함께 보낸 탓인지 일주일이 하루처럼 짧다. 아들에게, 학비 벌여주는 사람, 엄마에게 잔소리 듣는 사람쯤으로 비쳐졌을 아빠의 존재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았을까. 부자 사이가 한 뼘은 더 가까워진 듯하다. 공부 때문이긴 세월 떨어져 지낸 아들은 어느 새 훌쩍 성숙해져 내 곁에 한 걸음 다가와 있다.

떠나오는 날 아침, 열 살쯤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타났다. 손바닥에 깊은 열상을 입고 있었다. 넘어지면서 예리한 물체에 베어져 손바닥 피부판이 훌렁 벗겨졌다. 인대와 혈관까지 노출되어 있다. '저 상태로 며칠만 두면 불구가 되고 말 것이다'는 긴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짐을 풀었지만 실과 바늘뿐, 마취제는 동이 난 상태였다. 참을 수 있다며 이를 악문 꼬마를 한 바늘 한 바늘 꿰맬 때 전신에서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소년의 입술 사이로 표현 못할 신음이 새어나왔고 초조와 긴장의 시간이 흘러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할, 마취 없이 봉합하는 긴 시간을 그는 '아이'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본 일행은 기도를 올렸고 사진을 찍는 이도 있었다. 처치를 끝내고 피 묻은 손으로 그를 꼭 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돌아오는 비행기 속, 눈을 감으니 지난 한 주일

이 영상으로 떠오른다. 머리 위로 쏟아지던 별빛이며 아픔을 참던 소년의 얼굴이 떠오른다.

무릇, 생명은 소중하다. 누구나 축복 속에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명의 혜택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아프리카—사고로,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 속에 속수무책으로 던져진 사람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일생 동안 한 번 경험해 볼까 말까하는 치명적인 말라리아를 일 년에 몇 차례씩 앓아도 의료혜택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풀잎처럼 스러져 간다.

아내와 한 약속을 되짚어 한 번 더 다짐한다. '나의 손길 기다리는 그들을 찾아 일 년에 한 두 달이라도 봉사하며 살리라. 아이들도 저만큼 성장하여 아빠의 숨은 모습까지 이해하게 되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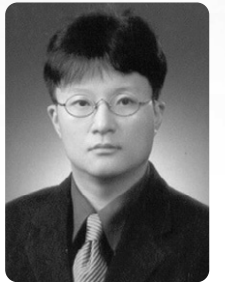
봉사 활동한다며 찾아간 아프리카 오르마는 내가 가져 간 어떤 약, 어떤 의술보다도 더 크고 진한 감동을 거꾸로 내게 안겨주었다. 학창 시절부터 꿈꾸었던 아프리카, 그 열사에서의 한 주일은 오르마의 빛나는 별처럼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보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감격의 순간들을 담아 사진 전시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를 위해 수시로 온라인상의 만남을 갖고 있다. 컴퓨터에 소년의 손을 꿰매던 수술 장면 사진이 올라와 있다. 사진 밑에는 상황 설명과 함께 수술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더라는 글귀가 있다. 정작 안아줄 때의 사진은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순간에 저도 같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사공정규 | 동국대학교경주병원(경주)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적과 흑」을 쓴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스탕달이 한 말이다. 스탕달은 자신의 비석에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라는 글을 새겨 달라는 유언을 남긴 사람이다. 그의 소설 속에도 보면 지식이나 명예 권력 등을 갖추고도 이기심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고독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잘 등장한다.

우리 현대인들도 너무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주위를 돌아볼 여유 없이 마냥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남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로부터 남보다 더 대우받고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친 사람은 정작 남을 인정해주거나 대접해주거나 사랑을 베풀지는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인간관계는 역시 부부관계일 것이다. 물론 말만 부부이지 사실은 원수지간(?)인 가정도 있을 수 있겠다. 하여튼 부부관계도 서로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만큼이나 너를 위해 해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 준 것이 뭐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대상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지배

욕이나 독점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사랑을 주고 싶고 주어도 아깝지 않고 주어서 스스로 기쁜 것이라 생각한다.

녹색시대의 <사랑을 할거야>를 들으면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온다.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참아야만 하는 걸, 사랑을 할거야 사랑을 할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이 노랫말처럼 이렇게 자기는 주지 않고 끝이 없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 이것이 사랑 중독증이다.

사랑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은 남에게 사랑을 줄줄도 모르고 항상 사랑과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들은 남들이 잘 해주다가도 조금만 잘 못하면 난리가 난다. 마약 중독 환자가 마약을 계속 맞다가 맞지 않으면 금단증상으로 인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랑중독증에 걸려 있으면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아도 항상 불평 불만이고, 의존심이 강하다. 어린애 같은 마음과 정신 불건강의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아주 어린 젖먹이일 때는 혼자서 아무 것

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의존상태' 이기 때문에 부모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랑이 필요하다. '젓 먹는 힘으로 버틴다'는 말도 있다. 유아기 때 먹은 어머니의 젓힘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랑중독증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기처럼 젓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울고 칭얼대는 유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그에 걸맞게 성숙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정신건강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 곧 받는 것, 다시 말해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이다. 탁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저쪽에서 서브가 넘어오면 그 공을 잘 받아넘기는 것이 곧 주는 것이다. 서브를 잘 주면 좋은 공이 넘어오고, 모서리를 찌르면 상대는 스핀을 넣어 더 까다로운 공으로 응수한다. 물론 친선게임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다. 바보처럼 국제선수권대회에서 '좋은 공'을 넘겼다가는 욕바가지로 뒤집어쓴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이다. 탁구로 치면 친선게임이요, 놀이로 말하면 사랑 놀음이다. 사랑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은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도 안다. 사랑을 줌으로써 곧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가? 한참 열애중인 사람의 얼굴이 어

둑다거나 슬프거나 우울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웃음과 밝은 표정은 상대를 즐겁게 해준다.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생긴 게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예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뇌변연계' 속에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는 이 편도체가 "아! 우리 주인님이 사랑을 하구나. 아 기분이 너무 너무 즐겁다. 좋으니 열심히 일을 하자"며 정신계를 풀가동시켜 우리 몸에 갖가지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도파민, 페닐에틸아민, 엔돌핀,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들이 조화로운 작용을 일으켜서 피부색을 좋게 하고 눈빛에 생기가 돌게 한다.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은 심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타당하다.

거기에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사랑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노화도 억제해준다. 사랑의 감정이 인체에 주는 좋은 영향은, 비단 남녀간의 사랑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 자식간의 사랑,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고 남을 배려하는 베푸는 사랑을 할 때도 우리 몸은 좋은 호르몬이 샘솟아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사랑은 진심으로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을 베풀 때 남을 도울 때는 깨끗하게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한다. 베풀면 자신의 마음이 평화와 사랑의 충만해진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그런데 사랑을 베풀면서도 깨끗하게(?) 주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다. 아니 많이 있다. 나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는 경우이다. 물론 하찮은 것이라도 미련이 남을 수 있다. 친구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해주었는데, 집에 가서 "아이구 내가 미치지 그 아까운 것을 왜 줘"하며 끽끽거리면 화병만

난다. 다음 날 아침 친구 집에 가서 도로 빼앗는다면, 안 준 것만 못하다.

결혼식에 가서 "내 성의다. 조출하다. 부담 갖지 마라, 축하한다."면서 축의금을 낸 후 집에 가서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에 그 친구가 자기에게 내는 축의금과 비교해서 적으면 "아니 왜 내보다 적게 내는거야, 그 동안 물가 오른 것 만해도 열만 데, 이 나쁜 놈."하며 흥분하면 자신의 몸만 상하게 된다. 삼만원을 넣는다는 게 실수로 십만원짜리 수표가 하나 섞여 들어간 봉투를 냈는데 친구가 달랑 3만원을 내고 갔다면, 그건 아예 피 토할 일이다.

마음을 비우라. 아이를 키울 때도 '뒷날'을 바라면 안 된다. "아, 내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길렀으니 나중에 효도하겠지" 이런 마음까지도 버려야 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다. 자녀가 잘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게 대하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워는데……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공부시켜 뿔뿔히 제 마누라 밖에 모른다."고 성질을 부리면, 아들도 며느리도 더 멀어진다. 아니,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며 봉양 받겠다는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결혼 이후 줄곧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나의 처에게 감사와 사랑하다는 말을 전한다.). 따로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니, 이렇게 잘 키워 주셨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라고 할 때 그때는 감동도 더 크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미 커 가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너무나 많은 기쁨과 보람을 주었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자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답은 '기르는 기쁨'으로 충분하다.

무엇인가 바라고 주는 경우에는, 설사 똑같이 100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욕심에 의한 주관적 판단으로 항상 서운해 한다. 그러나 깨끗하게

(?) 베푸는 봉사심(심봉사의 미국식 이름이 아니다)은 내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사회에서의 자신의 진정한 자존심을 높여준다.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 사랑의 마음 봉사의 마음(이 역시 시각장애인의 마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을 가질 때, 우리 몸에는 좋은 물질이 샘솟는다. 지금 당장 한번 실천해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이는 또한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건강하지 못할수록 줄 줄은 모르고 받는 것에만 혈안이 된다. 그런 사람은 주어도 고맙게 받지도 않는다. 어쩌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도 받으려고 주기 때문에 뒷맛이 좋지 않다.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에게 잘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든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정신건강이고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라는 것이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것 이는 정신이 불건강한 것이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몸도 마음도 예뻐집니다.

9할 불변의 법칙

전우진 | 동산종합의원(봉화)



9할 불변의 법칙?, 질량불변의 법칙은 들어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법칙을 떠올리는 것 같군요. 이것은 제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물리학이나 정신과학 분야에서 인정받은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아 적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쉽게 바뀌어 지지않아 90%는 본래 모습 그대로이고 10%정도는 개개인의 능력, 의지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면은 그 사람의 성격, 일 처리하는 방식,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포함합니다.

꼼꼼하고 차분한 사람이 털털하고 호인같은 사람으로 변하기 어렵고, 일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느긋하게 앞뒤 가려가면서 일하기 힘들고, 국민이 잘 살기위해 분배를 잘해야 한다는 사람에게 성장이 먼저라는 얘기를 해봐야 거의 소용없는 일이지요. 그만큼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는 극히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100분 토론을 즐겨 보는데, 이 편 저 편 나뉘어져 앉아서 설전을 벌이는 걸 보고 가관이라는 생각을 했죠, 토론이라고 했지만 싸움판 비슷했다고 기억됩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로 봅니다. 원래 90%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가 상대편을 설득하

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 본인은 안바뀌고 남만 바뀌려는 태도로 밀어 붙이는데 불쌍사나울 수밖에 없고, 게다가 사회자는 합의도출을 하려는 생각도 문제죠, 그저 시청자가 현안을 이해하고 정보를 전달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끔은 10%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변수가 되고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시간의 함수가 작용하고 정보라는 변수가 그 factor로 작용합니다. 처음 시작한 10%가 90%로 역전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대통령후보에 대해 그 관련된 책을 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 시간이 지나면 호의적으로 변하여 추종자가 되기도 합니다.

9할 불변의 법칙의 예는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근무하던 직원이 느닷없이 그만둔다 할 때, 난감하여 이러저러한 말로 회유되는 경우는 10% 미만이지요. 90%는 그대로 나가죠. 10% 안에 들어 있어도 결국은 그만 둡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뿐이지요. 설득하고 달래는 시간만 허비되는 거죠. 오히려 꽤 씩씩한 마음을 바람에 날려 보내고 그만 두는 직원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10%에 오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9할 불변의 법칙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달콤한 honey period는 대개 3~6개월이

면 끝나고, 현실로 와서 살게되는데 '기선제압', '길들이기'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자기에게 맞추어 살기를 고집하며 바꾸려고 애씁니다. 이 과정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저는 늘 아침을 밥, 국, 반찬의 전통적인 식사로 하고 새벽 5~6시에 나가도 밥을 꼭 챙겨먹는 집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입니다. 저희 집사람의 가정은 대부분이 빵과 우유, 계란 등의 서구식 식습관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힘든 레지던트 시절인데 아침에 덩그런 빵 1개와 우유 한 잔에 기가 차더군요. 갑자기 세상이 허망해지더군요. 왜 사느냐 싶기도 하고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여러 차례 얘기도 했지만 그때뿐 환경적 요인은 어쩔 수 없더군요. 부전자전으로 아들도 밥 타령일 때 한마디합니다.

“우유 1잔과 빵도 괜찮아”

요즘 애들 못살게 구는 선행학습, 여기도 9할 불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에 1~2년 갔다오면 영어를 마스터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남아줌마들이 많이 퍼뜨려놓은 수가 많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95점 성적의 아이들 유학 보내 정말 영어 잘하는 학생으로 변화시켜 오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원래 잘하는 자녀를 내몰아 빨리 가게 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유학 안 가도 그 애는 잘하는 학생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잘하는 9할은 역시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학 다녀온 후 영어 잘 하는 학생을 보고, 70점하는 학생부모가 학생을 유학 보낸들 100점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조금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 3 시험 한번 잘 칠려고 3~4살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초딩은 영어 유학 떠나고, 이해 잘

안되는 수학 2차방정식 공부하고, 보일 사들의 법칙 공부하고, 중딩은 양극화되어 공부그룹은 고딩 선행공부하고, 비공부 그룹은 포기하고, 고딩은 헛갈리는 교육정책에 여기저기 줄서고 있습니다. 고 3 때 한번의 시험을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고, 억지로 바꿀려면 그만큼 분쟁의 댓가만 필요없이 치를 뿐이지요, 있는 그대로 보고, 서로의 견해가 틀리면 본인이 바꾸면 늘 순조롭다고 여겨집니다.

장점은 칭찬으로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인정하되 적당한 코멘트를 가미해서 봐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받아 들이지 않는 코멘트를 자꾸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인이 정한 '9할 불변의 법칙'은 저의 소견으로 봐주시고, 이것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인정(9할이 안바뀌니 받아들이고 이해하자)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과 달리하는 선생님도 계시리라 보고, 또 다 아는 얘기라고 하시는 원로선생님도 계시리라 봅니다. 병원직원 관리의 애로사항을 이로써 극복한 저의 이론일려니 하고 너그럽게 봐주기를 바라웁니다.

9할 불변의 법칙으로 적지않게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딩 6학년 제 딸에게 영어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에 대해 누차 설명해주고도, 또 모를 때, 2차방정식의 해법에 대입법을 여러 번 말해주어도, 머뭇거릴 때 이제는 결단코 쉬지 않습니다. “긴 한숨을” 이제는 결단코 줍니다. “사랑스러운 눈길을”

정상렬과의 만남

김민섭 | 군위군 의흥면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이 글은 신문 청년의사에서 주관,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7회 한미 수필문학상 장려상'에 입상한 작품을 다시 실습니다.
— 편집자 주

한쪽에서는 십여 명의 발자국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다른 쪽에는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는지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간간히 욱지거리가 들리기도 하고, 한숨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드물게는 짧게나마 싸움이 터지기도 한다.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복합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10평 남짓한 사무실 안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여름에는 말도 못하게 더운 곳이고, 난방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겨울에도 춥지 않으리라는 생각마저 드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이고 그것도 다 덩치가 웬만큼 되고 목소리가 커서 항상 시끄럽다. 그래서 차분한 사람들도 여기서 생활하다보면 금방 득음(?)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목청이 커지는 것 같다.

공중보건의 1년차 때 있었던 교정시설 의무과의 한 모습이다. 그때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다. 하루에 거의 150명씩 일주일에 5~6일(그때

토요 휴무는 월 2회이었다) 그렇게 한 달에 3천명이 넘도록, 일년 동안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고 뭔가 적어 넣고 그렇게 지냈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일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출근하면 오전에는 사동별로 진료 받을 재소자들을 데리고 온다. 매일 같은 얼굴을 보기도 하지만 새로운 얼굴들도 상당히 많다. 신입들은 무조건 데려오기 때문이다. 수용 인원이 700명 정도되는 중소 규모 교정 시설인데도, 세상에는 참 죄짓는 사람들이 많은가보다. 매일 구속되는 사람만 해도 이렇게나 많다니. 그렇게 오전에는 꼼짝하지 않고 계속 진료만 본다. 오후에는 그나마 조금 한가한 편이지만 정말 힘든 일은 오후에 생긴다. 정기적인 오전 진료가 아니고 오후에 진료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도 된다. 사실 정말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바깥세상에서 제가 대장인 듯 호령하며 살다가 그 좁은 감방에 들어와 지내려니 무지하게 답답할 테고 그러다 보

“

어제 아무 말 없이 가던 정상렬 윗모습에서 조금은 눈치 챘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전해들으니 기분이 참 좋았다.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혹시 밖에서 정상렬을 만나도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후후.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내가 정상렬에게 잘못된 일은 없는 듯한데, 그래서 더 답답했었는데, 이제야 몇 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듯했다.

”

니 잠시나마 감방을 나오기 위해서라도 진료를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보니 소위 '짜퉁' 환자가 무척이나 많아지는 것이다. 또는 화가 나서 그걸 의무과에서 터뜨리려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의무과 직원들이 다독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재소자들을 다룬다.

어느 날 오후 전화를 받던 직원 얼굴이 어두워졌다.

“야, 정상렬이 또 왔단다.”

정상렬. 그 이름을 어찌 잊어버릴까? 30살에 키 185cm, 몸무게가 120kg가 넘는데 그 120kg는 전부 다 근육덩어리이다. 조직폭력집단의 중간 간부쯤된다고 하는데, 온몸이 칼자국 투성이고 성질이 몹시 좋지 않은데 더군다나 마약사범이다. 이 인간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듯하다. 제 뜻대로 되지 않거나 화가 나면 자해소동도 무지하게 많이 벌였다고 한다. 한번은 교정시설 내에서 머리를 박아 실신하기도 하고, 볼펜 스프링을 몇 개씩이나 삼켜서 병원으로 나가서 내시경으로 꺼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날카로운 게 있으면 전신을 상처 내는 것도 다반사다. 그래서 그 인간은 무조건 독방이고, 진료도 단독으로 하며, 해달라는 것은 거의 다 해

준다. 안 그러면 교정시설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는 약간씩 추워지기 시작한 10월말이었다. 그 힘들다는 교정시설 공보의도 이제는 적응되어 가고 그리고 곧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희망에 부푼 때였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재소자들이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그렇게 짜증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도 한쪽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그렇게 재소자들 다루는 법도 나름대로 터득했다고 생각했었고 자연스럽게 생활도 편해지던 때였다. 그런데 정상렬은 좀 달랐다. 정말로 무서운 게 없는 건지, 아무데서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주먹이 날아다니기도 했다.

한번은 오후에 정상렬이 진료를 받으러 나왔다.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 미치겠습니다.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네요. 막 빈혈기도 있는 것 같고, 어제부터 화장실에서 변도 잘 못보고 팔다리도 막 쭈십니다.”

“정상렬 씨는 지금 이미 진통제랑 근이완제를 최대로 먹고 있거든요.”

“그거 먹어가지고는 태도 안됩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남들 5cc하는 뽕을 30cc씩은 했습니다. 그래도 끄덕 없었고요. 혹시나 어디 아파서 약 먹는 다카면 진짜로 한번에 열 개씩은 묵습니다. 좀 다른 걸로 해 달라니까요!”

슬슬 짜증이 났다. 혼자서 고래고래 고향지르며 말하는데, 이거 정말 너무 제멋대로 아닌가하는 생각이 났다. 보아하니 주사 맞고 싶어서 온 듯한데, 다른 재소자들에게는 웬만하면 안 주는 주사를 이 사람이라고 꼭 줘야 하나? 그런데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우리 의무과 직원이 계속 이런 말을 한다.

“쇼패낙 IM(근육주사)으로 하나 좀…”

평소 같으면 직원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냥 주는데, 그날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안 준다는데, 저런 제멋대로인 재소자가 뭐 어쩔 건데? ‘나도 이 바닥 알만큼은 안다고!’ 이런 오기가 생겨서일까?

“정상렬 씨한테 약을 그렇게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약 용량도 있는데…”

“뭐라고! 이 ×××이?”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먹 휘두르는 소리를 들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정말로 큰 거 한 방 얻어맞을 뻔 했다. 체중을 실어서 휘두르는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싶을 정도였는데 자칫 거기 내 턱이 스쳤더라면 이빨 두 개는 날아가지 않았을까.

순간적으로 사무실 내의 직원들 5~6명이, 전부 달려들어 팔 하나에 한 명씩, 허리에 2명이나 달라 붙어 제지하고 있었는데도 정상렬이 움직일 때마다 직원들은 이리저리 휘청댔다. 그 길지 않았던 시간 동안 온 몸의 교감신경이 찌릿찌릿해 왔다. 예전 의대 시절에 생리학 교수님이 교감신경과 부

교감신경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교감신경이 발현할 때는 앞에서 미친 개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었는데, 바로 그 상황이거나, 이런 게 바로 공포감이구나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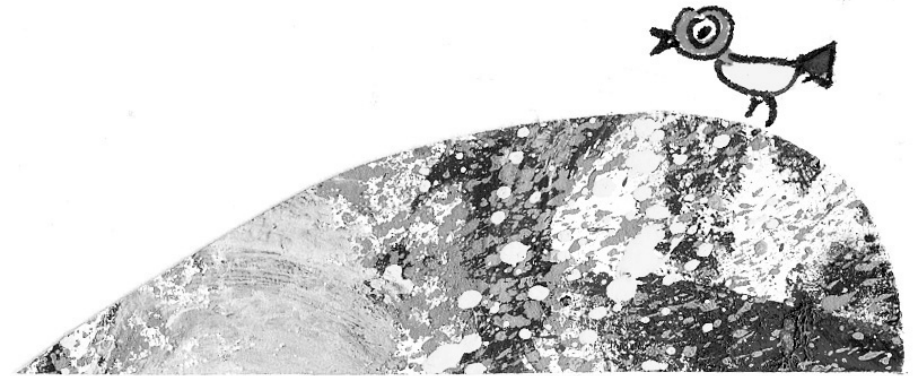
머칠이 흐른 후 정상렬을 또 한번 마주치게 되었다.

“그렇게 살지 마. 이 ×××아, 내가 밖에서 만나면 진짜로 직이뽏다.”

참 마음이 그랬다. 출근하기도 싫고, 사실 겁도 좀 나고 빨리 이곳에서 떠났으면 하는 바램뿐이었다.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뭔가 사고가 났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정상렬이 자해를 했는데, 머리가 많이 찢었다고 한다. 젠장. 이거 정말 뭐야. 의무실로 온 정상렬은 머리에서 피가 참 많이 나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의식은 있었고 호흡, 혈압은 괜찮았다. 지혈을 하고 머리 X선 촬영을 했는데, 두개골은 그래도 괜찮아 보였다. 찢진 두피를 보고 께맸다. 워낙 많이 찢어서 꿰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덩치도 크고 마약도 많이 하던 사람이라 마취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고민했었는데, 희한하게도 마취가 잘 됐는지 전혀 아프다는 내색 한번 앓고 가만히 누워서 치료를 받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워낙 많이 싸워서 웬만한 통증은 느끼지도 못하는 건가?’ 시원한 계절이었는데도 좀 더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땀이 한 방울 정상렬이 누운 침대에 떨어졌다. 검은색 계통의, 조금은 딱딱한 처치실 침대라서 땀이 떨어지는 소리가 특하고 들렸다. 사실 내가 봉합이 그렇게 익숙한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방안이 더 덥게 느껴졌을 것이다. 더군다나 환자는 정상렬이 아닌가.



“다 됐습니다.”

마침내 봉합을 끝내고 머리에 감긴 새하얀 붕대를 보니 그렇게 미쳐 날뛰던 재소자가 이제는 환자로 보였다. 그렇게 정상렬은 챙겨준 약 봉지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선생님 수고했어요. 잘하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한마디 했다. 봉합을 잘했다는 건지, 정상렬한테 잘해줬다는 건지 조금은 모호한 느낌이었다.

다음날 다른 직원이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줬다.

“정상렬이가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말 좀 전해 달라네요. 니가 직접하라고 했더니만 얼굴 보기 좀 미안하다고 해서요. 원래 양아치들이 좀 그렇잖아요. 남한테 욕박지를 줄만 알지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잘 못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때 일 마음 그만 푸세요. 허허.”

어제 아무 말 없이 가던 정상렬 뒷모습에서 조

금은 눈치 챘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전해들으니 기분이 참 좋았다.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혹시 밖에서 정상렬을 만나도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후후.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내가 정상렬에게 잘못된 일은 없는 듯한데, 그래서 더 답답했었는데, 이제야 몇 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이제 구치소를 떠나 대구 부근의 보건의소로 옮기게 되었다. 구치소를 떠나는 마지막 날 우연히 정상렬을 만났다. 옆에 있던 직원이 말했다.

“야, 인사해라. 선생님, 이제 여기 떠나고 대구 근교로 가신단다.”

“아, 예. 그러십니까? 대구요? 대구라카면 저는 대구교도소, 화원교도소 밖에 모르는데, 왜 그리 멀리 가십니까?”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도 웃을 수 있어 참 좋았다. 그 동안의 앙금이 정말로 말끔히 사라져 버린 증거겠지? 구치소를 나와 걸어가는 발걸음이 정말로 가벼웠다.

Carpe diem의 미학

정연재 | 영덕군 축산면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이 글은 신문 청년의사에서 주관,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7회 한미 수필문학상 장려상'에 입상한 작품을 다시 실습니다.

— 편집자 주

의사들이 가끔 매너 없는 환자를 칭하는 비속어 중에 'KBS'라는 말이 있다. 풀이해본즉슨 '개백성'이라는 아주 흉흉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용어를 차트에 기록해 둬으로서 이런 특성을 가진 환자가 다시 내원할 경우 참고 목적으로 곧잘 이용한다. 현재 의료계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체감하듯 의사의 권위와 전문성이 무시되고 의사-환자 사이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Rapport) 또한 그 고색창연했던 색채가 빛바래져 버린 지 오랜 듯하다. 이런 흉흉한 비속어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는 현상이 어찌면 이 시대 의료계의 서글픈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탄하며 "의사는 사람이니 예수가 아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되었던 한 개원의의 절박한 외침은 아마도 울분에 찌들어 있는 요즘 의사들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듯도 하다.

이런 현실과는 동떨어져 나는 동해안의 바닷바람 부는 어촌마을에서 공중보건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바닷바람을 한차례 쐬 후에 사랑

스런 아내가 준비해 주는 아침식사를 하고 관사 내의 숙소를 나선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저녁까지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상기도 질환으로 내원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상담과 진료도 한다. 종종 군에 나가 보건소 진료를 할 때도 있지만 주말에는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여가생활도 즐기는 편이다.

그런데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통해 흡사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한 의료계가 흘러가는 동향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바깥세상은 나와 다른 차원의 세계인 듯한 착각이 들 때가 있다. 허나 공중보건의 신분인 내가 한숨을 쉬고, 핍박받는 의료현실을 개탄한들 달라질 것은 없기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했던 대사처럼 현재를 즐기고(Carpe Diem)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공중보건 시골의사로서의 삶에 충실하기로 마음먹고 있다. 어떤 면에서 현실도피와 은둔의 생활이 되는 듯도 하지만 이곳의 비릿한 바닷바람 속에서 구수함이 묻어나는 어르신들의 얼굴

“오늘 내 소장님하고 약속한대로 술은 안 먹었소. 잘 했지요?”

환자의 주름진 눈가 위로 구수한 눈웃음이 피어오른다. 누가 취하지 않은 이 사람을 전과자에다 망나니 'KBS'로 생각하겠는가? 되도록 오해가 없도록 환자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자초지종을 얘기해 드렸다. 잠깐 심각한 표정이 되긴 했지만 곧 원래의 표정을 되찾은 환자가 대학병원에 가야 치료가 된다면 그리하겠단다. 미리 작성해 두었던 진료의뢰서를 환자의 손에 들려주고 나서 환자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다.

주름을 마주하는 일이 이따금 내 가슴 속에서 작열하고 있는 의사로서의 열정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될 때도 있다.

몇 개월 전 50대 후반의 남자 환자 한 분이 술에 잔뜩 취해 지소에 내원한 적이 있었다. 대개가 그렇듯이 이런 경우 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와 소통이 잘 안되어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다. 마음속으로 "KBS 한 명 떴구나!" 싶었다. 진료실 밖에서부터 혼자서 10원짜리 욕을 연신 중얼대며 접수도 안 하고 여사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진료실 안으로 돌진해 온다.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고 자리에 앉도록 했는데 앉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며 벼락같이 진료실 책상에 강스파이크를 날린다. 일순간 화가 나는 걸 꼭 참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정중히 물었는데 내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짜고짜 자신의 과거사에 대한 긴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여곡절이 많아 감옥에 들락거린 얘기하며 집사람이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간 얘기,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린 얘기 등등 자신이 술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구절절한

사연을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환자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누그러졌지만 환자의 얘기는 끝없이 계속되었다. 이런 경우 얘기에 말을 끊으면 환자가 야수로 돌변하는 경우를 몇 번 겪어봐서 조금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자리에 앉은지 약 20분 정도가 지나서야 환자가 내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일단 나긋나긋한 말투로 서두를 열었다.

“살아오신 게 참 우여곡절이 많으셨네요. 많이 속상하신 어르신 마음 심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여기까지 발걸음하셨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대뜸 양말을 벗고서 진료실 책상 위에 자신의 한쪽 다리를 올려놓는다.

“나가 말이요. 이쪽 다리가 아파 죽겠소. 이거 뱀에 짙은 엑스레이 사진도 수백 장이 넘소. 근데 저게 가면 허리에 척추신경이 잘못돼서 그렇다 카고 여개 가면 당뇨 뱀에 신경이 닳아서 글타 카고 근 반년을



여개저개 땡기바도 암 것도 안 낮고 마 다리 빙신 이 돼 가고 있는기라. 내가 침부터 허리는 안 아팠는데 허리 척추신경이 어찌네, 저찌네... 확 불을 썩질러빨라, 마 ○○”

그러면서 환자는 10여 분 이상 동안을 세상에 대한 한풀이로 일관하며 신세한탄을 해댔다. 간신히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킨 후 힘겨운 줄다리기 문진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환자가 10여 년 동안 당뇨를 앓아왔고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술과 담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정도였다. 일단은 진료실 침대에 눕히고 간단한 이학적 검사를 해보았다. 건측에 비해 환측으로 약간의 근육 위축이 있긴 했지만 시진상 다른 특이소견은 없었다. 하지 직거상 검사, 패트릭 검사와 하지관절 가동역 또한 모두 정상이었다. 압통이나 스트레스부하 검사에도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았고 요천추부 시진, 축진상에서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현대 건측에 비해 환측 슬와동맥과 족배부 동맥의 맥동이 유난히 약하게 촉지됨을 알 수 있었다. 양측 장골동맥의 맥동이 비교적 정상인 걸로 보아 그 이하 레벨에서 혈관성 파행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자가 찾아왔다고 하는 병의원의 선생님들이 몰라서 놓쳤을 것 같지는 않았고 아마도 환자가 만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았고 또 병의원 특성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문진이나 이학적 검사를 할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숨이 나왔다.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곧이곧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모로 사회경제적 지지기반이 불안정한 환자의 특성상 자신의 질환을 치료해 보겠다는 노력보다는 이차적 이득을 노린 여러 가지 문제만 파생시킬 게 불을 보듯 뻔했다. 일단 환자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

어 환자 자신이 질환을 치료해 보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되었다.

“어르신, 이렇게 아프신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술을 드시는 건가요?”

그러자 환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각질이 뿌옇게 일어나고 거칠어져 고목과도 같은 그의 새까만 손을 꼭 잡고 나도 한동안 침묵을 유지했다.

“내가 말ियो. 이 날 이 때꺼정 여개 살면서 날 사람거치 봐 주는 사람을 못 봤소. 같은 동네사람들도 날 전과자라꼬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다리가 짜개질 거거치 아파서 병원가도 술 취했다고 아무도 내를 인간거치 안 봐 주고... 내가 마 하루에도 몇 번씩 주거뿌고 시픈 땀이 드는기라. 불쌍한 우리 노모 없었쓰면 내사 마 농약묵고 주거뿌도 몇 번을 주거뿌을 거요! 흐흑...”

환자는 서러움에 복받쳐 어깨를 들썩였다.

“어르신.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르신이 다리 안 아프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고개를 들고 시뻘겋게 상기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모요.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줄라 카는데 내가 사람이모 소장님 말을 안 들어야겠습니까.”

순간 나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느낌이 벅차올랐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나에게 더 이상 ‘KBS’ 가 아니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따뜻한 손길이 너무도 간절한 가엾은 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일단 다음날 술을 드시지 않고 내원할 것을 약속받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환자가 지소 문을 나간 후에 난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만성적인 경과를 취해오신 분이래 당장 응급조치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도플러나 동맥조영술 등을 할 수 있는 혈관외과가 있는 대학병원급으로 가야 할 것인데 과연 환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일 술을 안 드신 상태로 내원하시긴 할 것인가? 이런저런 상념이 교차했다.

다음 날이었다.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무언가가 든 조그만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누군가 지소 안으로 들어왔다. 어제 그 환자였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온다.

“오늘 내 소장님하고 약속한대로 술은 안 먹었소. 잘 했지요?”

환자의 주름진 눈가 위로 구수한 눈웃음이 피어 오른다. 누가 취하지 않은 이 사람을 전과자예다 망나니 ‘KBS’ 로 생각하겠는가? 되도록 오해가 없도록 환자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자초지종을 얘기해 드렸다. 잠깐 심각한 표정이 되긴 했지만 곧 원래의 표정을 되찾은 환자가 대학병원에 가야 치료가 된다면 그리하겠단다. 미리 작성해 두었던 진료의뢰서를 환자의 손에 들려주고 나서 환자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다.

“잘 다녀오십시오. 어르신! 다리 치료 잘 받고 돌아오시면 당뇨조절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치료 잘 받고 돌아오세요.”

환자가 아까 들고 온 까만 비닐봉지를 내민다.

“목마를 때 자시소. 내 다리 치료받고 다시 들르지요.”

환자가 돌아간 후에 그 까만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양증맞은 캔식혜 2개가 들어 있었다. 순간 코끝이 찡했다. 그건 음료수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환자가 보여준 진심이었고 환자의 아픔을 나누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이었다.

환자는 친절하고 자신을 성심껏 잘 돌봐주며 자신의 고통과 기대를 잘 이해해 주면서 실력 또한 좋은 의사이기를 원하는 듯 하다. 소위 질병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며 환자 자신에 대한 이해도 완벽한 그런 의사를 기대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환자 중심 진료라는 용어는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 속에서 의료공급자가 인테리어를 좋게 하고 예약 시스템, 검사과정, 수납과정 및 입·퇴원 과정 등 모든 진료 프로세스를 환자의 편의에 맞추고 환자편에 서서 개선시키는 물질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이해되는 듯 하다. 하지만 환자 만족과 의사-환자 관계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의사와 환자가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진찰과 상담시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환자를 ‘KBS’ 로 만드는 건 아마도 의료계의 서글픈 현실 탓이나 환자의 못돼먹은 매너 탓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비현실적인 이 나라의 수가체계만을 탓하며 모든 면에서 환자의 요구와 기대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변명만 할 게 아니라 한 번 짚은 의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환자의 고통과 기대를 인간적이고 정감어린 시선으로 마주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밤하늘 별들이 쏟아지는 히말라야!

— 나 혼자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을

안길룡 | 안외과의원(김천)



중국 청도를 거쳐 티베트 라싸를 향하는 비행기에 짐사람과 단 둘이서 몸을 실었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다.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들어가는 국경이 네팔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교전으로 국경이 폐쇄되어 출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출발을 강행하겠다고 고집하였고, 그러면 각서를 쓰고 가라기에 여행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떠난 터라 조금은 마음이 부담스러웠다. 국경이 폐쇄되었으면, 여유롭게 히말라야가 있는 아름다운 산골 국경마을에서 머물고 즐길 속셈이었다.

비행기는 만년설을 인 수많은 고산의 봉우리 위를 날아 해발 3600m의 고원도시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도착했다. 시골버스의 정류장 같은 공항에 내리니 우리가 타고 여행할 짐차 기사가 우리에게 환영을 뜻하는 하얀 천을 목에 걸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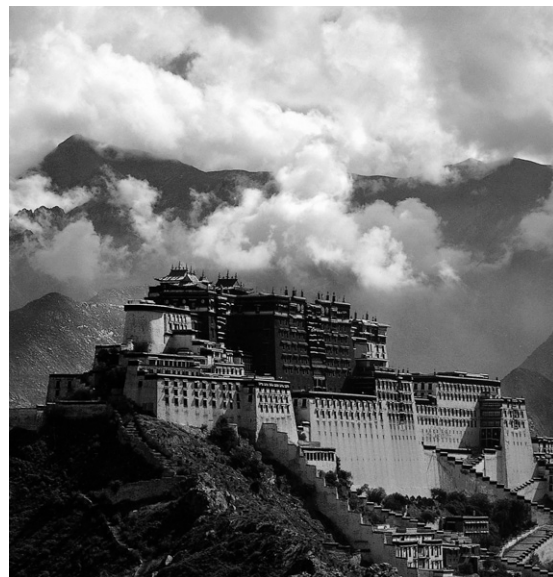
티베트는 춥고 외진 곳. 해발 4000~8000m의 고산병이 있는 문명과 떨어진 척박한 고원의 땅이라 세계의 지붕이라고도 하고 금단의 땅이라고도 흔히 부른다. 이곳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문명을 만들었다.

추운 고원의 땅에 야크를 치는 유목 생활을 하고, 때에 찌든 얼굴, 옷가지, 움막 같은 집, 야크의 젖과

고기를 먹고, 말린 야크의 똥을 때면서 사는 것이 생활의 전부이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은 욕심과 번뇌를 버리고 “옴마니 반메움”을 외며, 그들의 종교와 “달라이 라마”를 위해 살고 있었다.

자신을 버리면서 영혼 속에서 살려고 했다. 춥고 척박한 땅이지만,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시냇물, 8000m가 넘는 눈 덮인 히말라야를 병풍처럼 치고, 밤하늘엔 하나 가득 우주의 별들을 다 쏟아 놓은 것 같은 총총히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이고 순박하게 살았다.

이 순박한 티베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공부할 기회도, 변변한 직장을 가질 수도,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할 수도, 외국인과 만날 수도, 외국여행을 허가 없이 떠날 수도 없는 억압된 속박 속에서,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없는 땅에서 자신을 버리고 또



자신을 버리며 살았다. 중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역사 순리의 길은 아니었다.

수도 ‘라싸’의 포탈라궁은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수많은 법당, 석가모니상, 역대 달라이라마상, 라마의 무덤, 야크 버터의 촛불, 포탈라는 티베트의 자존심이었다. 온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 순례자들의 조강사원, 세라사원의 스님들의 열렬한 토론을 벌이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간체의 쿵분사원, 시가체의 타설훈포사원, 티베트는 불교와 달라이라마와 히말라야의 땅이었다. 걱정은 하였지만 고산병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대기 중 산소가 평지의 50% 밖에 없는 3600m 고도에선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식욕이 없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5200m 고도에선 대기 산소가 30% 정도라 했다.

이곳에선 말은 호텔이지만 넓은 마당이 있는 시골집 같은 여관이었다. 이날 밤 나와 짐사람은 똑같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고,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으며 토할 것 같으며, 숨이 차고, 움직이면 가슴이 아팠다. 베개를 안고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아! 오늘밤 이곳에서 내가 잘못되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

다. 괜히 나 때문에 짐사람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주게 되어 무척 미안했다. 나의 무모함에 많은 후회를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토할 것 같아 마당을 가로질러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다. 밖의 히말라야의 밤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밝은 달빛에 눈 덮인 장엄한 산봉우리들,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마나슬루, K2, 초유의 산봉우리가 줄을 이어 내 눈앞에 환상처럼 웃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 가득 쏟아져 총총히 빛났다. 그림 같은 눈앞의 광경에도 나 혼자만은 터질 것 같은 머리로 계속 토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좀 상태가 호전되었다. 나무를 때는 난로가 있는 식당에서 라면 국물로 속을 달랐다. 아침식사를 하고 짐차를 타고 굽이굽이 산허리를 감으며 계속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오래도록 달렸다. 주변 다락밭이 있는 마을은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평지까지 내려온 우리는 피병같이 고산병 증세는 없어지고, 몸은 날아갈 것같이 가벼웠다.

생각조차 하기 싫도록 힘들었지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국경은 열려 있었으며, 히말라야를 넘어 우리는 네팔로 들어갔다. 오만한 고집을 후회하면서…….

우리도 이제 해외 원정 산행 한번 가자

전민 | 전민신경정신과의원(포항)



젊은 회원들 사이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키나바루를 가자, 황산을 가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일정, 경비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 대마도가 물망에 올랐고, 1박2일 대마도 관광 및 등산 일정이 추진되었다.

5월 5일 비교적 화창한 날씨에 오전 7시 포항시 의사 산악회 고문이신 이경수 원장님, 회장이신 김지홍 원장님 등 우리 일행 24명은 부부동반으로 미리 전세를 낸 버스편으로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버스는 경주를 거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9시경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이틀 동안 안내할 여행사 가이드와 미팅을 가진 후 입국수속이 시작되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이라 부산 대마도간을 왕복하는 대아해운의 시플라워(Sea Flower)호는 완전히 만원이었다. 배의 크기는 울릉도 가는 배와 비슷하였으나, 배가 일단 출발하면 선실 밖으로는 출입이 통제되어서 좀 답답한 면은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예정대로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시플라워호는 부산항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날씨가 좀 흐리기는 해도 출발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으나 배가 부산 내항을 벗어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다

는 비교적 잔잔해서 배가 그다지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대마도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시간이 더 걸리고,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은 7시간도 걸린다고 했다.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선실 밖으로도 못나가고 해서 우리 일행은 선실 한 귀퉁이에 모여앉아 선내 면세점에서 파는 일본 아사이맥주에다가 우리가 가져간 참소주를 섞어서 국제 폭탄주를 만들어서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다. 주거니 받거니, 취기가 오를쯤 선실 창문 너머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 1시 시플라워호는 남대마도에 있는 이즈하라항에 도착을 했다. 출입국관리소는 포항역보다 더 작아서 입국 수속하는데 매우 혼잡하여서 매번 난리복새통을 이루어 각 여행사에서 온 가이드끼리 추첨을 해서 순서대로 내리기로 하는 해프닝 끝에, 겨우 우리 일행은 출입국관리소를 빠져나왔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이즈하라는 한 눈에 보기에 우리나라 구룡포항 정도의 크기에 중심가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할 정도로 작아서 우리 일행은 우산을 쓰고 하룻밤 묵을 대마호텔로 걸어갔다. 한 평 남짓한 호텔로비에서 방을 배정받은 후 짐을 놔두기 위해 방으로 가보니 2평 남짓한 방에 침대 두 개를 집어넣어서 방안에서 움직이려면

계걸음을 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래도 시설은 매우 깨끗하였다. 짐을 놔두고 호텔 문 앞에 내려가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과연 등산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일 집으로 돌아갈 배가 뜰 수 있을까, 더럭 걱정이 되었다. 가이드 양반은 우리가 계약한 여행사의 사장이고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고, 일본말이 매우 유창한 부산 사나이인데, 우리의 이런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일까지의 일정을 설명한 후 바로 대마역사민속자료관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매우 가까운 관계로 한국과 관계된 역사 자료들이 매우 많다. 가이드 양반의 설명을 들으면서 대충 돌아본 후 등산팀과 시내 관광팀으로 나누었다.

우리가 등산할 아리아케산은 높이가 558m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이며, 이즈하라시내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마을 뒷산쯤되어 보였다. 예상 등반시간은 2시간, 평소 같으면 비가 오면 등산을 아예 시작하지 않지만, 나를 포함한 10여 명은 주룩 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주수목인 삼나무가 뻑뻑이 들어찬 등산로는 비교적 완만한 편이나, 급경사도 제법 있어 그렇게 만만한 산은 아니었다. 바다안개와 억수같이 내리는 비로 인해 한치 앞이 안보일 정도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김지홍 회장님과 내가 맨 먼저 정상에 도착했다. 휴대폰에다 회장님 사진을 정상 정복 증거로 남기고 서둘러 하산을 하였다. 선두그룹은 1시간 30분만에 하산을 하였으나, 걸음이 늦은 일부 회원들은 정상을 포기하고 하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물에 빠진 생쥐풀이 되어버린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시내 관광팀과 합류를 하여 호텔 2층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녁식사는 전통 일본식인데, 조그만 공기에 밥 한 그릇, 밑바닥이 보일 듯 말듯하

게 떠 놓은 된장국 한 그릇, 병이리 눈물만한 김치 조각, 단무지 조각, 지우개만한 카스오 없은 두부, 대충 그게 전부였다. 특별 요리로 일인분에 우리 돈으로 3만원하는 이시아키 요리를 따로 한국에서 출발 전에 여행사를 통해 주문해 놓았었다, 뜨겁게 달군 돌판 위에 각종 해물과 표고버섯을 구워먹는 요리인데, 가격에 비해 양도 작을 뿐 아니라, 해물도 늘 포항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라서 맛도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다들 점심으로 배 안에서 도시락을 먹은 후 아무것도 못 먹고, 등산도 하고 해서 매우 시장기를 느끼고 있던 터이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가 보면 참 야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찬은 절대로 더 주는 것이 없었고, 국은 아예 주문 인원수에 딱 맞게 끓여서 더 이상 없다고 하는데, 그저 어안이 병병할 지경이었다. 일본이 처음은 아닌 사람도 많았지만 일본인들의 식습관은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질감을 느끼게 했다. 아쉬운 저녁식사를 마치니 시간이 8시정도 되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초저녁부터 방에 들어가서 자기는 억울하고, 의논 끝에 이즈하라에 유일한 노래방이 있다고 하여 나와 가이드 양반이 사전 답사를 갔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영어가 잘 안통해서 일본말을 모르면 매우 불편하다, 대마도는 한국 관광객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 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대부분의 관광지의 표지판에 일본어와 한국어가 병용 표기되어 있을 정도인데 정작 식당종업원이나, 상점 직원이나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 영어는 더 더욱 불통이었다.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리나라 노래방과 비슷한 구조로, 가이드 양반이 '스미마생!' 하며 종업원을 호출하자 제법 귀엽게 생긴 아가씨 두 명이 생글거리며 나타났다. 가이드 양반이



알아본 결과 시간당 우리 돈으로 25000원 정도이며, 병맥주 한 병에 5000원 정도였다. 우리나라에 있는 새우깡 기본 안주는 아예 없고, 팝콘에다 빼빼로를 끼워놓은 안주(일본에서 빼빼로를 보고 줌 놀랐다)가 4000원 정도한다고 하며, 가져간 술은 절대로 마실 수 없다고 한다. 노래방 책은 백과사전 만하게 두껍다. 한국 노래도 있을 것은 다 있는 듯 했으며, 특이하게 방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저녁식사 때 일본 식사문화에 놀란 우리 일행은 노래방에서 뭘 일을 당할지 모를 일말의 불안감에 노래방은 없었던 일로 하고, 대마호텔 길 건너편의 제법 큰 슈퍼마켓 앞의 야외 의자에 둘러앉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슈퍼마켓에서 산 캔 맥주를 마시면서 이즈하라의 밤을 보냈다. 이제 자러 가야 할 시간, 몇몇 회원은 어디 가서 한 잔 더 했으면 하는 눈치이지만, 쏟아지는 비와, 어부인들의 눈치를 보며 아쉬움을 달래며 숙소로 향했다.

이튿날 5월 6일 일요일 아침,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호텔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일본 사람들은 아침식사 때 삶은 계란과 김을 꼭 먹는다고 한다. 삶은 계란 껍데기에 아예 소금을 발라 놓은 것이 특이했으며, 김은 지하철 차표만한 것이 몇 장 나왔다. 어제 저녁에 이미 단련이 되었기에 아무 군소리 없이 아침을 간단히 먹은 후 상대마로 출발하기 전에 서산사라는 절을 구경하기 위해 숙소를 나섰다. 어미닭 따라가는 병아리 새끼들처럼 가이드 양반의 꼬무니를 따라 가는데, 골목골목마다 일본냄새가 물씬 나는 가옥들이 늘어서 있다. 나무 대문 사이로 보이는 일본 특유의 아담한 정원들을 보고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들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다. 대마도 전체는 물론이고 이즈하라에는 우리 교포들이 거의 살지 않는다고 한다. 해방 후 대마도에 살던 우리 동포들은 거의 모두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와 같이 우리 동포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지 동경이나, 기타 본토의 다른 도시들 보다 이즈하라는 더욱 더 일본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다.

일본 본토에서 본 거대한 사찰들과 달리 서산사는 매우 아담한 규모로 정원이 매우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고, 조선통신사들이 숙식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한 쪽 마당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조정에 보고를 했던 조선통신사 김성일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임진왜란 때 원소라는 일본 중이 주지로 있었던 절이라고 가이드 양반이 설명을 한다.

이제 버스를 타고 상대마로 이동할 시간이다. 생긴 모양은 울릉도 도동항 비슷하나, 일본 냄새가 진하게 느껴지는 이즈하라항을 뒤로 하고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깃들어 있는 만제교를 향해 버스에 몸을 실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만제교는 역사상 한 사건으로 만들어진 다리이다. 원래 대마도는 하나의 섬이었다. 그런데 러일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기습 공격하기 위해 섬의 하단부위의 잘룩한 부분에 운하를 인공적으로 파면서 상하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버렸다. 참고로 가이드 양반의 말로는 대마도는 한국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고, 일본인들은 쓰시마로 부른다. '쓰'는 일본인들은 영어의 two를 '쓰'로 발음을 해서 쓰시마는 두 개의 섬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두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만제교이다. 다리 아래 까마득히 거세게 흘러가는 조류를 보고 군함들이 이곳을 어떻게 지나갔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다음에 들른 곳이 에보시다케 전망대, 비구름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보이고, 바다의 신과 관계있다는 와따쓰미 신사를 거쳐 상대마의 꼭대기에 있는 히타카츠항에 도착했다. 비는 계속 내리고, 부산으로 갈려는 한국 사람들이 득실대는 히타카츠항은 대마도에서 이즈하라와 함께 부산

과 대마도를 연결하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곳이다. 역시 일본 냄새가 물씬 나는 음식점에서 일본식 우동에 초밥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부산이 육안으로 보인다는 한국전망대를 잠깐 둘러보고 오후 4시 30분 대마도를 떠났던 시플라워호에 승선을 했다. 배는 역시 만원이고 선원들 이야기가 파고가 3m 정도 되어 배가 많이 흔들릴 거라며 비닐 봉투, 멀미약을 나누어주었다. 배 멀미에 민감한 몇몇 회원들은 얼굴에 긴장하는 빛이 역력했으며, 정박 중에도 흔들거리는 배가 몹시 불안해 보였다. 시플라워호는 예정보다 늦은 5시에 안개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출발하자마자 배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트를 타는 듯한 흔들림이 계속되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급기야 비닐봉투를 입에 대는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 중에도 몇몇은 옆에서 보기도 괴로울 정도로 심하게 멀미를 했고, 배에서 제발 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바람에 서보군 총무는 뒤통자거리하느라고 계속 서서 비닐봉지를 공급하기도 했다. 2시간 가까운 악전고투 끝에 오륙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7시 10분경 시플라워호는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을 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몸을 실으니 버스의 미미한 진동에도 다시 멀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은 경주의 찜밥집에서 식탁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곤욕을 치렀다.

곳은 날씨와 심한 배멀미 등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포항시 의사 산악회의 첫 해외 원정 산행으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여행이었다.

희방사와 부석사를 다녀와서

김장희 | 김장희산부인과의원(경주)



이른 아침에 마늘과 함께 소백산 희방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풍기IC를 거쳐 약 2시간 30분만에 희방사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매표소에서 주차요금과 함께 10,200원이란 거금을 징수 당하였다. 희방사로 올라가는 길에는 자연 생태를 배울 수 있게 식물에 대한 사진과 안내문과 명패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잠시 올라가면 약 28m의 희방폭포가 주위의 설익은 단풍과 함께 어울려 장관을 이루었다.

희방사는 큰 사찰이 아니고, 보물급 문화재는 없고 경상북도 지방문화재인 다소 작품성이 떨어지는 그리 크지 않는 동종이 대웅전 왼쪽 구석에 볼품없이 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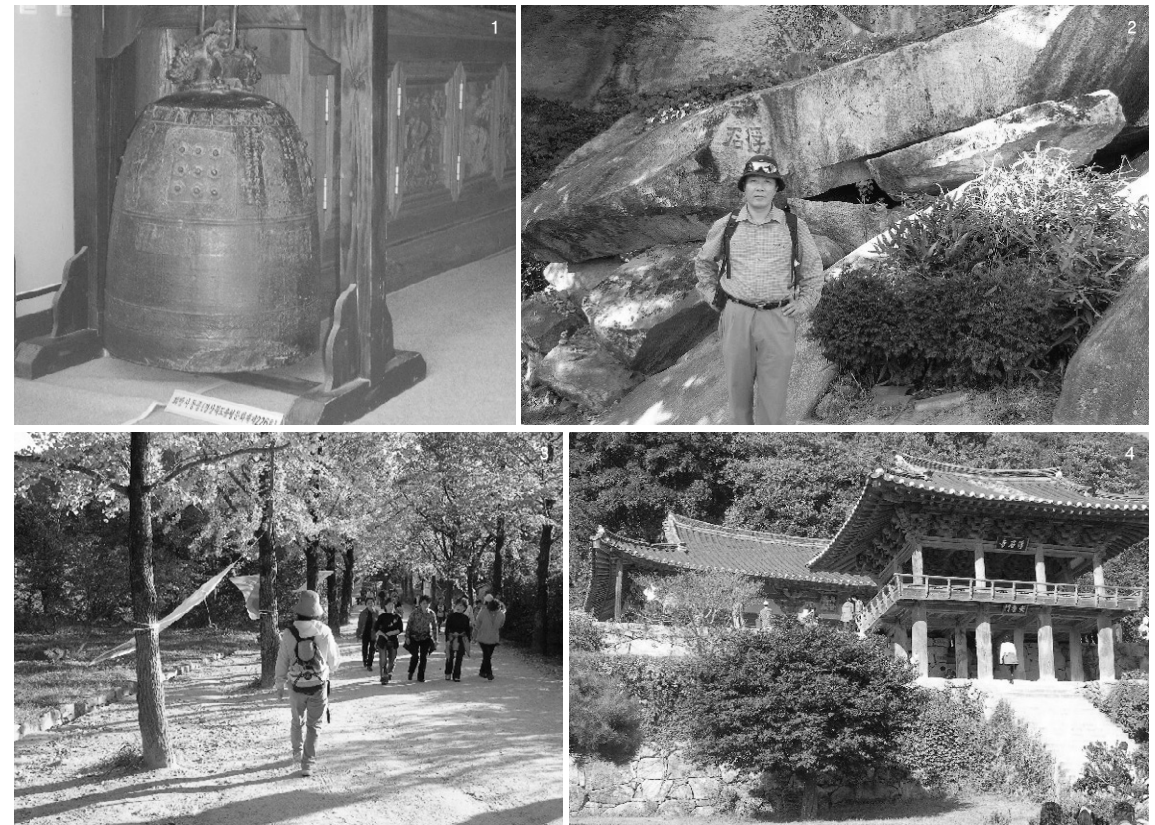
희방폭포 앞에서



절을 지나 소백산으로 등산 코스로 잠시 올라가면 다소 가파르고 잘 다듬어진 길이 연결되어 있다. 조금 올라가다 적당한 곳에서 쉬면서 마늘이 준비한 점심(김밥, 빵, 방울토마토, 사과, 바나나)을 먹고 하산하여 풍기역 앞의 인삼 매장으로 향하였다. 많은 인삼이 늘려있고 상인과 손님이 어우러져 매장이 웅성대었다. 이내 매장을 빠져나와 부석사로 향하였다.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조건물과 경치를 가지고 있는 화엄종의 사찰이다. 과거 10여 년 전에 왔을 때와는 달리 절앞의 주차장이며 인공호수등 엄청 변하였다. 부석사의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까지 올라가는 길은 아름다운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어서 지금은 덜 노랗지만 가을이 더 짙어 가면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은행나무 양쪽으로는 사과밭이 있는데, '사과 따기체험'이라는 현수막이 도시인들을 유혹한다.

올라가는 좌측에 우뚝 솟은 당간지주는 불교와 토속신앙과의 융합을 의미한다. 부석사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찰 구조처럼 길게 늘어져 안으로 들어 갈수록 높아지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찰과는 달리 천왕문을



1. 희방사 동종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6호 2. 부석사에서
3. 부석사 오르는 길의 은행나무 가로수 4. 범종각에서 무량수전과 안양루를 바라본 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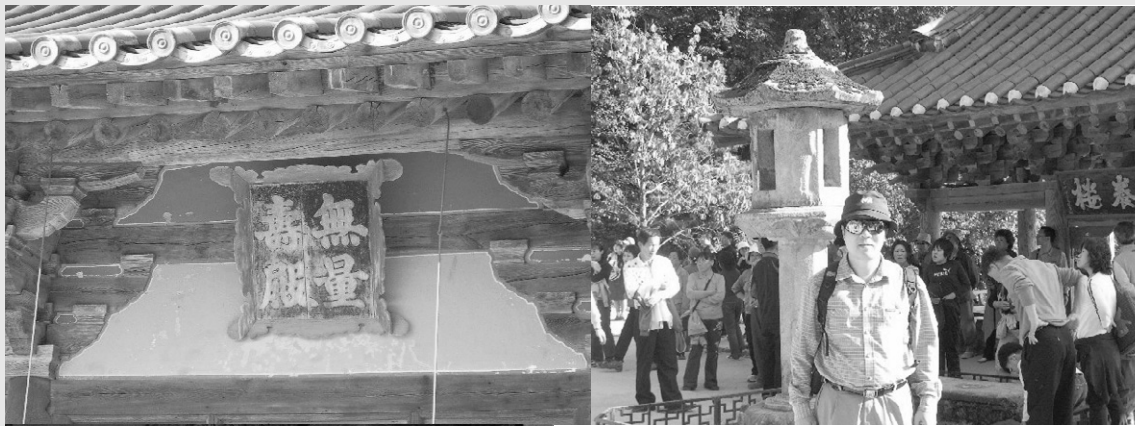
지나 범종각까지 이르는 축과 이 축과는 약 30도 어긋나게 여기서 안양루를 지나 무량수전에 이르는 다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주문에서부터 쪽 올라오다가 범종각을 지나서 잠시 눈을 들어 안양루와 무량수전을 바라보면 마치 건물이 나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 듯 눈에 다가온다.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지붕이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하다.

안양루에 오르면 바로 앞에 석등이 있고 그 바로 뒤에 오래된 정사각형의 현판에다 공민왕의 친필로 둘러 쓴 무량수전(無量壽殿)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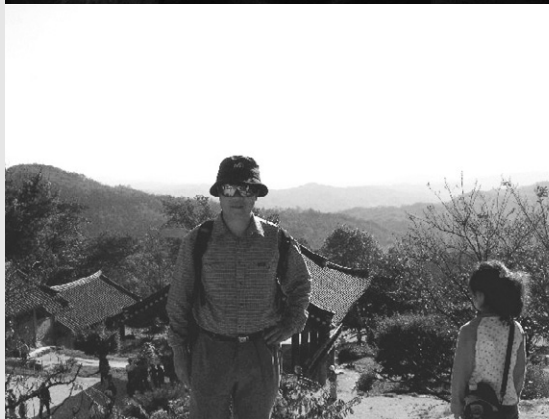
석등은 정면에서 보면 무량수전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약 50센티 정도 서쪽

으로 위치해 있는데 이는 안양루를 지나면 석등이 비껴주어 무량수전이 잘 눈에 들어 오게 한다.

이 무량수전은 과거에 교과서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라고 배웠으나, 근래에 봉정사 극락전이 더 오래된 목조건물로 밝혀졌다고 한다. 무량수전은 아미타불을 모시는 부석사의 주불전이다. 일반적으로 진입하는 정면으로 불상을 모시는 우리나라 다른 절과는 달리 아미타여래는 서방의 극락세계를 관장하는데 따라 서쪽에서 동향을 바라보게하여 장엄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 불상은 좌우에 협시보살이 없이 혼자 독존하고 있다. 이 불상 뒤에는 금으로 입힌 광배



- | | | |
|---|---|-------------------------------------|
| 1 | 2 | 1. 현판(공민왕의 친필이 전각 되어 있다) |
| 3 | | 2. 안양루와 무량수전 사이의 석등 앞에서 |
| 4 | 5 | 3. 무량수전 안의 아미타불과 뒤의 광배—잘려나간 곳이 비어있다 |
| | | 4. 안양루에서 보는 경치 |
| | | 5. 김병연의 시 「浮石寺」와 함께 |



가 있으며 머리쪽의 두광에는 3구의 화불이 부착되어 있으나, 몸쪽의 신광에는 4구의 화불이 있었으나 일제 때 일본놈들이 떼어갔다고 한다.

무량수전은 볼수록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건물이다. 고려시대의 완벽한 목조기술로 지어진 대표작으로 배흘림기둥의 안솔림과 귀솟음 등 기둥의 높이와 위아래로의 굽기, 날아 갈 듯한 지붕의 추녀의 선과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부석사의 아름다움은 건축물과 그 배치 뿐만 아니라 무량수전 앞의 안양루에서 바라보는 태백산맥의 너울대며 춤을 추며 멀어져가며 떠다니는 산들의 조화가 장관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장관은 옛 선비들의 시심을 저절로 우러나게 하였나 보다. 안양루에는 김삿갓 金笠(金炳淵, 1807~1863)이 쓴 한시가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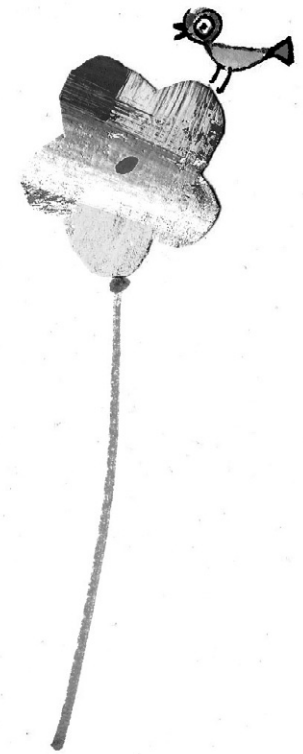
浮石寺(부석사)

平生未暇踏名區(평생미가답명구)
 白首今登安養樓(백수금등안양루)
 江山似畫東南列(강산사화동남열)
 天地如萍日夜浮(천지여평일야부)
 風塵萬事忽忽馬(풍진만사홀홀마)
 宇宙一身泛泛鳧(우주일신범범부)
 百年幾得看勝景(백년기득간승경)
 歲月無情老丈夫(세월무정노장부)

평생에 여가없어 이름난 곳 못왔더니
 백발이 다된 오늘에야 안양루에 올랐구나
 그림같은 강산은 동남으로 벌려있고
 천지는 부평같이 밤낮으로 떠 있구나
 지나간 모든 일이 말타고 달려오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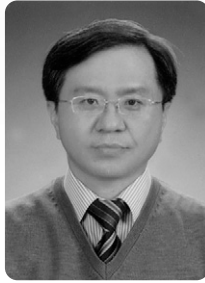
우주간에 내 한 몸이 오리마냥 헤엄치네
 인간 백세에 몇 번이나 이런 경관 보겠는가
 세월은 무정하네 나는 벌써 늙어 있네.

부석사는 이외에도 조사당, 선묘각 등 여러 사당과 유물들이 있다.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이경수 | 이경수내과의원(구미)



지난 여름,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휴가를 이용해 동생 가족이 살고 있는 뮌헨을 방문하기로 한 달쯤 전부터 준비를 하였다. 처음 가는 유럽여행이고 이번에는 가이드 없이 혼자 찾아가는 여행이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였다.

우선 항공편을 예약하기로 하고 마침 부산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을 거쳐 뮌헨으로 가는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의 직항편을 알아보았다. 어렵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5만 마일정도의 마일리지로 좌석 승급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제 출발이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추억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보기로 하

고 유럽지도를 보고 전화로 동생과 상의해보기로 했다.

뮌헨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뤼센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뤼센을 찾아가는 것은 동화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노이슈반슈타인 성(일명 백조의 성)을 보기 위함이다.

디즈니랜드의 모델로 알려진 이 성은 알프스의 북쪽 바위산에 환상적인 자태를 뽐내며 진나무숲에 둘러싸여 있다. 성 뒤쪽으로는 호수와 아름다운 산들이 펼쳐져 있어 그림같은 풍경을 자랑한다.

바이에른의 국왕 루드비히 2세는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해 그의 오페라 로엔그린과 탄호이저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사는 성을 갖고 싶



어 했다. 그의 이 열망이 현실로 변하여 1869년 이곳 바위산에 17년 동안이나 걸려 당시의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낭만적인 신사였고 인물도 잘생긴 루드비히 2세는 이 성이 완공되고 나서 3개월간 거주했다고 하며 그 후 권좌에서 쫓겨나 유폐되었고 이틀 뒤 호수에서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루드비히 2세는 바이에른 지방의 여러 곳에 이런 성을 지었으며 이것이 후세에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많은 사람이 찾게 되어 앞으로도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종일 운전하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잘 모르는 길을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길을 찾는 걸 앞자리에서 도와주면서 동생 가족과 멋진 여행을 계속했다. 하루만에 도착한 곳은 알프스의 스키

천국 인스부르크의 'Tautermann'이라는 별 3개 짜리 조그만 호텔이었다. 검소한 연구원인 동생이 예약해 준 호텔은 화려한 곳은 아니지만 언덕 위에 위치한 깨끗하고 고풍스러운 호텔이었다.

호텔방에서 보이는 일출 광경은 멀리 보이는 알프스의 준령과 함께 더 없이 아름답게 보였다. 호텔의 안주인 혼자서 준비한 듯한 간단한 아침식사도 깔끔하고 좋았다.

이제 꿈에 그리던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를 향해 출발이다.

국도에서 연결된 뮌헨과 잘츠부르크 간의 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 중의 하나이며 차량이 많았으니 그렇게 정체되지는 않았다. 아우토반이라 하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그렇게 과속하는 차가 보이지도 않았다. 독일의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없었으며 오스트리아로 가는 국경도 분명하지 않았다. 어느 지점부터 오스트리아라며 도로 표지판 색깔이 달라졌으며 그때부터는 자율적으로 통행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게 되어 있었다.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도 없었으며 달리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단속되면 벌금은 몇 배 물어야 한다고 한다.

모차르트의 탄생이 1756년이라서 2006년이 그의 탄생 250주년이라 해서 전 세계가 일년 내내 모차르트 음악에 빠져 있었으며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해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이곳에서는 축제가 열려서 올해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음악회가 매일 열리고 세계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짧은 일정이라 많은 음악회는 가 볼 수가 없어 우선 돔성당에서 열리는 장대한 미사음악과 미라벨 궁전의 작은 방에서 열리는 현악 4중주를 감상하였다.

먼저 화려하고 웅장한 돔성당에서 감상한 미사음악은 상당히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백여 명의 합창단과 4대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모차르트 미사곡 KV317(대관식)은 실제 성당에서의 엄숙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음향이 어우러져 합창단의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 같았다.

마침 예비 신자로 교리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카톨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웅대한 성당에서 울려 나오는 감동적인 음악에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호를 굳게 만드는 것 같았다.

미사곡 C장조 KV317(대관식)은 모차르트의 20곡의 미사곡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작품으로 1779년 잘츠부르크 근교의 마리아 프라인 교회의 성모상의 대관식을 위해 작곡되었다. 축일의 미사곡으

로 밝고 기쁨에 찬 작품이며 소프라노 독창이 나오는 아뉴스테이는 더욱 아름다웠다.

돔성당에서 미사곡 감상을 마치고 바빠 이동하여 잘츠강을 건너 미라벨궁전에서 열리는 현악 4중주곡을 들으러 갔다. 시간이 맞지 않아 아깝게 1악장을 못 듣고 2악장부터 들었다.

모차르트는 1782년부터 1785년 사이에 작곡한 6편의 현악 4중주곡을 하이든에게 증정하였다고 한다. 이 작품들은 모차르트가 개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최초의 중요한 작품들로서 실내악의 양식을 수립한 역사상의 의의있는 작품들이라고 한다. 우리가 들은 곡은 모차르트 현악 4중주곡 제 17번 B flat Major KV 458 일명 '사냥' 이었다. 제 1악장 제 1주제가 사냥의 뿔피리 소리와 닮아 이같이 이름이 붙여졌으며 1784년에 작곡되었다. 하이든이 듣고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칭찬했다는 이 곡은 그래서인지 가장 하이든 풍이다.

잘츠부르크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정원이 있는 미라벨궁전의 대리석 방에서 연주된 현악 4중주곡은 청중이 50명 정도 되는 작은 방에서 연주되었다. 비싼 돈을 내고 맨 앞좌석을 예약해두었으며 1악장이 끝나고 입장했는데도 우리 좌석 5개가 그대로 비워져 있었다. 먼저 입장해서 조용히 앉아 있는 청중들에게 약간 미안했다. 연주를 하는 4명의 멤버들이 바로 앞에서 연주했기 때문에 그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음악회가 없는 오전 시간과 밤에는 잘츠부르크 시내를 돌아볼 수 있었다.

잘츠강이라고 하여 도시 한가운데 회색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 유속이 상당히 빨라보였고 유량도 많았다. 이 강을 중심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을 나누는데 대성당과 모차르트 생가는 구도심에 있었다.

현재는 모차르트 생가와 자라난 집들은 박물관



- | | | |
|---|---|-----------------|
| 1 | 2 | 1. 호텔에서 본 아침 풍경 |
| 3 | | 2. 볼프강제리는 호수 |
| 4 | 5 | 3. 미라벨 정원 |
| | | 4. 모차르트 생가 |
| | | 5. 모차르트 동상 |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모차르트는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며 보냈다고 한다.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 고향인 잘츠부르크에 있었던 시간은 겨우 4년뿐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잘츠부르크 대주교 궁정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작곡가로 활동한 아버지 레오폴트는 아들의 모든 일정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했다고 한다.

잘츠부르크의 아름다운 산들과 강, 성당들, 11세기 중반부터 짓기 시작한 호헨 잘츠부르크라는 성들, 이 모든 것이 모차르트의 음악들이 탄생하게 된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18세기 고전파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36년 동안의 짧은 생애동안 많은 명곡을 남긴 음악의 천재였다. 그가 걸었던 거리와 건넌던 다리를 지나며 모차르트를 처음 접하게 했던 교향곡 40번을 마음속으로 되뇌어본다.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짠~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짠~

잘츠부르크 시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숙소에서 걸어 다녀도 멀지 않았다. 시내 공기는 맑았으며 자동차는 많았으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다. 특히 전기로 다니는 버스가 시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아서 좋아보였다.

저녁에는 노천 카페에 앉아서 식사와 함께 마시는 맥주가 일품이었다. 곳곳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된 곳이 여러 곳 있어 이곳이 더욱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한다. 영화 촬영 장소를 돌아보는 투어가 있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포기해야만 했다. 그냥 자동차가 있어 몇 군데는 직접 돌아볼 수 있었다.

시내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헬부른 궁전에서도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1615년 잘츠부

르크 대주교의 여름 궁전으로 지어진 이곳도 “물의 정원”이라고 하여 온갖 분수로 만들어져 있어 관람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분수물이 쏟아져 나와 놀라게 하는 재미있는 곳이었다.

뮌헨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린 잘츠카머구트라는 곳의 아름다운 호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옥색의 물빛은 너무 아름다웠으며 알프스의 빙하가 만든 76개나 되는 크고 작은 호수들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중 볼프강제라는 곳은 모차르트의 외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도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이클을 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더욱 열정적으로 보였다. 여름이지만 평균 기온이 23도 정도로 덥지 않았으며 밤에서 선선하여 긴팔을 입을 정도여서 시원했으며 추억에 남는 여행을 하게 되었다(우리나라는 이 때 30도를 넘는 폭염으로 모두 고생 할 때였다).

뮌헨으로 와서 시내 관광으로 2~3일은 보냈는데 이것도 무척 귀중한 시간이었다. 마리엔광장, 레지덴츠박물관, 노이에 피나코텍미술관, BMW박물관……. 특히 미술관에서 본 고희의 작품 해바라기는 가까이서 보니 붓의 터치가 그대로 살아있어 진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8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준 동생 가족에게 감사하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른 유럽의 도시를 같이 여행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산행기

설악산 산행기

서보균 | 포항교도소 부속의원(포항)



김병완 선생님과 오래 전부터 계획하여 왔던 설악산 산행을 3월 1일, 2일 이틀간 다녀왔다. 배낭과 버너를 새로 구입하고 우모복은 평상시에 입던 것을 가져가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다. 코스는 오색온천 - 대청봉 - 소청대피소 - 봉정암 - 수렴동대피소(1박) - 영시암 - 백담사로 하산하는 것으로 잡았다. 하지만 아직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산 위는 아직도 겨울일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더구나 두 사모님과 김병완 선생님 아들(지환)까지 동반하여 심히 걱정이 되었다. 예전에 태백산에서 눈폭풍을 만나 혼이 난적이 있어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였다.

내일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전민 원장님의 걱정을 가슴에 안고 2월 29일 오후 6시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포항을 출발하였다. 혹

시나 하는 생각에 핸드폰에 설악산에 있는 대피소 및 공원관리소 번호를 미리 입력하여 놓았다. 김병완 선생님의 우수한 운전 실력으로 밤 10시 조금 넘어 오색에 도착하였다.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하루 숙박을 하였다. 다들 잠을 뒤척이다 6시에 일어나서 대충 준비를 하니 7시가 되었다. 등산객이 많다보니 모텔에서 커피포터를 준비하여 뜨거운 물을 가져 갈 수 있게 해주어 보온병에 한 병을 채워 넣었다.

오색분소(공원관리소)를 지나니 바로 오르막이 시작되었다. 오르막과 빙판과 계단이 반복되었다. 아이젠을 착용하다가 벗었다를 반복하였다. 두 사모님과 지환군이 처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힘들어하면서도 잘 올라왔다. 지도상으로 대청봉까지 4시간 거리였으나 지루한 오르막이 만만치가 않았

다. 날씨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바람도 거의 없고 매우 청명하였다. 어느 순간 시야가 트이면서 동해 바다와 주위의 산들이 아래로 보였다. 드디어 대청봉에 도착한 것이었다.

오후 1시 30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약 6시간만에 정상에 도착한 것이었다. 저 멀리 속초 시내와 동해바다가 보였고 울산바위, 공룡능선, 서북능선 등이 눈아래에 펼쳐졌다. 기념촬영을 한 후 대청봉 아래에 있는 중청대피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중청대피소를 지나 소청대피소까지는 바람이 심하였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소청대피소에서 늦은 점심을 라면으로 해결하였다. 한 그릇에 4천원하였지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지환군은 “아저씨, 라면은 면을 다 먹지 말고 면을 조금 남겨두고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면 더 맛있어요”라며 식도락가의 면을 보여주었다. 현재 오후 3시, 소청에서 하루 숙박할 수렴동대피소까지는 약 4시간정도, 가다가 어두워지면 어떡하지, 잠시 망설여졌다. 하지만 봉정암을 지나서는 길이 좋다는 주위의 조언과, 하산길이니 힘이 덜 들 것이라는 생각과, 안되면 봉정암에서 일박하기로 하고 후레쉬를 한 번 더 점검한 후 일정대로 길을 나섰다.

시간이 촉박하여 봉정암을 주마간산격으로 지나치니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다. 한참을 내려와 계곡에 접어들니 군데군데 빙판은 있었지만 길은 좋아졌다. 해가 서산에 걸리고 주위가 어두워지니 다들 말도 줄어들고 걸음이 빨라졌다. 지루한 하산길이 계속되었다. 주위의 사물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고 할 즈음 수렴동대피소가 나타났다. 미리 예약을 해놓아서인지 주인아저씨가 매우 반갑게 맞아 주셨다.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는데 휘발유 버너가 애를 먹인다. 겨우 작동을 시켜 저녁을 해결하였다. 거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오신 아저씨와 커피

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에 비해 손님도 거의 없고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대피소는 공단에 흡수되거나 폐쇄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저씨의 모습에 무언가 모를 쓸쓸함이 엿보였다. 딱히 할일도 없고 피곤도 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른 일행과 한방을 사용하였다. 잠자리가 편하지는 않아 중간에 몇 번 깨기는 하였다. 하지만 밤새 한잠도 못 잔 두 분이 계셨다. 나도 한 까칠한다고 자부하는데 더 고수인 것 같다.

8시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데 버너가 또 작동이 안된다. 자세히 살펴보니 연료통과 연결 호스를 꼭 조이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었다. 구수한 누룽지로 아침을 해결한 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하산길을 재촉하였다. 약 2시간 정도 내려오니 백담사가 보였다. 원래는 백담사에서 마을 입구 용대리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었으나 길이 미끄러워 운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2시간을 다시 걸어서 내려가야 될 상황이었다. 다행히 봉정암에서 신도와 등산객을 위하여 봉고를 운행하고 있어 마을까지 쉽게 내려왔다.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여 차를 주차해둔 오색까지 와서 목욕을 하였다. 오색그린야드는 지난 수해로 아직 복구가 덜되어 모텔에 딸린 목욕탕을 이용하였는데 시설은 매우 열악하였다. 오후 3시경에 오색을 출발하여 포항에 도착하니 7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포항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설악산을 다녀왔다는 기쁨이 당분간 있을 것 같다. 힘들었지만 불평 없이 따라주신 두 사모님과 지환군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다음에 지리산도 한번 가야지요”라는 김병완 선생님의 제안에 두 사모님이 지르는 비명소리를 뒤로 하고 2박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쉼터 |

미술품 투지는 행복한 마라톤이다

손이주 | 다올갤러리 갤러리스트

미술 전문가와 돈 많은 컬렉터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미술이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생활의 곳곳에 파고 들어 굳이 갤러리나 미술관을 찾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백화점, 은행, 병원, 관공서 등 공공장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아트샵이나 팬시 판매점에서 볼 수 있는 미술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은 미술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매체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미술경매, 아트펀드, 아트페어 등 미술 시장 현황에 대한 기사는 일반인의 관심을 증폭시켰고, 마침내 지난 해 말에 터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급속한 미술 시장의 과열에 대해 두려워하는 입장도 있지만, 지난 2007년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화랑 대표와 아트펀드매니저, 시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이 현재 미술 시장의 봄은 2008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미술 시장의 봄은 서울 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무척 활발하다. 지난 해 12월, 엑스코에서 열린 “아트대구 2007”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열린 아트페어임에도 불구하고 32억이 넘는 미술품 매매 성과를 거두었고, 이런 결과는 대구 지역의 미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며, 또한 전시품과 관객들의 높은 수준을 확인하며, 향후 지역 미술 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을 기대하게 한 행사였다.

이런 시장흐름 속에서 ‘나도 미술품을 한 번 사볼까’, 또는 아주 단순히 ‘집에 그림을 걸고 싶은데 어떤 작품을 살까? 이왕이면 투자가치가 있는 작품이면 좋겠는데’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았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참고해보자. 필자의 의견과 투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았다.

필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미술품은 예술가의 정신적 가치와 구매자의 심미적인 기능이 가장 우선되는 미적 상품이므로, 투자 목적만을 가지고 미술품에 도전하는 것은 피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의 이익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적지 않은 손해를 보기도 한다. 구매자 본인의 예술적 소양이나 판단기준 없이, 주변에서 들리는 ‘귀’로 작품을 산다. 미술품의 가장 큰 기능은 수익창출이 아니라, 소장자 자신의 미적 즐거움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을 소유했다는 만족감이 최우선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매자 자신



손병욱(경산 손병욱내과의원) 회원의 장녀로 서울 다올 갤러리(DAOR Gallery) 갤러리스트로 있다.

이 좋아하고, 소장하고 싶은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미술품 투자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간의 수익 창출만은 노린다면, 당연히 귀로만 작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 미술품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다. 주변에 미술품 투자로 큰 이익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소 10년 이상 미술품에 관심을 가지고, 미술품을 구매한 사람들이다. 그냥 좋아서 하나 둘씩 구매하여 감상하다보니, 심미안도 생기고, 그렇게 모아진 소장품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느냐 한다. 정답은 “많이 보는 것이다.” 미술품 투자는 1~2년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미술 전문가나 갤러리스트의 조언도 필요하다. 하지만, 미술품은 단기 상품이 아닌 장기 가치 투자 상품이므로, 결국 소장자 본인 스스로가 진흙 속에 진주를 가려내는 심미안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술품 투자는 마라톤이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미술품 투자의 일반적인 계명이다.

1. 분산 투자
2. 가치투자전략 : 저평가된 우량 작가 작품을 구입한 후 가격이 오를 때까지 장기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그림을 한 점이라도 직접 구입해봐야 한다.
4. 여유 자금으로 사야한다.
5. 경매가를 맹신하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아트대구 2008' 등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아트페어에 가기 전 챙겨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1. 취미나 투자나를 분명히 하라.
2. 정보수집은 필수다. 미술 전문지 등에서 작가와 작품값 정보를 미리 알아본다.
3. 구매는 관화와 사진, 원화순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4. 소득에 맞는 가격대의 작품을 고른다.
5. 살 거라면 빨리 사야한다.
6. 팔린 작품 옆에는 빨간 스티커를, 예약인 경우는 청색이나 반쪽 스티커를 붙인다. 망설여진다면 일단 예약을 하고 생각한다.
7. 구매 후에는 작품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도 챙겨둔다.

— 2008년 2월 21일자 중앙일보 발췌

짧은 지면이지만, 미술 시장에 처음 발을 디디고자 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문화소식

2007년도 경북의사회 이모저모

- 임원 명단**
대의원회 의장단
시군의사회 회장 명단
본회 각종 위원회 명단
- 고문단
 - 법률 및 세무고문
 - 윤리위원회 위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의사회지 편집위원회 위원
 -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경상북도의사회 임원 명단

(임기 : 2006. 4. 1 ~ 2009. 3. 31)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회 장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249-2820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부 회 장	김 종 국	경북정형외과의원	(054) 452-1985	452-1986	구미시 원평1동 1064-4
	백 승 인	백승인소아청소년과의원	(054) 746-0002	746-0002	경주시 성건동 340-1
	권 세 홍	안동병원	(054) 840-0566	821-1165	안동시 용상동 1592-31
	이 규 춘	동국대학교의과대학	(054) 770-2397	770-2447	경주시 석장동 1090-1
	최 을 임	최소아청소년과의원	(054) 281-8788	281-8788	포항시 북구 득량동 155-2
기획이사	김 광 만	지곡그린의원	(054) 221-4950	278-49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9
	한 형 원	한형원내과의원	(054) 272-5700	272-5730	포항시 남구 효자동 253-130
학술이사	이 경 섭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 770-8266	771-0769	경주시 석장동 1090-1
재무이사	서 영 진	항구외과의원	(054) 282-7752	282-7754	포항시 북구 죽도2동 95-2
법제이사	황 석 순	황석순내과의원	(054) 246-1977	246-1978	포항시 북구 대신동 68-26
보험이사	신 명 준	신명준외과의원	(054) 285-8001	285-3579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55
의무이사	서 보 균	포항교도소 부속의원	(054) 262-1100	262-3901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 95-1
공보이사	이 봉 구	이피부과의원	(054) 742-1494	742-1494	경주시 동부동 141
정보이사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592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정책이사	장 기 호	사랑애의원	(053) 814-8071	814-8072	경산시 옥산동 731-1
	이 석 주	녹십자의원	(054) 331-7071	331-7071	영천시 야사동 182-6
	백 두 현	고령백의원	(054) 954-3669	956-3669	고령군 고령읍 캐빈리 500
	이 원 석	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054) 973-1147	974-4201	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0-2
	성 후 식	한동대학교선린병원	(054) 245-5818	245-5819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권 규 돈	권&오연합내과의원	(054) 536-5757	531-2193	상주시 서성동 117-5
	정 원 모	영주진단방사선과의원	(054) 634-7655	634-7655	영주시 가흥1동 1381-505
	정 만 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1-0010	790-6479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감 사	정 능 수	동산연합의원	(054) 861-0076	861-167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49
	천 종 욱	천내과의원	(054) 771-0503	771-0503	경주시 동부동 113-3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임기 : 2006. 4. 1~2009. 3. 31)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의 장	이 석 균	청십자의원	(053) 815-7077	814-8877	경산시 중방동 538-3
부 의 장	이 웅 렬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054) 555-4797	555-4759	문경시 점촌동 245-9
	허 석	김천X-선과의원	(054) 432-3314	432-3314	김천시 평화동 245-27

□ 중앙(의협) 대의원 명단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정대의원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249-2820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743-5516	경주시 사정동 101-27
	이 석 균	청십자의원	(053) 815-7077	814-8877	경산시 중방동 538-3
	김 종 국	경북정형외과의원	(054) 452-1985	452-1986	구미시 원평1동 1064-4
	권 영 철	권영철정형외과의원	(054) 274-3636	272-5439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5-8
	김 재 왕	김재왕내과의원	(054) 856-7111	856-7109	안동시 동부동 74
교 체 대 의 원	이 웅 렬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054) 555-4797	555-4759	문경시 점촌동 245-9
	허 석	김천X-선과의원	(054) 432-3314	432-3314	김천시 평화동 245-27
	김 동 욱	조은의원	(054) 455-4080	455-4080	구미시 봉곡동 387-9
	신 명 준	신명준외과의원	(054) 285-8001	285-3579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55

□ 중앙(의협)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의협부의장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743-5516	경주시 사정동 101-27
중앙이사	장 기 호	사랑애의원	(053) 814-8071	814-8072	경산시 옥산동 731-1

경상북도 시군의사회 회장 명단

(2008. 3. 1 현재)

시군별	성명	근무처명	전화	팩스	주소
포항시	김광만	지곡그린의원	(054) 221-4950	278-49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9
경주시	황병욱	황내과의원	(054) 746-7701	771-9001	경주시 성동동 43-5
김천시	김영권	김영권정형외과의원	(054) 439-2166	439-2166	김천시 황금동 34-7
안동시	김도형	현대산부인과의원	(054) 856-2626	856-2636	안동시 광석동 247
구미시	이경수	이경수내과의원	(054) 471-1674	741-1676	구미시 황상동 280-9
영주시	허찬욱	허찬욱이비인후과의원	(054) 637-2211	637-2588	영주시 하망동 346-20
영천시	배경일	경일의원	(054) 334-6661	334-6662	영천시 완산동 1069-19
상주시	손성락	손성락산부인과의원	(054) 536-7581	535-7576	상주시 무양동 286-8
문경시	김규태	김규태신경정신과의원	(054) 552-1072	553-2072	문경시 점촌동 244-17
경산시	장유석	장유석외과의원	(053) 851-7007	851-7007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3-5
군위군	김교준	성누가의원	(054) 382-9911	382-9913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390-2
의성군	이건중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054) 861-5952	861-5952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148-8
청송군	이주섭	삼성의원	(054) 873-8275	873-8276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97
영양군	류수영	영남의원	(054) 683-3465	683-6166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232-1
영덕군	예호열	영남외과의원	(054) 733-7633	734-0285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69-39
청도군	이상현	현광의원	(054) 372-2277	372-2277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62
고령군	백두현	고령백의원	(054) 954-3669	956-3669	고령군 고령읍 캐빈리 500
성주군	방종경	덕산의원	(054) 933-0644	933-0645	성주군 성주읍 경산8리 713-4
칠곡군	이태규	왜관정형외과의원	(054) 974-8811	973-8815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20-20
예천군	장필식	경북의원	(054) 655-2800	655-8228	예천군 예천읍 백전2리 94-36
봉화군	조진만	조가정의학과의원	(054) 673-2332	674-0740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19-30
울진군	임호식	누가의원	(054) 782-4979	782-4979	울진군 북면 부구리 칠보프라자B-102
울릉군	정만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1-0010	791-2153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경상북도의사회 각종 위원회

□ 본회 고문단 명단

직위	성명	근무처명	전화	팩스	주소
고문	이병채	고려병원	(054) 262-2022	246-3845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292
	남주현	남주현외과의원	(054) 857-7360	857-7360	안동시 북문동 47-9
	신은식	신정형외과의원	(054) 247-3397	247-3379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최종두	최정형외과의원	(054) 857-8864	857-8865	안동시 남부동 169-5
	변영우	선린의원	(054) 743-2645	743-5516	경주시 사정동 101-27

□ 본회 법률 및 세무고문

직위	성명	근무처명	전화	팩스	주소
법률고문	김인수	김인수법률사무소	(053) 742-3100	742-3031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74-1
	정연경	정연경법률사무소	(054) 742-9222	742-9223	경주시 동부동 141
	서한규	법무법인 아성	(054) 437-7447	435-9669	김천시 삼락동 1243
	김희수	김희수법률사무소	(054) 859-0710	858-9336	안동시 정하동 242-5
세무고문	박경운	박경운세무사무소	(054) 244-1006	247-1008	포항시 북구 덕수동 54-4

□ 본회 윤리위원회 위원

직위	성명	근무처명	전화	팩스	주소
위원장	신은식	신정형외과의원	(054) 247-3397	247-3379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부위원장	최유근	최유근안과의원	(054) 854-5775	854-5775	안동시 남문동 202-2
위원	변영우	선린의원	(054) 743-2645	743-5516	경주시 사정동 101-27
	안길룡	안외과의원	(054) 432-9999	432-0009	김천시 남산동 16-5
	손병욱	손병욱내과의원	(053) 815-7900	815-7977	경산시 중방동 862-3
	이웅렬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054) 555-4797	555-4759	문경시 점촌동 245-9
	김종국	경북정형외과의원	(054) 452-1985	452-1986	구미시 원평1동 1064-4
	김대환	베드로내과의원	(054) 331-5522	331-5524	영천시 금노동 584-3
간사	황석순	황석순내과의원	(054) 246-1977	246-1978	포항시 북구 대신동 68-26

□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 위	성 명	근 무 처 명	전 화	팩 스	주 소
위원장	최 유 근	최유근안과의원	(054) 854-5775	854-5775	안동시 남문동 202-2
위 원	손 병 욱	손병욱내과의원	(053) 815-7900	815-7977	경산시 중방동 862-3
	김 지 흥	김지흥정형외과의원	(054) 277-7575	277-7576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8-1
	장 의 현	지앤미피부비뇨기과의원	(054) 453-5424	457-5424	구미시 형곡1동 144-13
	안 길 영	포항성모병원	(054) 289-4570	277-2072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1
	하 달 봉	하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	(054) 333-0079	332-6949	영천시 금노동 566-3
간 사	박 재 영	경상북도의사회	(053) 941-7785	941-5557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 본회 의사회지 편집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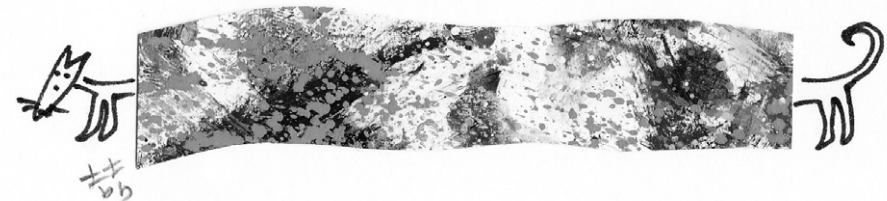
직 위	성 명	근 무 처 명	전 화	팩 스	주 소
위원장	권 세 흥	안동병원	(054) 840-0566	821-1165	안동시 용상동 1592-31
위 원	이 봉 구	이피부과의원	(054) 742-1494	742-1494	경주시 동부동 141
	박 정 돈	박정돈산부인과의원	(054) 465-2225	465-2226	구미시 신평1동 124-4
	하 달 봉	하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	(054) 333-0079	332-6949	영천시 금노동 566-3
	이 덕 영	하양중앙내과의원	(053) 856-4567	856-3777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8-9

□ 본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직 위	성 명	근 무 처 명	전 화	팩 스	주 소
위원장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592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위 원	김 기 흥	제일외과의원	(054) 281-0300	281-0315	포항시 남구 상도동 629-1
	정 재 업	안동제일안과의원	(054) 855-7582	855-7580	안동시 대석동 259-7
	이 숙 영	순천향소아청소년과의원	(054) 461-0488	461-0489	구미시 비산동 504-4
	하 달 봉	하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	(054) 333-0079	332-6949	영천시 금노동 566-3
	김 종 영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053) 816-3748	816-3749	경산시 옥산동 863-5

□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소 속	성 명	직 책	전 화	팩 스	휴 대 폰	주 소
경상북도의사회	박 재 영	사무처장	(053) 941-7785	941-5557	011-512-0435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권 순 길	대 리	(053) 941-7785	941-5557	011-9365-7268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김 태 희	대 리	(053) 941-7785	941-5557	016-520-8200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포항시의사회	김 두 중	사무국장	(054) 281-0995	281-0992	010-2502-9786	포항시 북구 죽도2동45-7
	이 은 지	간 사	(054) 281-0995	281-0992	010-5006-3997	포항시 북구 죽도2동45-7
경주시의사회	김 송 희	간 사	(054) 774-9991	774-9986	010-3898-2362	경주시 서부동 255-31
안동시의사회	윤 진 영	간 사	(054) 857-6911	852-5356	011-9578-6406	안동시 송현동 298-5
구미시의사회	박 민 희	간 사	(054) 457-7646	457-7645	011-9589-2280	구미시 원평동 534-8
영천시의사회	김 명 속	간 사	(054) 337-8022	337-8021	010-8213-1116	영천시 야사동 2차 주공아파트 201동 405호
경산시의사회	김 세 경	간 사	(053) 812-0030	812-1801	011-9568-6704	경산시 중방동 538-18



회무 소식

— 2007년 경북의사회 이모저모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신년도 예산 3억8,000만원 확정

회칙 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

2007년도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07년 3월 31일(토) 오후 6시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개최하고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3억8,000만원의 새해예산과 부서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협 박효길 부협회장과 경북도 김용대 행정부지사, 이병채·신은식·변영우·최중두 고문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안윤식 회장 및 내빈 다수와 대의원 69명(재적 102명)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석균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쁘신 일정과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에 감사드리며, 의료법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합심하여 투쟁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의료는 봉사의 기본이고, 의료인은 가장 훌륭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분야에 협조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어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무를 소상히 알리고자 서신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왔고, 의사회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집행부 임원 모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으며, 회원 서로간의 단결과 화합으로 의료계의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며, 의사단체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 우리의 상식과 말이 통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였다.

또한, 중앙의협에 대한 충고로 “중앙의협의 회무에 적극 협조하겠으나, 상식



과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의협의 혼란이 지속된다면, 따끔한 질책과 함께 할 말은 분명히 다하는 경북의사회가 될 것이다”라며 심기일전하여 국민 건강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는 한형원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원근(포항)·김학근(구미)·김종영(경산) 회원을 보조위원으로 선정하여 대의원 102명중 69명이 참석하여 회의성립을 선언하고 전년도 총회 회의록 낭독과 감사보고는 이익없이 박수로서 통과시켰다. 2006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 보고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한 보고와 일반회계 및 적립금 결산보고를 이익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2007년도 사업계획(안)과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에서는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3억8,0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의협 중앙대의원총회에 올릴 의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대처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 개선 △진료비 관련 영수증 간소화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반대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철회 △회무 관련 전문인력그룹 양성 △임상병리기사 업무의 포괄적 수용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의협 홈페이지 접속제한 해지 △회비 미납회원 연수교육 평점관리 강화 등을 확정하여 통과시켰다.

회장직선제, 대의원수 조정등에 대한 회칙 개정(안) 심의에서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

윤리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신은식, 부위원장에 최유근 회원 등 9명의 윤리위원을 선출하고 2007년도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폐회하였다.

□ 시상자 명단

- △ 대한의사회회장 표창 : 정능수(의성), 권영철(포항), 박재영(본회 사무국장)
- △ 경상북도지사 표창(보건의날 시상) : 장기호(경산), 김동욱(구미), 이경섭(경주)
- △ 대외시상 : 문영복(의협 공제회), 김규임(심평원대구지원), 이상만(의학신문), 고현규(경상북도소방본부), 노희복(의협 총무국)
- △ 회원표창 : 전 민(포항), 정유선(경주), 윤태권(안동), 김도권(구미), 이지옥(영천), 이덕영(경산)
- △ 모범분회 : 구미시의사회, 영천시의사회

△ 직원표창 : 이지형(경주)

□ 위촉자 명단

- △ 법률고문 : 김인수(대구)·김상윤(포항)·정연경(경주)·서한규(김천)·김희수(안동) 변호사
- △ 세무고문 : 박경운(포항) 세무사

본회 의료법 개악저지 쟁기대회 개최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 직후 개최된 의료법 개악저지 쟁기대회에서 최중두 고문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007년 3월 21일 개최된 범의료계 총쟁기대회는 의약분업 투쟁 이후 6년여만에 열리는 평일투쟁이었고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5만명 이상이 모여 정부의 의료법 개악 음모를 깨뜨리고자 분노의 함성을 뜨겁게 표출하였다며 의료법 개악 기도 중단을 촉구하였다.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의사들을 통제해 노예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어처구니없는 의료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 △일방적인 의료법 개정과정이 의사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양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 것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법이 마련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것 입을 천명하였다. 이어 '줄속 개정 추진하는 복지부는 자폭하라', '일치단결 투쟁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하자' 라며 신명준 보험사의 선창으로 참석한 대의원들은 힘찬 구호 제창을 외치는 등 의료법 개악저지 쉼기대회를 마쳤다.



제29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본회에서는 해마다 신지식을 배우는 춘계학술대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돈독히 하고자 경북의학제를 매년 5월중에 개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행사를 합하여 경상북도 의사의 날로 고쳐 부르기로 하고, 올해 '제29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지난 2007년 5월 26일(토)~27일(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2007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경상북도의사회서는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생애교육차원의 보수 교육을 지난 5월 26일(토), 27일(일)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춘계종합학술대회는 이원기 회장의 인사와 더불어 경상북도 보건위생과 이경호 사무관의 마약류 취급자 교육, 한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박영근 교수의 특강, 학술연제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의료계는 매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회원들이 의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화합해야 할 것이며, 다가오는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들간에 서로 상생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겠다."라고 하였다.



첫날 학술강연에는 조기폐암의 진단과 치료를 강의로 경북의대 내과 박재용 교수등 4편의 학술연제가 발표되었고, 둘째날에는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혈액학적 검사의 이상소견 최근 경향에 대해 동국의대 진단검사의학과 하경임 교수등 4편의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틀간 참석회원에게는 연수교육 12평점이 주어졌다.

※ 연제 및 연사

■ 5월 26일(토) 14:00

▲의사윤리 - 이원기(경상북도사회장) ▲마약류취급자교육 - 이경호(경상북도 보건위생과) ▲건강보험심사평가 업무 - 김남희(심평원대구지원 심사평가2팀) ▲조기폐암의 진단과 치료 - 박재용(경북의대 내과) ▲신경통의 진단과 치료 - 이동국(대구가톨릭의대 신경과) ▲최근세사에서 본 민족의 교훈 - 박영근(한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피부질환 및 피부관리 - 류영욱(대구, 요셉피부과의원)

■ 5월 27일(일) 09:00

▲당뇨병 치료의 해법 - 시청각(비디오)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혈액학적 검사의 이상소견 - 하경임(동국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고지혈증의 최신진건 - 한성욱(계명대 내과) ▲개원가에서 흔히 접하는 부인과 질환 및 비만관리 - 박노준(서울, 박노준산부인과의원) ▲과민성 방광의 최신경향 - 이경섭(동국의대 비뇨기과) ▲혈압과의 전쟁, 이렇게 시작하자 - 시청각(비디오)

□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고 만찬과 더불어 그동안 회원의 취미활동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인 친선의밤 행사가 5월 26일(토) 오후 7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한형원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회원 및 가족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6팀이 경연을 벌인 결과 포항시의사회 중창단이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원기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협회장,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과

본회 신은식·최종두·변영우 고문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이 색소폰 연주, 가족 연주회, 합창등의 장기자랑으로 선보여 바쁜 직업중에서도 갈고 닦은 숨은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김중국·최을임·유동명 심사위원은 '회원의 취미활동으로 갈고 닦은 훌륭한 실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는 그 자체가 모두 대상감이다'라고 하였다. 이날 친선의 밤 행사에서 가장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은 포항시의사회 중창단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가족으로 구성되어 바이올린·피아노·플룻을 연주한 박정돈(구미, 박정돈산부인과의원)가족이 우수상을 차지하였고, 특별출연으로 안동시의사회 중창단이 출연하여 흥을 돋우는 자리를 마련하여 큰 박수의 갈채를 받고 화려한 막을 내렸다.



□ 장기자랑 시상내역

- 대 상 : 포항시의사회 중창단
- 우수상 : 박정돈(구미, 박정돈산부인과의원) - 가족음악회
- 장려상 : 신명준(포항, 신명준외과의원) - 색소폰 연주
임승근 자녀(경주, 사랑의소아과의원) - 바이올린 연주
최현욱(안동, 동산정형외과의원) - 색소폰 연주
양사규(영천, 현대의원) - 노래
- 특별출연 : 안동시의사회 중창단



□ 경북의학제서 남부지구 우승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경북의학제는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우의 증진을 위해 도내 4개 지구별 대항전으로 5월 28일(일) 오후 1시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야외경기로 펼쳐진 경북의학제 행사에는 이원기 회장을 비롯하여 신은식·최중두·변영우 고문등 4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각 지구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날 경북의학제에서 참석한 전 회원들과 가족들은 국민체조와 OX퀴즈를 시작으로 단체경기인 바둑, 탁구, 윷놀이, 족구, 2인3각, 골프피칭, 줄다리기 경기와 번외경기로 단체줄넘기 어린이경기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윷놀이, 족구, 2인3각에서 우승한 남부지구가 종합우승을, 준우승에는 서부지구, 3위 동부지구, 4위 북부지구가 차지하였다.

또한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만파식적」

의 시제로 진행된 삼행시에는 60여편의 출품작중에서 김태숙(김천, 최인환의원) 가족이 장원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다.

디지털카메라, 자전거, 선풍기등의 많은 경품을 준비하여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는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참석자 전원의 희비를 가렸으며,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행사로 진행할 것을 기약하며 제29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의 모든 행사를 마감하였다.

〈 종합점수표 〉

경기종목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비고
바둑	50	30	30	40	
탁구	20	30	40	50	
윷놀이	회원	40	30	50	30
	가족	30	50	40	30
족구	30	30	50	40	
2인3각릴레이	20	40	50	30	
골프피칭	50	30	40	20	
줄다리기	30	50	40	30	
OX퀴즈	15	6	3	3	
총 합 점 수	285	296	343	273	

■ 종합우승 : 남부지구

■ 준우승 : 서부지구

■ 3위 : 동부지구

■ 4위 : 북부지구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개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한의사산악회 총회 및 등반대회와 더불어 본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가 지난 2007년 5월 20(일) 오전 10시 충남 금산 서대산(904m)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등반대회 산행코스는 서대산 드림리조트를 출발하여 용바위, 구름다리, 북두칠성바위, 헬기장, 삼거리, 두부모대기바위를 지나는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본회에서는 49명(포항 26명, 경주 19명, 김천 1명, 사무국 3명)이 참석하였다.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성료

2007년도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에서 김성연·김태진 선수조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지난 2007년 10월 14일(일) 오후 1시부터 경북의대 테니스장에서 열린 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에서는 총 5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보였으며, 이원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진료실을 떠나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회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이날 개최된 테니스대회는 복식 풀리그전으로 진행되어 참석 선수 모두 훌륭한 기량을 과시하며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김성연·김태진 선수조가 우승을, 김지홍·이태우 선수조가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 경기성적(복식조)

- 우 승 : 김성연(문경, 김성연산부인과의원), 김태진(문경, 김태진비뇨기과의원)

- 준우승 : 김지홍(포항, 김지홍정형외과의원), 이태우(포항세명기독병원)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성료

지난 2007년 10월 21일(일) 오후 2시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2007년도 추계 학술대회에는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의학 발전과 회원보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는 이경섭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계를 선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최신의학 지식과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본회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철저한 준비로 좀 더 회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주제 선정으로 진료실에서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강좌를 준비했다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맑고 청명한 가을날처럼 우리 의료계에도 곧 맑은 날을 위하여 전 회원들이 힘을 모으자" 라고 하였다. 이어 시작된 학술강연으로는 대구가톨릭의대 성형외과 박대환 교수의 악안면 성형술의 최신경향 외 5편의 학술연제와 경상북도 보건위생과 이경호 사무관의 마약류취급자 교육으로 교육이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 6점이 주어졌다.

〈연제 및 연사〉

△마약류 취급자 교육 - 이경호 경상북도 보건위생과 사무관 △악안면 성형술의 최신경향 - 박대환 대구가톨릭의대 성형외과 교수 △고혈압 치료의 실제 - 나득영 동국의대 심장·혈관내과 교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이해와 치료 - 정성훈 경북의대 정신과 교수 △임상에서 흔히 보는 사시와 소아안과 질환 - 이세엽 계명대의대 안과 교수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 - 원규장 영남의대 내분비내과 교수

제22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성황리 개최



본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2007년 10월 27일(토)부터 10월 28일(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고창 선운산관광호텔에서 제22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를 가졌다. 22년 전 88고속도로 개통을 기회로 당시 김병주 전북의사회장과 오삼달 경북의사회장의 격의없는 대화로 의기투합한 양도 집행부는 자매결연을 맺고 22년째 두 지역을 번갈아 방문하며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본회 초청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가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초창기에는 지역감정을 허무는 계기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두 지역의 현안을 소개하고 지역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의료계의 화합뿐만 아니라 국민화합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익수 의협대의원회 부의장, 천희두 의협중앙윤리위원장, 김학경 의협감사, 의사 출신인 이강수 고창군수가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하해주었으며 임원진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친선행사 시간에는 우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튿날에는 친선골프와 천년 사찰인 선운사와 고인돌 유적지, 모양읍성, 미당 서정주 시문학관, 인촌 김성수 생가 등 역사문화 유적지 등을 함께 방문하며 우의를 돈독히 다졌으며, 이번 친선행사는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의 장을 여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2008년도에 경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2007 무료개안수술 '밝은 세상, 새로운 희망' 성황리 개최



대구·경북의사회와 함께하는 2007 TBC 무료개안수술 '밝은 세상,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구·경북내과개원의사회가 주관하고 대구·경북내과개원의사회와 경상북도공동모금회, 귀뚜라미보일러가 후원하는 이번 무료개안수술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접수한 환자 297명(대구 117명, 경북 180명)을 대상으로 술전검사를 통해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무료개안수술은 안과 40곳의 의료기관(대구 25곳, 경북 15곳)이 참여하여 전면 무료로 진행되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참다운 인술을 펼쳤다.

TBC대구방송에서는 지난 11월 10일(토) 특별생방송 '밝은세상,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무료개안수술을 홍보방송하였으며, 이날 본회에서는 서보균 의무이사도 참석하여 무료개안수술 참여의의와 노인 의료혜택 현황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이도화 할머니의 다시 얻은 새빛'의 VCR상영, 안과 의료기관과의 5원 생방송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이날 패널로는 본회 서보균 의무이사를 비롯하여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보임 부장,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홍상욱 교수가 홍보방송에 참석하였다.

'결혼이민자가정 의료지원사업' 자원봉사

의협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가정을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자원봉사 회원은 이우진·장혜성·황석순(포항), 이진표(경주), 최계정(김천), 이석주(영천), 권규돈·이재학·정해룡(상주), 정철(청송), 이원석(칠곡) 11명이다.

제35회 보건의 날 행사 참석

제35회 보건의 날 및 제59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의 건강증진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 날 행사가 지난 2007년 4월 6일(금) 10시 30분부터 포항 시청 문화복지동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 김용대 행정부지사, 박승호 포항시장, 이원기 본회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 시도민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식전행사로 포항시북구보건소의 실버체조와 구룡포초등학교의 밸리댄스등의 축하공연과 기념식, 유공자 포상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행사장에는 모자보건, 저출산 대책 관련 홍보물을 중심으로 한 부스와 영양개선, 구강보건, 금연등 건강증진 관련 홍보물을 전시하는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본회에서는 장기호(경산, 사랑에의원), 김동욱(구미, 조은의원), 이경섭(동국대경주병원) 회원이 도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패를 수상하였다.

경상북도 범의료계 단체장 간담회서 공조체계 구축 합의

의협에서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범의료 단체와 공동 구성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 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전 회원의 투쟁열기와 사회적 관심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전국 단위의 소규모 홍보캠페인을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경상북도 범의료계 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18일(수) 안동 금강산가든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단위 범의료계 공조체계 구축과 아울러 홍보캠페인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회 이원기 회장, 치과의사회 신두교 회장, 한의사회 박인수 회장과 권세홍 본회 부회장, 최현욱 안동시의사회장, 박재영 사무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시군별 의료계 단체의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공조체계를 구성하기로 하고 반상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홍보키로 하였다.

또한, 홍보캠페인은 중식시간을 이용한 오후 1시부터 거점지역을 정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의료법 개악의 문제점 홍보와 지역사회 이슈화 및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하여 범의료계 단체가 참여키로 하였다.

본회 이원기 회장 경상북도구급대책협의회 회의 주재

경상북도구급대책협의회(회장 이원기)는 지난 2007년 6월 18일(월) 성주소방서 회의실에서 2007년도 상반기 경상북도 구급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본회 이원기 회장을 비롯한 이택관 약사회장등 9명의 직능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금년 상반기 심정지 환자 소생을 제고를 위한 CPR SAVER 제도 도입에 관해서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이번 회의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심정지 환자 소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119 구급대원 및 시민에게 순금배지를 수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갈 방침이며 본 구급대책협의회는 119 구급대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굴하여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차흥봉 전 장관 국회의원 공천 탈락요구서 발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상북도 군위·의성·청송 지역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신청 한것에 대해 본회에서는 보건복지정책 파탄의 책임자인 차 전 장관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라며 지난 2008년 2월 12일(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강재섭 대표, 이방호 사무총장, 의료전문지, 도청 기자실 등에 배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 보건복지부 장관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추진했던 장본인이 공천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며,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지향했던 과거 정권 밑에서 일하던 인물로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정체성의 의심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성분명 시범사업 항의 시위

의협에서는 국립의료원 앞에서 정부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강행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지난 2007년 9월 17일(월) 오전 8시 열었으며, 본회에서는 이원기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항의시위는 의협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과 더불어 16개 시도지사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성분명 처방 즉각 철회 요구, 국민선택분업 쟁취, 강재규 원장 사퇴 촉구,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및 편의점 판매 즉각 보장 등을 외치며 국립의료원 앞과 후문 등지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의사 10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본회에서는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신 인물 선정 및 의료관련 유적지 조사등을 위하여 지난 2007년 5월 27일(일) 오전 11시 경주코오롱호텔 포석정에서 본회 역사와 회무에 조예가 깊으신 원로회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협 100주년 계획 보고와 더불어 의협 100주년 기장 수여 본회 후보자 추천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2008년도 본회 신년인사회 개최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본회에서는 지난 1월 8일(화) 오후 7시 30분 에어포트호텔에서 본회 이원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의장·감사단 및 시군의사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신년인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원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동안 우리 의료계와 회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약대 6년제, 성분명처방 등은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을 밑거름이 되고, 의료법 개악과 의료피해 자구제법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실패로 끝났고 2007년 정해년의 화두였던 대선은 그 동안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새로이 바뀌보자는 안목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 우리 회원들도 정치세력화에 관심과 행동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계의 부조리와 탈법등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석균 의장도 신년사를 통해 “가정과 직장, 하시는 모든일들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며,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 희망찬 새해를 맞아 우리 의료계도 활짝 퍼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인사말을 대신하였으며, 이어 김종국 부회장과 이용렬 부의장의 신년 건배제외가 있었다.

이어 김광만 기획이사는 주요회무보고에서 2007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 수재민돕기 및 태풍피해성금 모금현황, 본회 홈페이지 제작 신규 오픈등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였으며, 토의사항으로 2007년도 의사회비납부 독려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에 비해 납부율이 저조함에 따라 홈페이지와 시군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시군의사회에서도 미납회원들을 적극 독려기로 하였다.

전화번호부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최근 KT측에서 책자에 광고를 수록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자동 인출한 사례를 보고하고 모든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본회에서는 심평원대구지원과 공단대구지역본부, 의사보건소장회의 등을 거쳐 협조를 당부하였고, 또한 의협에 건의하여 강력히 대처기로 하였으며, 일선 시군의사회에서도 사례가 발생할시에는 본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경북의학제 준비위원회 개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경북의학제 행사에 앞서 준비위원회를 지난 2007년 4월 29일(일) 오후 2시 포항 죽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고, 경기종목 선정 및 경기규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준비위원회에서는 경기는 단체경기로 바둑, 탁구, 윗놀이(회원·가족), 족구, 2인3각, 골프피칭, 즐다리기, OX퀴즈와 친선경기로 단체줄넘기, 어린이경기 등을 펼치기로 하였으며, 시조 및 3행시의 시제는 권세홍 위원장에게 위임, 행운권은 1가정 실명제 추첨으로 현장 3시까지 접수기로 하였다.

또한 전야제 및 장기자랑은 5월 26일(토) 석식시간과 병행하여 실시기로 하였으며, 행사진행은 한형원 기획이사에게 위임하고 5월 18일까지 참가 접수를 하기로 하였고, 70세 이상 회원을 선정하여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를 5월 27일(일) 11시에 개최기로 하는등 의견을 모았다.

본회 정보통신위원회서 새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의 장점인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편리성으로 회원들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더불어 회무홍보, 의견수렴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서는 지난 7월 5일(화) 제이스호텔에서 정보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홈페이지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기로 하는등 홈페이지 활성화에 주력기로 하였다.

이날 개최된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위원 소개와 더불어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김장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보통신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훌륭한 홈페이지가 제작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였으며, 이원기 회장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종 회무나 소식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기존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제작 경과사항과 문제점 발생시 대책이 미비한 운영 체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였으며, 토의사항으로 기존 홈페이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불거리, 흥밋거리를 살려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기로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회무 홍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공문 전달, 학술대회 등 록방안, 불거리등을 제공하여 활성화시키기로 하는등 새로운 홈페이지가 제작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의료현안 관련 전국 의사 반모임 개최

본회 및 시군의사회에서는 의료급여제도 변경, 성분명처방 저지, 제17대 대선과 관련하여 전국 의사 반모임을 개최하고 상호의견을 개진하였다.

○ 반모임 개최일정

- 2007년 7월 12일(목)~7월 20일(금), 의료급여제도 변경관련 건
- 2007년 8월 31일(금) 14:00, 성분명처방 저지 비상총회
- 2007년 11월 8일(목)~11월 14일(수), 제17대 대선관련 건

2007년도 회원정기신고 실시

의료법 제26조 제3항 및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6조의 2호(회원의 의무) 제2,3,4항에 의거 2007년도 회원정기신고가 시군의사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일제히 실시되었다.

○ 2007년도 의협 및 본회 회비내역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휴직	전공회원	공보회원	
의 협	330,000	242,000	242,000	137,000	105,000	연회비·구독료·연구소회비·학술대회분담금
경 북	250,000	250,000	125,000	75,000	—	
계	580,000	492,000	367,000	212,000	105,000	

2007년도 회무감사 수검

2007년도 주요회무 및 재무사항 일체에 대해 회무감사 2008년 3월 11일(화) 오후 7시 본회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감사에서는 정능수·천종욱 감사와 본회 이원기 회장, 김광만·한형원 기획이사, 서영진 재무이사, 서보균 의무이사, 박재영 사무국장이 배석하여 감사가 이루어졌다.

의료장비 현황조사 신고사항 점검·확인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장비 현황조사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신고사항 중 미기재 또는 착오입력 사항 등에 대한 확인 및 정정을 의뢰하여 음에 따라 본회에서는 각 시군의사회를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일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안내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최근 감염의 우려 등 임상 현실을 고려하여 그 보상 방법이 1회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부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회용 치료재료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토록 알려졌다.

의협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의협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07년 4월 21일(일) 오전 9시부터 서울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대의원 242명중 205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으며, 2006년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의료법개악 저지 전면투쟁’ 결의문을 채택과 의협 비례 대의원의 수는 시도 회비납부 회원수 비율에 따라 책정, ‘회장선거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었으며, 선거자격은 회비 미납기간이 5년에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대폭 완화하고 사업 및 예산 결산심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서면결의를 통해 승인키로 하였다. 본회에서는 이원기 회장을 비롯한 중앙대의원 6명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김종영 회원(경산, 김연합소아과의원)과 박재영 국장(유공직원)이 의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의협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관련 임총 개최

의협에서는 ‘의협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파문과 관련, 회원 권익보호라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왜곡된 방향으로 운영돼 문제가 불거진 한국의정회를 폐지하기로 결의하는 등 임시대의원총회를 지난 2007년 5월 5일(토) 오후 3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대의원 242명중 175명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김성덕 의협 회장 직무대행 추인과 더불어 한국의정회 폐지 결의, 2007년도 예산안을 승인, 2006년도 결산안 승인 유보, ‘중앙윤리위원회는 김동준 위원장의 해명으로 마무리, 의료법 비대위 위원장 선출은 집행부와 의장단에 위임, ‘대국민 사과문’은 자구수정과 발표시기를 의장단에 위임, ‘의협회장 사퇴의 건’은 폐기하였다.

한국의정회, 의료법 비대위 해체관련 의협 임총 개최

의협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6일(토) 오후 4시부터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재적 대의원 242명중 139명 참석하였으며 한국의정회 폐지 잔여금 처리는 집행부 위임키로 하고 의료법 비대위 발전적 해체 및 대외협력사업단 구성하고 의협 부회장·감사선출, 임원을 추인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의협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 참석

본회에서는 2007년 9월 8~9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 상임이사, 의장단, 시군 임원 및 사무직원 등 28명이 참석하여 성분명처방·개약 의료법·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8일 첫날 워크숍은 예정보다 조금 늦은 7시 30분 주수호 의협회장의 인사와 행사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소관 상임이사별 의료현안 정책 설명회, 현안별 향후 대책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1부 현안 설명회에서는 좌훈정 보험이사가 의료급여제도, 일자별 청구,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해 진철수 보험부회장이 내년 수가계약 등 의료보험정책방향을, 박정하 의무이사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왕상한 법제이사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2부에서는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변영우 위원장), 2007대선거획단(권오주 단장), 의료현안TFIT(사승연 상근부회장)에서 향후 대책 및 운영방향을 설명했으며 시·도의사회장회의 및 시도감사단 간담회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이어 주제별 그룹토의에서는 지역별로 6개 분과로 그룹토의를 진행했으며, 분과 회의 결과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질의 및 종합토론과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11시 30분경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본회에서는 버스로 대절하여 출발하였다.

【결의문 내용】

- ▲성분명 처방 추진 즉각 중단 ▲건강보험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선택분업과 상비약 수퍼판매 허용 ▲8년간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 시행 ▲의료법 전면 개정안 당장 백지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즉각 폐기, 의료분쟁조정법 마련 ▲변경 의료급여제 및 본인부담 정률제 원상 복구

경상북도내 의사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

본회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 의사 보건소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지난 2007년 11월 30일(금) 오후 7시 인터불고호텔 동보성에서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보건소장 상견례, 본회와 유기적인 관계 유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보건소 할인제도 문제, 사무장 병원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 간담회 개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 10월 30일(화) 오후 7시 30분 제이스호텔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본회 이원기 회장, 이석균 의장, 서보균 의무이사, 대구시의사회 회장 단과 국세청 법인납세과장 등이 참여하여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한 협조요청, 의료계 입장 설명 및 제도 문제점 보완 등의 건의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회의서 회비납부 독려

지난 2007년 10월 10일(수)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 설명과 더불어 2007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를 독려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영진 재무이사는 의사회 회무에 있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무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비 징수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박재영 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 현황과 의료광고심의기준 변경, 회무전달 업무용 인터넷 사용, 제27기 의협공제회 가입 등의 회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였다.

또한 토의사항으로 원활한 회비납부를 위해 카드수납 및 홈페이지 전자결제 방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사무직원들이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명단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으며, 지난 2007년 5월 26일(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유근 위원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회장 추천 3인과 의장 추천 3인을 호선하였으며, 임기는 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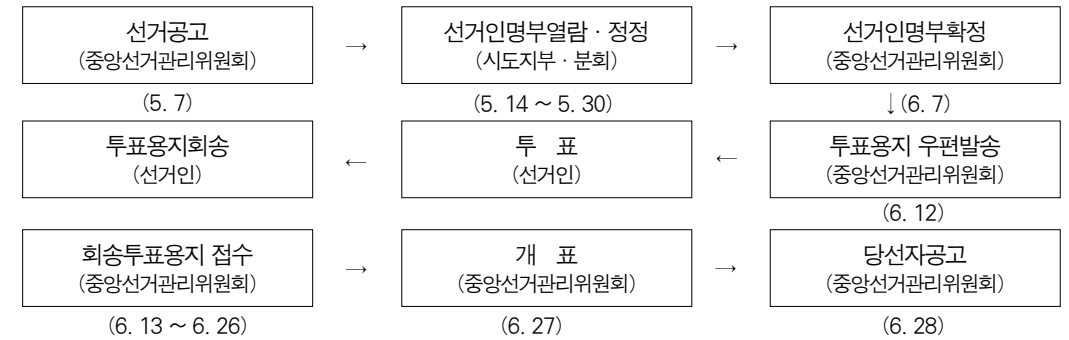
직 위	성 명	근 무 처	지 역	전 화	비 고
위원장	최유근	최유근안과의원	안동	054) 854-5775	
위 원	손병욱	손병욱내과의원	경산	053) 815-7900	
"	김지홍	김지홍정형외과의원	포항	054) 277-7575	
"	장의현	지앤미피부비뇨기과의원	구미	054) 453-5424	
"	안길영	포항성모병원	포항	054) 289-4570	
"	하달봉	하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	영천	054) 333-0079	
간사	박재영	경상북도의회	대구	054) 941-7785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개최

대한의사협회 회장 결월에 따른 보궐선거가 지난 2007년 6월 27일 실시되었으며, 본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토록 투표를 독려 하였다.

- 선거개요
 - 선거종류 : 회장 결월에 따른 보궐선거
 - 선거형태 : 회원투표에 의한 보통 · 직접 · 평등 · 비밀선거
 - 선거방법 : 기표에 의한 우편투표
- 유효투표 : 회송투표용지 2007년 6월 26일(화) 18:00까지 도착분

○ 선거절차



○ 후보등록

기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출 신의대	비 고
1	경만호	52. 6. 9(만55세)	가톨릭의대	前 서울시의사회장
2	김성덕	46. 8. 16(만61세)	서울의대	의협 회장 대행
3	김세곤	44. 3. 18(만63세)	가톨릭의대	前 의협 상근부회장
4	주수호	58. 11. 26(만49세)	연세의대	前 의협 대변인
5	윤창겸	56. 9. 7(만51세)	한양의대	경기도의사회장

의협회장 후보 초청 간담회 참석

의협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시의사회서는 각 후보의 정책대결과 공약검증을 위해 의협회장 후보 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7년 6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협의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 합심단결과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상호비방을 자제키로 하였으며,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은 공통 2개항과 개별 1개항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참가 회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제35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하였다.

○ 선거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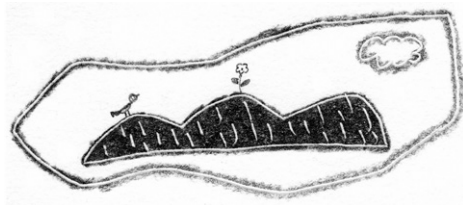
시도별	신고회원수	선거인수	비율	비고
서울특별시	24,686	12,355	50.0%	
부산광역시	6,151	3,619	58.8%	
대구광역시	4,580	3,270	71.4%	
인천광역시	3,091	1,834	59.3%	
광주광역시	2,842	1,778	62.6%	
대전광역시	2,624	1,262	48.1%	
울산광역시	1,170	854	73.0%	
경기도	11,273	4,215	37.4%	
강원도	1,983	1,235	62.3%	
충청북도	1,753	945	53.9%	
충청남도	2,463	1,309	53.1%	
전라북도	2,773	1,804	65.1%	
전라남도	2,055	1,290	62.8%	
경상북도	2,686	1,533	57.1%	
	428	77	1.6%	군의원(3사)
경상남도	3,333	2,153	64.6%	
제주도	646	456	70.6%	
계	74,537	39,98	953.6%	

제35대 의협회장 주수호 후보 당선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에 주수호 후보(기호 4)가 당선됐으며, 의협 선관위는 지난 2007년 6월 28일 오전 당선인 공고를 하고 당선증을 전달하였으며, 주수호 협회장은 상임이사진을 구성하여 회무를 시작하였다.

○ 제35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결과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투표율	유효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경만호	김성덕	김세곤	주수호	윤창겸	계			
39,989	20,101	3,595	6,055	2,542	6,223	1,225	19,640	461	50.3%	97.7%
	후보자 득표율	18.3%	30.8%	13.0%	31.7%	6.2%	100%			



회원 고충 관련 의협 질의

김천시의사회와 영주시의사회는 회원 고충과 관련하여 본회에 문의해 온바 본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의협에 질의한 답변을 시군의사회에 회신하였다. 김천시의사회에서는 의료기관 폐업(이전)후 진료기록부등을 폐기처분과정에서 분실한 것이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해 의협 법제팀에서 김천시의사회와 협의하여 처리기로 하였으며, 영주시의사회에서는 영주시청에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요청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의료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사정이 아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가족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회신하였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앞장서기로 결의



8년 전 정부는 우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밀어붙여 의사들의 권한인 조제권을 빼앗고 국민건강보다 건보재정절감을 빌미로 성분명 처방 시범을 국립의료원에서 진행키로 함에 따라 의협에서는 동 사업의 저지를 위해 2007년 8월 31일(금) 오후 2시 오후 휴진 및 비상총회 개최에 앞서 본회에서는 8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 3층 강당에서 각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본회가 적극 앞장서

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원기 회장을 비롯한 본회 상임이사, 의장단, 각 시군의사회장등 32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마저 빼앗긴다면 우리에게 남는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며, 동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 자체부터 막아야 할것이다. 또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한 오후 휴진을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토의사항에서 의료현안 저지를 위한 비상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회장 서한문과 휴진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 회원에게 일괄 우편발송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사전에 홍보하였다는 보고와 아울러 전 회원이 동참할 수 있는 오후 휴진과 비상총회가 되도록 8월 31일(금) 오후 2시부터 각 시군의사회별로 개최키로 하는 한편 본회 집행부에서는 지역별로 열리는 비상총회에 참석하여 성분명 처방에 대해 홍보하고 회원들을 격려키로 하였다.

2007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전국 시도·시군구 임원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각시군의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키로 하는 한편 본회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참가키로 하였다.

변경제도관련 대의원 업무지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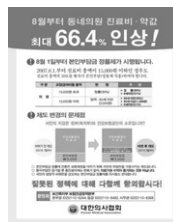
의협에서는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에 관한 회원 행동지침의 후속 업무지침과 대책방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였다.

공인인증서는 공단사이트 접속은 실시간 진료내용을 확인하고 보험환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진료하도록 하였으며, 외래본

인부담금 정률제는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수용기로 하였으며, 청구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행기로 하고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권한을 의협에 위임하여 위임장을 제출받기로 하고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불가토록 하였다.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건강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위해 급여 환자들의 위임장 작성 제출하기로 하였다.

변경제도관련 홍보물 제작 배부



의협에서는 보호자 대리처방과 수진자조회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등과 관련하여 원칙을 확고하고 이같은 방침이 적혀진 안내문을 의료기관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보호자 대리처방 및 수진자 조회 안내문 1,300부(흑청색)와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안내문 2,600부(의원당 2부, 칼라)를 일괄 제작하여 시군의 사회를 통해 소속 회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송부하였다.

성분명 저지 홍보전단지 제작



본회에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의사들은 힘든 투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 20만부를 별도 제작하여 송부하였다. 홍보전단지에서는 정부가 강제로 시행하려는 성분명 처방과 환자가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도 알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원급 150부, 종합병원 500부, 병원급 200부 기준으로 택배발송하였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변경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의협을 포함한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의료광고시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의료광고심의 대상은 의료법 제4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3의 제1항에 의한 모든 의료광고로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medical.org>)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화는 (02)793-4100, fax 794-8351이다.

2008년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제51회 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 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회에서는 응시원서를 지난 2007년 10월 22일(월)~10월 26(금)까지 교부하였으며, 원서접수는 2007년 10월 29일(월)~11월 2일(금)까지였다.

제27기 의협공제회 가입 안내

진료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를 비롯한 회원권의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제27기 기존공제 사업이 지난 2007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가입이 시작되었으며, 제27기부터 납부금 약 15% 인상되었다.

유효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이며, 보상한도는 1구좌당 최대 1000만원이다.

의협 제6차 의료배상공제 가입 안내

의협은 공제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의료배상공제사업을 지난 2007년 6월 5일부터 제6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제5차 년도와 같은 요율 및 제도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동 의료배상공제는 사건 조사에서부터 처리, 심사, 보상에 이르기까지 회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가입종별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하게 된다.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교육 개최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회와 대구시의사회 공동으로 지난 2007년 12월 8일(토) 오후 5시 경북의대 학생회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날 대구·경북 241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 개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중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만 40세, 66세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만 40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상담으로 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공동주최로 지난 2007년 6월 23일(토) 오후 5시부터 경북의대 학생회관에서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교육을 개최하였다.

대구시의사회 오희중 보험이사의 사회로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김영택 팀장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계명대 가정의학과 서영성 교수의 건강위험평가 및 상담시 활용기법, 정신건강, 노인건강진단의 설명평가 및 진단방법

과 경북의대 내과 채성철 교수의 행동변화 단계별진력, 2차 건강진단에서 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날 교육에는 대구·경북의사회 회원 318명(대구 137명, 경북 177명, 기타지역 4명)이 참석하여 이수 회원에게는 교육이수 수료증과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평점이 주어졌고,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한 1차 건강진단 결과 상담, 생활습관 개선 수행과 더불어 정신건강, 고혈압, 당뇨 2차검사 등 사후상담을 하게 된다.

의협 100주년 기념위원회 구성

의협 2008년 한국의사 100주년 맞이 행사를 위한 본회 위원장에 최을임 부회장을, 위원으로는 김광만·한형원·이경섭·서영진·황석순·신명준·서보균·이봉구·김장희 집행부 이사로 구성하였다.

부부 정당가입 및 지역 국회의원 후원 안내

의협에서는 의료계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여 의료관련 정책들이 각 정당 및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외사업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계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부부 정당가입 운동과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의 후원 계좌 만들기를 하기로 하고 안내하였다.

의협 창립 99주년 기념식 참석

의협에서는 합리적인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 생산에 일조하기 위하여 의협 창립 99주년을 맞아 대외사업추진본부 출범과 아울러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를 지난 2007년 11월 15일(목) 오후 6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이원기 회

장, 이석균 의장, 황석순 법제이사가 참석하였다.

유소년 축구선수 심장검사 지정병원 요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국내의 축구 경기중 선수가 돌연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선천성 심장질환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바, 중학교 등록선수부터 심장검사를 의무화하여 돌연사를 예방하고자 해당지역 대학·종합병원에 지정병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해 음에 따라 본회에서는 9개 의료기관을 추천하였다.

병원 협조사항으로는 검사항목 및 비용은 일차검사(진찰+운동부하심장검사)시 40,000원, 이상소견 발견시 심장초음파 검사 100,000원으로 일괄 적용, 매년 1·2월 중 병원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맞추어 방문, 검사하고 지정 병원은 1병원 당 30·40명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한 후 매년 2월말까지 대한축구협회로 진료 기록부와 검사기록 사본 송부이며, 인원은 100명(경주, 구미, 안동, 영덕, 영주, 울진, 포항)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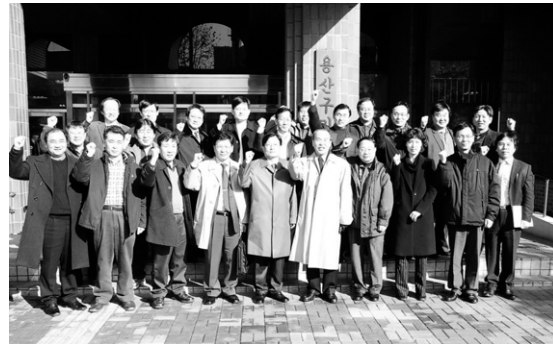
△ 지정병원 추천 :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한동대선린병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의료법인 안동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안동성소병원, 포천중문의과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의협 대외협력특위 인력풀 구성

의협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8대 총선거 관련하여 정치권, 정부, 언론계 인사들과 친인척 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의료계 인사들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의료계 정책방향을 대내외에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본회에 대외협력특위 인력풀 구성을 협조 요청해 음에 따라 시군사회에 안내하였다.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 관련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

의협에서는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현안과약을 통한 향후 의료계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의료계 대표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개최기로 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7시30분 포항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본회 및 시군 의사회 임원, 반회장을 중심으로 적극 동참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원기 회장은 의협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게 된 구체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의료계의 정책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 회원이 제7대 대선에 빠짐없이 투표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이어 김광만 기획이사로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2008년도 수가결정, 국제청 사업용계좌 개설·신청 사용등의 회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였으며, 토의사항으로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본회에서는 임원 및 의장단과 더불어 각시군의사회 임원과 반회장등 많은 인원이 참석기로 하는 한편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참석기로 하였으며, 본회 이원기 회장이 직접 시군의사회장들에게 전화를 통해 전국의원대표자 대회의 취지 설명과 더불어 참석을 독려기로 하였다.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 참석

의협에서는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현안과약을 통한 향후 의료계 및 의협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의료계 대표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

하여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지난 2007년 12월 9일(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표자대회는 동등계약 실현을 위한 로드맵 발표(좌훈정 보험이사), 동등계약에 관한 법률적 고찰 발표(왕상한 법제이사), 2008년도 수가협상과정 설명(전철수 보험부회장), 의약분업 재평가 발표(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관련 시도의사회 업무추진 사례 발표(성남, 김해), 결의문 채택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본회에서는 집행부 및 시군임원, 사무직원등 30여명이 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하였다.

회원 대선 참여방법 등 업무안내

의협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의료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의료계가 제시하는 정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선 참여방법 등 업무추진을 안내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당가입운동, 후원계좌 갖기 운동 전개, 선거법 해설 및 회원 선거참여 방법, 후원계좌 안내등이다.

출산·양육 후원협의회 사회협약 체결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는 2007년도 보건복지부 위임 사업인 ‘출산·양육지원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직능단체등과 함께 사회협약을 체결기로 함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14일(금) 오후 2시 대구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동사업을 추진(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 거리 캠페인)하기로 하였다.

심사평가원 및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본회에 감사패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07년 7월 1일 한국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하여 본회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회장 안윤식)에서는 송고한 적십자의 사랑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2007년도 적십자재원조성 및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지난 2007년 12월 11일(화) 본회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서식 변경

통계청에서는 사망진단서를 기초로 사망통계와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개정된 사망진단서(2000. 10. 21)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어 정확한 사망원인통계 작성에 애로를 겪고 있어 관련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사망진단서 서식을 안내하였다.

취학아동의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2001년부터 국가홍역퇴치사업의 일환으로 2차 홍역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학시 접종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8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약 59만명(2001. 3. 1 ~ 2002. 2. 28)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미제출자, 무기록자는 미접종자로 간주하여 예방접종 이행 권고를 하였다.

상훈대상 인력풀제 운영

의협에서는 상훈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을 발굴하고자 평소 상훈대상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수상후보자로 추천함과 아울러 의사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자 상훈대상 인력풀제를 운영함에 따라 적합한 회원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여 왔다.

법정 전염병 진단·신고 기준 책자 배부

의협과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전염병신고체계 구

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동 사업의 일환으로 책자를 제작하여 의료기관 중 법정 전염병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하였다.

2008년도 수가계약 관련 자료제출

의협에서는 2008년도부터 적용될 유형별 계약에 대비하기 위해 유형분류 및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하여 본회 41개 의료기관을 대상(전국 1,000개 기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산지수 산정자료 조사표와 2006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외래진료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 진료 중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사례가 나타남으로 인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바 이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지도를 요청해왔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실에 다음 진료 받을 환자·보호자 등이 대기하고 있어 진료 받고 있는 환자의 질병내역이나 개인정보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진료실내에 환자나 보호자 외에 다른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에이즈 발생신고 홍보

1985년 이후 현재까지 에이즈 누적감염자는 4,755명으로 하루 1.9명정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HIV감염 임상증상이 10년 이상 무증상으로 감염인의 조기발견이 전파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에이즈 감염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었다.

- HIV감염 의심질환 : 대상포진, 결핵, 성병-매독, 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 등
- HIV검사시 주의사항 : HIV감염 검사시 반드시 본인 동의후 검사 실시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수집 피해방지 안내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약사단체에서는 최근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병의원 명단을 수집하여 보건소에 현장지도를 요청하고 담합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음에 따라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경우에는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였다.

약사법 제23조의 2 제2항 1호에 약사는 생동성 인정품목인 경우에는 의사등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의사 등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의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0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중임에 따라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 법률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점검, 교육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안내하였다.

산부인과병원 등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일부 산부인과병원에서 조제분유업체로부터 장기저리대여금을 받고 해당업체 분유제품을 독점공급 받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되는 결정을 받은바 지도요청이 있음에 따라 회원들로 하여금 조제분유업체와의 불공정거래등 공정거래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국세청 사업용계좌개설 안내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전문직사업자 포함)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되었다.

계좌개설은 기존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가능(기존 계좌 사용 가능)하며 금융기관에서 상호가 있는 경우에 상호를 병기,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기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8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제도 의원급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은 외래진료비 청구시 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청구하여야 하며, 요양기관 준비사항으로는 일자별 작성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은 인증 청구 S/W로 변경하고 청구담당자의 일자별 작성·청구방법 숙지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제도 주요 개정사항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소액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였다.

○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곳을 선택하여 이용
-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2차, 희귀난치성질환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필요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
- 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까지 추가선택
- 선택병의원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에 대해 소액 본인부담 제도 실시

- 1차 의료기관 방문 1회당 : 1,000원(의원)
- 2차 의료기관 방문 1회당 : 1,500원(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방문 1회당 : 2,000원(3차 의료기관 지정 병원)
- 약국 처방전 1매당 : 500원, 보건기관 : 무료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에 소액 본인부담제도 도입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월 6천원)

만성질환 초진료 환수 관련 본회 입장 전달

최근 만성질환 상병 초진료 착오청구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환수예정 통보서를 받은 의료기관들이 자료를 검토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의견서 제출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금번 시행된 만성질환자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건에 대한 환수예정통보건 중 해당요양기관의 의견이 접수되는 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후 결정을 할 것이며, 업무추진일정 연장에 대하여는 공단본부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으로 지역본부에서 일정 조정은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협, 의료급여환자 진료 안내

의협에서는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공인인증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습적으로 강행하려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수급자 자격관리방법 및 승인번호 제도 변경에 관하여 입장을 정립하여 공지하였다.

○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대한 회원 안내

- 7월 31일까지 공인인증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 유보
- 의료급여환자 진료시 기존의 방식대로 진료(본인부담금 무료)
- 의료급여환자 유치행위 즉각 자제
- 진료 손실은 법적 투쟁(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으로 보전

○ 의료급여환자 미인증 처방전 발행 관련 안내

- 공인인증절차 없이 발행된 처방전은 약국에서 급여비용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확인
-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협으로 보고

의료급여제도 부당성 홍보 포스터 배부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형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

고 있어 의료급여대책팀을 구성하여 대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변형 의료급여제도의 부당성을 홍보하였다.

포스터는 '생명을 건 의료급여제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전국 10만 의사들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하겠습니다'의 2종이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 사례 수집

의협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최근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불법 시술 및 불법 의료광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무장 병원과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례를 수집하였다. 제보방법으로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를 로그인 후 '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제보사항 기재(제보사항 및 제보자 인적사항 등)하고 사무장 병원 등의 소재지 및 연락처, 근무의사의 인적사항, 추가적 불법 행위 사례등을 기록하면 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 자격정지 3월(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에 처할 수 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관련 약화사고 수집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기관으로 제도를 검증한다고 밝힘에 따라 의협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사례를 수집하였다. 수집사례는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로 인해 약물 부작용 경험 환자와 보건소, 국공립의료기관 등에서 성분명 처방을 받아 약국 조제후 약물 부작용 경험 환자이다.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등 적극 홍보



본회에서는 지난 2007년 7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 포항 요산재식당에서 의료급여제도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관련등 의료현안 문제등을 반모임 행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의협의 입장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새로운 홈페이지 제작과 더불어 의료급여제도 변경관련 의협 지침등에 대한 보고와 특히 불법 의료기관 운영 사례수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신고토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의료급여제도 관련 대책 논의에 대해서는 의협의 지침(6. 29)이후 향후 대책이 미비하므로 시도 의사회장회의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경과 등을 빠른시일내에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과 성분명 처방등은 반모임 행사를 통해 전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키로 하였다.

한편, 본회에서는 반모임 자료 1,500부를 인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반모임행사가 원활히 개최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8월부터 새로 바뀐 보험제도

2007년 8월 1일부터 바뀌는 새로운 규정들의 시행

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는 의원과 약국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진료비의 30%로 변경되었으며,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해야 하며(심평원 반송조치, 향후 일자별 차등수가제를 적용할 가능성), 의료급여 공인인증서 통한 자격관리시스템 적용은 공단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만으로 접속하기로 변경했으나 의협은 의료급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자격관리시스템은 원칙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고함량 1알처방 의무화)는 1회 복용량이 같다면 적은 함량의 약을 여러알 처방하는 대신 고함량 1알을 처방해야(저함량 배수 처방시 차액만큼 심사조정) 한다.

심평원 의료장비 현황조사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의료장비에 대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고자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중에 있음에 따라 의협의 지침을 각 시군의사회를 통해 안내하였다. 의협지침은 심평원에 미신고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과정에서 공인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음에 의협에서 의료급여 제도변경에 대한 투쟁과 관련 공식적으로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는 바 우편, 또는 서면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2007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지도 점검 결과 안내

각 시도(시군구)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에서 실시한 2007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정기 지도·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을 안내해 오에 따라 회원들에게 안내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의료용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미비치 110건, 기록정비 규정위반 41건, 재고량 불일치 28건,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사용 27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진열 11건, 보관 규정위반 9건이다.

자보진단서 발급관련 실태파악

보험사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요청과 관련 자보진단서 발급비용 미지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사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일반진단서 발급비용과 동일하게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2006. 4. 7 보건복지부 인터넷 민원회신, 의료정책팀)고 하였으며, 피해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손보사의 직·간접 압력에 의한 진단서 발급비용 청구 포기사례와 진단서 발급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미지급된 사례를 수집하였다.

자보법 시행령 중 외출·외박관련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중 입원 환자의 외출·외박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내용에 대해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을 통해 안내하였다.

자배법 시행령 주요개정사항(외출·외박부 기재사항)으로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의료기관이 허락한 기간, 귀원한 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외출 또는 외박 자(또는 보호자), 허락한 의료인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외출·외박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200만원(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때)이며,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의사회 중창단 창단 발표회



포항시의사회(회장 권영철)는 2007년 송년을 맞아 12월 17일(월) 오후 7시 30분 효자아트홀에서 포항시의사회 중창단 창단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창단음악회에는 본회 회장을 비롯 포항시 의사회 회원과 가족, 내빈과 포항시민 등의 열렬한 환호 속에 열렸다.

권영철 회장은 “순수한 아마추어이고 이제 막 출범한지 1년이 되는 햇병아리 중창단이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뭉쳐진 우리 포항시의사회 중창단을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회를 주춧돌로 삼아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하시길 기원하며, 언젠가는 의사회 합창단까지 결성되어 아름다운 음율로 시민들의 마음까지 어우르는 그날을 소망해봅니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포항시 의사회 중창단은 「만남」을 오프닝 송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훽훽 날아요」, 「My heart will go on」, 「Ave maria」, 「사랑으로」, 「엄마야 누나야」, 「학창시절」, 「목련화」, 「Mattinata(아침의 노래)」, 「SINGIN' IN THE RAIN」, 「SING, SING, SING!」, 「OH HAPPY DAY」, 「대관령」, 「거문도 뱃노래」, 「여유 있게 걷게 친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최진사댁 셋째 딸」 등을 열창하였다.

출연진 소개

△지휘 편성준 △반주 정유경

△중창단 : 박태정(단장), 김기홍, 임경삼, 김광우, 노영철, 송준화, 한형원, 노진우, 신명준, 우창호, 남동수, 박세관

△특별출연 하수민, 소프라노 하수진, 이항덕, 테너 배호근, 플루트 하수민

제2회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도형)는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2008년 1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안동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회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를 열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날 자선음악회는 본회 이원기 회장과 안동시의사회 회원과 가족, 김희동 안동시장, 장호중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을 비롯한 안동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도형 안동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음악회를 준비하는 동안 오랜 시간 연습하였지만 다소 미숙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바라며, 안동시의사회 중창단과 여러 출연진들 모두 따뜻한 마음을 노래에 담아 여러분께 전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로써가 아니라 연주자와 관객으로 만나는 오늘의 이 자리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과 더 가깝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자선음악회는 안동시의사회 중창단의 「바위섬」을 오프닝송을 시작으로 「내 마음의 보석상자」, 「메기의 추억」 등의 중창이 이어졌고, 특별출연으로 장호중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의 피아노연주와 바리톤 권용일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등의 독창과 더불어 권영호 성심치과의원장과 권삼성 치과의원장의 「떠나가는 배」를 색소폰 연주, 안동 류병원 남성중창단의 「우리들은 미남이다」, 「사냥꾼의 합창」의 우정출연이 있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울릉도 트위스트」, 「최진사댁 셋

째 딸」 등의 가요메들리로 한껏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 중창단은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등 자선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출연진 소개

△지휘 정만복 △반주 김 송 △바리톤 권용일

△중창단 : 권세홍, 권영대, 김경목, 김광인, 김도형, 김재왕, 박무식, 양승홍, 윤태권, 장완섭, 정재엽, 최현욱 회원

△우정출연 : 류병원 이종호 신경과장, 이석진 정신과정의 6명

△특별출연 : 장호중 안동지청장, 권영호 성심치과의원장, 권삼성 치과의원장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2008년 8월 4일부터 의무시행 예정인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이란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처리에 RFID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인계절차는 대형병원(고정형리더기, 태그발행기)은 태그 발행 → 배출 용기 태그 부착 → 보관 창고 입고 → 리더기 '폐기물 입고' (폐기물 계근) → '폐기물 출고' 버튼 클릭(고정형리더기 통과)으로 이루어지고 소형병원(의원급 등)은 배출용기에 태그 부착하고 운반자는 태그를 휴대형리더기로 인식후 인식카드로 배출자 인증을 받으면 된다. 현재 시스템 사용 현황은 약 30% 사용율로 종합병원 37%, 병의원 30%이다.

노인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사회원) 참여 요청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7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8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키로 되어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해당 공단지사 및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최대한 많은

의사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군의사회에서는 소속 지자체 및 공단지사에 최소 3명 이상의 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줄것을 안내하였다.

청구 S/W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의협에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구 S/W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보통신위원회 산하 '청구 S/W 개발 TFT'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회원들에게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08년 2월 25일(월)부터 2월 29일(금)까지 5일간이며, 설문방법은 전화원 대상 이메일 및 의협 홈페이지 배너, 서면으로 실시되었다.

의료현안 관련 본회 회장 서신 발송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신년인사문을 발송하였으며, 신년인사문에서는 의협 100주년 사업 및 의료현안, 본회 홈페이지 가입협조와 더불어 의사회비 납부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007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 개최

2007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지난 2008년 3월 8일(토) 오후 6시 호텔에어포트 제이드홀에서 개최하고 2007년도 주요회무보고 및 (가)결산보고, 2008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이날 전체이사회에서는 한형원 기획이사의 2007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보고, 서영진 재무이사의 2007년도 일반회계 (가)결산 및 각종 특별회계 적립금 (가)결산보고 및 2008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 황석순 법제이사의 회칙개정(안) 등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정책 파탄의 책임자인 차홍봉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탈락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거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정책으로 인해 갖가지 잘못된 제도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범사업의 실패를 무시하고 준비없이 강제로 시행한 '2000년 의약분업' 제도로서 결국 온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과 의료대란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켜 의료보험재정을 파탄내고 말았다. 더 이상의 고통을 끊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제17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 새 정부는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적인 정책들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는 첫 관문은,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일이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차홍봉 전 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고대하는 국민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차홍봉,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2000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강제로 '의약분업' 을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다.

2001년 5월 21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에 의하면 차 전 장관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가 예견되는 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부담은 늘지 않을 것' 이라고 허위 보고해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후 국민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하는 등 의약분업의 부정적 요인들을 무시하고 강행하여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했다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각종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는데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 19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아서 그해 7월 재정통합을 결국 시행토록 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료보험,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강제로 통합되어 탄생한 방대한 조직의 재정운용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지향했던 과거 정권 밑에서 누구보다 충성을 바쳐 일하던 인물이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그의 정체성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임을 증명한다.

이에 우리 의성군·군위군·청송군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보건복지정책 파탄의 책임자인 차홍봉을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시켜 줄것을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2월 12일

의성군의사회·군위군의사회·청송군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의료법 개악기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3월 21일,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를 개최하였다. 의약분업 투쟁 이후 6년 여 만에 열리는 평일 휴진투쟁이었고, 또 비가 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5만명 이상이 모여 과천벌을 가득 매우며 정부의 의료법 개악 음모를 깨뜨리고자 분노의 함성을 뜨겁게 표출하였다.

오늘 경상북도의사회는 다시금 정부의 의료법 개악기도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의사들을 통제하여 노예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법화하는 등,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의료법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졸속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마치 의사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양 호도하고 있는 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3. 정부는 무리하게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법이 마련되도록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만일 이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의사들은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경상북도의사회는 그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3월 31일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 일동

회원 동정란

○ 경상북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본회 이원기 회장

경상북도에서는 의료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본회 이원기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동 위원회 위원장에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에 본회 이원기 회장, 위원으로는 의료관련단체 4명과 대학교 5명, 변호사, 소비자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사항 조정등의 임무로 이루어지며 위촉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의료법 비대위원장에 변영우 본회 고문 위촉

대한의사협회(김성덕 회장 대행)는 지난 2007년 5월 23일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본회 고문)을 위촉하였으며, 변영우 위원장은 의료계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

○ 경북의대 동창회장에 변영우 동문 선출

지난 2008년 2월 22일(금) 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에서 2008년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제64차 정기총회 및 안행대상 시상식을 갖고 제24대 동창회장에 변영우 동문(제42회)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변영우 동창회장은 1974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신경외과 전문의, 1995년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경주시의사회 회장, 경상북도체육회 이사, 경상북도자원봉사 포럼 고문등을 거쳐 경상북도의사회 제38, 39대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임기는 2008년 3월 1일에서 2010년 2월 말일까지이다.

○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운영위원 이석균 본회 의장 추천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2007. 12. 31)됨에 따라 차기운영위원을 추천의뢰해 오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석균(경산, 청십자의원) 본회 의장을 재추천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식의약품 마약류명예지도원 서보균 본회 의무이사 추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을 제49조 및 동법 제18조에 의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운영함에 따라 본회 서보균 의무이사를 추천하였으며, 주요업무로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을 하며, 관련 단체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오는 2009년까지 2년이다.

○ 식의약품 안전성정보교류협의회 위원에 서보균 본회 의무이사 추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부정·불량의약품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감시행정을 도모하고자 안전성 정보교류협의회를 운영키로 함에 따라 동 위원에 본회 서보균 의무이사를 위촉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최경자 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시행계획 및 주요사항의 연구조정과 민간사회안전망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지원사항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 본회 최경자 회원이 위촉되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배병일 교수 추천

의협에서는 의료전문 법조인을 위촉하여 의료현안에 대한 외부 전문단체의 지지 유도 및 회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등을 위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가칭)'을 발족시켜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영남대학교 법대교수인 배병일 교수를 추천하였다.

배병일 교수는 1957년 8월 13일 대구 출생으로 1975년 경북고를 졸업하고, 1980년 영남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92년 영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와 교수를 거쳐 1998년 영남대학교 법학부장, 기획부처장, 2002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 작고 회원

회 원 명	생년월일	작 고 일	근 무 처
김 종 원	1914. 8. 25	2007. 3. 26	한동대학교선린병원(포항)
박 성 열	1963. 1. 2	2007. 4. 3	우리삼성안과의원(칠곡)
임 태 규	1933. 1. 3	2007. 11. 7	전. 포항시보건소장
최 치 교	1933. 4. 18	2007. 11. 17	보성외과의원(구미)
김 자 중	1931. 10. 29	2007. 11. 27	부구의원(울진)

글쓰기, 포기할 수 없는 꿈꾸는 자유

남녘으로부터 전해지는 화신이 아니더라도 봄은 벌써 우리의 혈관을 확장시키며 피를 덥히고 있다. 꽃에서 꽃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추이처럼 우리네 삶도 다양한 빛깔과 향기로 채워지길 바라는 것은 너무 호사스런 욕심인가?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낫다'는 말에서 위로를 얻는다.

2008년 봄, 우리 의사들과는 유난히도 잘 못 사귀었던 지난 정권이 물러나고 곧 4월 총선도 막을 내리면 어수선한 정국도 차츰 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올 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말 것이다. 그때쯤 우리 의사들은 여름의 싱그러움 아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물살이 빠른 강을 건너기 전 먼저 한 발을 넣어 그 흐름을 감지한 후 큰 돌을 등에 지고 물을 건넌다고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세상의 강물이 우리 의사들에게 호의적으로 길을 내주지 않으리라는 게 중론이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각자의 등에 자기 몫의 돌 하나 짊어지고 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저야 할 돌이 무엇인지 화두로 삼아봄직하리라.

올해도 대의원총회에 맞추어 회지를 펴낸다.

<내 인생의 멘토>를 물은 특집은 기대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웠으나 현재 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의 삶과 생각의 일면을 잠시 들여다보는 것으



로 만족해야 했으며, <원로 초대석>은 몇 년 전 특집으로 꾸몄던 <미니자서전>의 후속물인 셈인데 원로들의 지혜와 경험을 들여보는 꼭지로, 앞으로도 자신의 시대를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던 선배들의 열전으로 존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몇 차례 소식지 형태로 발간하느냐, 아니면 현재처럼 문예지 형태로 연중 한 차례 발간하느냐 하는 선택의 물음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있겠으나, 편집위원들은 회원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드러내고 이 지역의 선비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뜻에서도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문제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금에 인문학이 쇠퇴하는 시대와 사회 환경이 그렇고, 이 땅에서 의사로서 살아가기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 그러나 어찌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꿈꾸는 자유마저 포기할 수는 없잖은가? 젊은 날 눈 내리는 한 밤의 들판을 걸으며, 자신의 족적을 대지에 찍어 보던 그 충일하고 신비한 느낌을 잊지 못하듯, 내 앞에 펼쳐진 백지, 그 순백의 유희 앞에서의 가슴 떨림을 어찌 말로 드러내랴? 삶과 글을 깊이 사랑하는 회원들이 날로 늘어나 양으로나 질로나 더욱 풍성한 『경북의사회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늘 관심 기울여주시는 회장님, 바쁜 가운데 봉사하는 편집위원들,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며, 무엇보다도 귀한 원고로써 본회를 아끼시는 여러 회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경북의사회지

2008년 32호

편집위원

권 세 흥
이 봉 구
박 정 돈
하 달 봉
이 덕 영

인쇄 · 2008년 3월 15일

발행 · 2008년 3월 22일

발행인 · 이원기

편집인 · 권세홍, 이봉구

발행처 ·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 : 053) 941-7785, FAX : 053) 941-5557

Homepage : <http://www.igbma.or.kr>

E-mail : cugkma14@hanmail.net

제작처 · **만인기획**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743-7번지

TEL : 053)422-0550, FAX : 053)426-9543